



정답과 해설

비상교육 교과서편

중등 국어 2-1

◆ 본책	02
◆ 시험 대비 문제집	23



정답과 해설

1 나를 키우는 읽기

[1] 읽기의 가치와 중요성

학습목 본문 008~010쪽

008쪽 까닭, 대답
010쪽 책 읽기, 추위, 서자, 가치, 만병통치약

간단 체크 내용 문제 본문 008~010쪽

008쪽 01 ④ 02 ④
009쪽 03 ③ 04 간서치 05 ②
010쪽 06 ① 07 만병통치약 08 ③ 09 독서삼매

- 01 똑똑한 사람을 비판하기 위해서 책을 읽는 것이 아니라, 더 똑똑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책을 읽는다고 하였다.
- 02 이 글에서는 ‘친구들’이라는 호칭을 사용하여 읽는 이가 편하게 글을 읽을 수 있도록 부드러운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다.
- 03 이 글에서 ‘이덕무’는 배고플 때 책을 읽으면 배불리 먹을 수 있게 되는 것이 아니라, 글에 담긴 이치를 맛보느라 배고픈 줄도 모르게 된다고 하였다.
- 04 (바)에서 ‘이덕무’는 책에 열중하다 보니 ‘책만 보는 바보’라는 뜻의 ‘간서치’로 불리기도 했다고 하였다.
- 05 ‘이덕무’는 서자여서 벼슬을 할 수 없었고, 너무 가난하여 식구들의 끼니를 걱정해야 했지만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답답한 상황에 처해 있었다. 그럴 때 ‘이덕무’에게 위로가 되고 힘을 준 것이 책이었기 때문에 ‘이덕무’는 책 읽기에 몰두할 수밖에 없었다.
- 06 (하)에서 글쓴이는 글을 읽는 것의 좋은 점을 나열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부와 명예를 얻을 수 있다는 언급은 하고 있지 않다.
- 07 (하)에서 글쓴이는 글을 읽으면 지혜로워지고, 지식을 쌓을 수 있고, 배고픔이나 추위도 있을 수 있고, 걱정이나 근심을 해결할 수 있으며, 몸의 병도 나을 수 있기 때문에 글을 읽는 것은 ‘만병통치약’이라고 하였다.
- 08 (하)와 (거)는 이 글의 끝부분으로 여기에서 글쓴이는 책 읽기의 가치를 정리한 후, 독자에게 책을 읽자는 당부를 전달하고 있다.
- 09 이 글의 글쓴이는 우리의 몸과 마음이 다 편안하다면 책 읽기에 좋을 때이므로 책을 들고 독서삼매에 빠지라고 권유한다.

간단 체크 어휘 문제 본문 008~010쪽

008쪽 (1) ○ (2) × (3) ○ (4) ×

학습 활동

본문 011~017쪽

이해 근심, 지혜
적용 불모지, 숲, 삶

간단 체크 활동 문제

본문 011~017쪽

011쪽 01 ④ 02 글을 읽으면 지혜로워질 뿐만 아니라 지식을 쌓을 수 있고, 근심이나 걱정을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
03 ⑤
012쪽 04 ⑤ 05 ④
013쪽 06 ② 07 ① 08 ②
014쪽 09 ② 10 ⑤
015쪽 11 ④ 12 보잘것없는 나무들이 묵묵히 자신의 소임을 다함으로써 숲을 지켜 나간다. 13 ⑤
016쪽 14 ① 15 ⑤ 16 ②
017쪽 17 ⑤

- 01 ‘이덕무’는 책 읽기의 유익함으로 가난에서 벗어나는 것을 언급하고 있지 않다.
 - 02 글을 읽으면 지혜로워질 뿐 아니라 지식을 쌓을 수도 있고 자신의 근심이나 걱정을 해결할 방법을 찾을 수 있는 등 삶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므로 글쓴이는 글 읽기를 ‘만병통치약’에 빗대어 표현하고 있다.
 - 03 <보기>의 학생은 책을 읽고 난 후에 답답하거나 무거웠던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을 느꼈다고 하였다. 이를 통해 책 읽기가 걱정이나 근심을 해결해 주었음을 알 수 있다.
 - 04 ⑤의 학생은 『옛 그림 읽기의 즐거움』을 읽고, 그림을 감상하기 좋은 거리가 어느 정도인지에 대한 새로운 정보를 얻고 있다.
 - 05 읽기 계획을 세울 때는 친구의 추천보다 자신의 관심 분야와 읽기 수준을 먼저 고려해야 한다.
 - 06 이 글은 글쓴이가 자신의 경험에서 얻은 생각이나 느낌을 자유로운 형식으로 표현한 경우필로, 독자에게 깨달음을 주고 있다. 논리적 근거를 통해 현실을 비판하거나 사회적, 시사적 문제에 대한 의견을 쓴 글은 중수필이다.
 - 07 이 글에서 글쓴이는 다른 사람의 말을 인용하여 내용을 표현하고 있지 않다.
- 오답 풀이**
- ② (라)에서 ‘시로미’의 상태를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다.
 - ③ (마)에서 글쓴이가 ‘시로미’를 먹은 경험을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 ④ (나)에서 글쓴이가 본 활력이 넘치는 남대문 야시장 사람들의 모습을 나열하고 있다.
 - ⑤ (나)에서 활력이 넘치는 남대문 야시장 사람들의 모습을 ‘질긴 고무장갑’과 ‘물고기’에 빗대어 표현하고 있다.

08 이 글의 글쓴이는 콩알보다 작은 '시로미' 열매에 많은 물기가 담겨 있어 이를 먹고 전혀 목이 마르지 않았기 때문에 '시로미'의 위력이 대단하다고 한 것이다.

09 ㉠ 관목, ㉡ 개척 식물, ㉢ 싸리나무, ㉣ 고사리는 모두 가치 있는 역할을 하는 보잘것없는 식물이다. ㉤ 교목은 숲의 중심부에서 자라는 키가 큰 나무이므로 보잘것없는 식물과는 그 성격이 다르다.

10 (가), (타)에서 글쓴이는 보잘것없는 식물들이 저마다의 역할을 한다고 하며, 이 세상에 소중하지 않은 삶은 없다는 진리를 깨달았다고 하였다. 따라서 이 글은 자신이 세상에서 쓸모가 없는 존재라고 생각하는 친구에게 추천하는 것이 적절하다.

11 이 글에서 글쓴이는 자연물인 보잘것없는 나무들을 통해 세상 모든 것은 저마다의 가치를 지니고 있음을 깨닫는다. 그리고 이러한 깨달음을 자신의 삶에 적용하여 스스로를 가치 있다고 여기며 살아가겠다는 다짐을 한다.

12 ㉢는 보잘것없어 보이는 나무들이 각자가 맡은 자신의 소임을 다하여 숲을 지켜 나가는 모습을 강조한 표현이다.

13 이 글에서 글쓴이는 보잘것없는 나무들을 보며 자신의 삶이 너무나도 소중하다는 걸 깨닫고 있다. 따라서 자신의 삶이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글쓴이가 추구하는 삶을 실천하는 방법이다.

14 관목은 숲이 생길 때 가장 중심부에서 그 틀을 잡아 주다가 어느 정도 숲이 완성되면 키 큰 나무들에게 자리를 내주고 숲의 주변부로 밀려난다. 그리고 언저리에 자리 잡은 관목들은 숲 주변부로 자기들을 밀어낸 교목들을 보호해 주고 자연재해에 맞서 숲 전체를 지켜 주는 역할을 한다.

15 시로미, 싸리나무 같은 관목과 쑥, 억새, 고사리 같은 풀은 자신의 자리에서 묵묵히 역할을 수행하며 숲을 지킨다. 위로만 자라면서 어떻게든 햇볕을 많이 받으려는 것은 교목들이다.

16 이 글은 보잘것없지만 가치 있는 역할을 하는 식물들을 소개하고, 그것을 통해 글쓴이가 얻은 깨달음을 담은 수필이다. 자연재해의 원인은 이 글과 관련이 없는 내용으로, 이 글에서 다루고 있지 않다.

17 자신이 쓸모없다고 생각하던 <보기>의 독자는 이 글을 읽고 나서 자신을 가치 있는 존재로 여기며 뭐든지 열심히 할 거라고 다짐하고 있다. 이로 보아 <보기>의 독자가 이 글을 읽고 삶의 의미를 새롭게 발견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간단 체크 어휘 문제 본문 011~017쪽

014쪽 (1) ○ (2) × (3) × (4) ○

압축 파일 본문 018~019쪽

1 가치 2 상념 3 서자 4 위로 5 만병통치약 6 관목 7 시로미 8 개척 식물 9 고목나무 10 가치

시험에 나오는 소단원 문제 본문 020~021쪽

01 ① 02 ① 03 ④ 04 만병통치약 05 ① 06 ③
07 ③ 08 ②

01 (가)에서는 '또 어떤 까닭이 있을까?'라고 스스로 질문을 던진 후 이에 대한 답변을 함으로써 책을 읽는 다양한 까닭을 밝히고 있다.

02 (다)에서 서자인 '이덕무'가 답답한 상황에 처했을 때 위로가 되고 힘을 준 것이 책과 그 책을 읽고 함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벗들이었다고 하였으므로 '이덕무'가 친구를 사귄 수 없었다는 ①의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03 (나)에서 '이덕무'는 책 읽기의 유익함 네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다.

04 **서술형** (마)에서 글쓴이는 글을 읽는 것을 '만병통치약'에 빗대어 책 읽기의 가치를 드러내고 있으며, 이를 통해 독자에게 책을 읽자는 권유를 하고 있다.

05 이 글의 글쓴이는 보잘것없어 보이는 식물들이 저마다의 존재 가치가 있다는 깨달음을 통해 자신의 삶을 가치 있고 소중하게 여기면서 살아가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06 (다)에서 관목은 숲이 생길 때 틀을 잡아 주고, 어느 정도 숲이 완성되면 키가 큰 교목들에게 자리를 내주고 숲의 주변부로 밀려난다고 하였다.

07 ㉠, ㉡, ㉢, ㉣은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는 자리에서 묵묵히 자신이 맡은 역할을 다하는 존재들이다. ㉤은 관목이 지키는 대상이다.

08 ③에서는 활력 넘치는 남대문 야시장 사람들을 질긴 고무장갑에 직접 빗대는 직유법을 활용하고 있다. ② 역시 '니'를 '산새'에 직접 빗댄 직유법을 활용하여 화자의 안타까움을 표현하고 있다.

- 오답 풀이** ① 'A는 B이다.'와 같은 형식으로 A와 B를 동등한 의미로 대치하여 암시적으로 나타내는 은유법이 사용되었다.
③ 쉽게 판단할 수 있는 사실을 의문 형식으로 표현하여 의미를 강조하는 설의법이 사용되었다.
④ 사람이 아닌 것을 사람에 빗대어 표현하는 의인법이 사용되었다.
⑤ 모순된 표현을 통해 진리를 표현하는 역설법이 사용되었다.

(2) 핵심 정보를 담은 발표

학습 활동 본문 022~031쪽

이해 심각성, 기부, 문제, 해결 방법, 사막화

학습록 본문 022~031쪽

026쪽 소개, 해결, 영상, 핵심 정보

간단 체크 활동 문제

본문 022~031쪽

- 022쪽 01 ② 02 ⑤ 03 ⑤
- 023쪽 04 ② 05 ⑤ 06 '시장 경제 체제'의 문제, '부정부패'의 문제, '사막화 현상'
- 024쪽 07 ⑤ 08 ③ 09 지금까지, 알아보았습니다.
- 025쪽 10 ④ 11 ② 12 ④
- 026쪽 13 ② 14 ② 15 ③
- 027쪽 16 ⑤ 17 ⑤
- 028쪽 18 ⑤ 19 ① 20 ②
- 029쪽 21 ⑤ 22 ⑤
- 030쪽 23 ⑤ 24 ④ 25 ③
- 031쪽 26 ⑤ 27 ③

- 01 이 발표에서 발표자는 듣는 이에게 '여러분! 혹시 '보릿고개'라는 말을 아시나요?'와 같은 질문을 던져 듣는 이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 02 발표 주제를 강조하고 이를 실천할 것을 당부하는 것은 '처음' 단계가 아니라 '끝' 단계에 제시되어야 할 내용이다.
- 03 자료 ①의 지도를 통해 기아 인구가 일부 지역이 아닌 세계 곳곳에 넓게 퍼져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 04 자료 ②를 보고 식품이 전 세계의 모든 인구에게 공급하고도 남을 만큼 풍부하다는 사실은 알 수 있지만, 기아 문제의 발생 원인은 알 수 없다. 이 자료를 통해 기아 문제가 발생하는 원인이 식품의 부족이 아님을 알 수 있다.
- 05 ㉠은 기아 문제의 원인에 대한 추가 정보를 제시한 것이 아니라 앞에서 언급한 세 가지 원인을 종합하여 요약한 내용이다.
- 06 이 발표의 발표자는 통계 자료를 통해 기아 문제가 식량이 부족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고 한 후, 그 원인으로 '시장 경제 체제'의 문제, '부정부패'의 문제, '사막화 현상'을 들고 있다.
- 07 발표자는 (라)에서 기아 문제의 해결 방안으로 반 친구들과 함께 돈 모아 기부하기, 기아 문제의 심각성 주변에 알리기, 기아 관련 정책이나 소식에 관심 기울이기 등을 제시하고 있다.
- 08 자료 ④는 '만 원의 기적 캠페인' 영상으로 구호 단체에서 펼치고 있는 기부 활동을 소개하여 듣는 이의 적극적인 동참을 유도하고 있다.
- 09 (마)에서는 '지금까지 기아 문제의 심각성과 그 원인,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알아보았습니다.'라고 하며 처음과 가운데 부분의 내용을 요약정리하고 있다.
- 10 발표자는 기아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고, 기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을 권유하고자 이 발표를 하였다.
- 11 '시장 경제 체제'의 문제, '부정부패'의 문제, '사막화 현상'의 문제는 발표자가 기아 문제의 원인으로 제시한 것이므로, 빈 칸에는 '원인 분석'이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 12 이 발표에서는 기아 문제의 심각성과 원인을 살펴본 다음, 그

해결 방법을 제시하면서 발표를 마무리하고 있는데, 이는 문제와 해결 방법에 따른 내용 조직에 해당한다.

- 13 자료 2는 전 세계 평균 식품 에너지 공급 충분성의 변화를 한 눈에 파악할 수 있게 해 줌으로써, 기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원인을 생각해 보게 한다.
- 14 자료의 분량이나 내용의 구체성보다는 자료들이 핵심 정보를 드러내는 데 도움을 주는지를 기준으로 발표 자료를 선별해야 한다.
- 15 발표를 할 때 적절한 몸짓이나 손짓을 활용하면 발표 내용을 더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다.
- 16 <보기>의 '민재'는 『평화는 나의 여행』이라는 책을 읽으면 우리가 살아갈 방향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을 거라고 하였다. 결국 '민재'는 이러한 고민을 통해 더 나은 인간으로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하여 이 책을 같이 읽자고 제안한 것이다.
- 17 [A]에서 '우리 모두는 이 책이 환경 분야와 관련하여 믿을 만한 책이라고 생각하여, 이 책을 읽기로 하였다.'고 하였으므로, 주제로 선정한 환경 분야와 관련하여 믿을 만한 책인지를 기준으로 『지구인의 도시 사용법』이라는 책을 선정했음을 알 수 있다.
- 18 독서 카드를 작성하면 지금까지 자신이 읽은 책에 대한 기록이 남기 때문에 이를 참고하면 다양한 분야의 책을 선택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 19 책을 읽기 전 내용을 예측하기 위해 전체 차례를 확인할 수는 있으나, 책을 읽고 나서 독서 카드를 작성할 때에는 책의 차례를 넣을 필요가 없다.
- 20 책에서 드러나는 글쓴이의 입장이 자신의 입장과 달라도 발표할 주제에 적합하다면 그것을 발표 주제로 선정할 수 있다.
- 21 <보기>에서는 무분별한 플라스틱 사용 때문에 발생한 환경 오염의 심각성과 해결 방안을 찾아보려고 하였으므로, 이 발표는 문제와 해결 방법에 따라 내용을 구성하는 것이 적절하다.
- 22 폐기된 플라스틱 대부분이 바다에 버려지면 바다 오염을 일으키게 된다. 따라서 폐기된 플라스틱 대부분이 바다에 버려지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보여 주는 그래프는 플라스틱이 바다 오염을 일으키는 요인임을 보여 주는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 23 발표문을 작성한다고 해서 손짓, 발짓 활용이나 올바른 시선 처리를 하는 데에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니다. 발표 전에 연습을 하는 것이 적절한 손짓, 발짓이나 시선 처리를 하는 데에 도움이 된다.
- 24 발표문의 가운데 부분에서는 구체적인 발표 내용을 쉽고 분명하게 표현해야 한다. 발표문에서 전체 내용을 요약정리해야 하는 부분은 끝부분이다.
- 25 발표를 준비하면서 듣는 이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미리 계획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이것이 발표문을 작성할 때 고려할 사항은 아니다.

26 발표 내용은 통일성을 갖추어야 하기 때문에 하나의 주제로 작성되어야 한다. 듣는 이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는 질문, 농담 등의 다양한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27 발표자는 발표할 내용을 기억한 후 듣는 이를 보며 말해야 한다. 청중의 반응에 따라 표현이나 내용 등을 조절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말하면 듣는 이와는 상호 작용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자칫 지루하거나 딱딱한 발표가 될 수 있다.

압축 파일 본문 032쪽

① 목적 ② 부정부패 ③ 그래프 ④ 동참 ⑤ 원인
⑥ 핵심 정보 ⑦ 선정

시험에 나오는 소단원 문제 본문 033쪽

01 ④ 02 ③ 03 ⑤ 04 영상

01 이 발표에서는 '유엔 세계 식량 계획[WFP]'이라는 권위 있는 기관의 통계 자료를 활용하여 내용의 신뢰도를 높이고 있다.

02 제시된 그래프는 전 세계 평균 식품 에너지 공급 충분성 지수가 계속 증가하여 2014년~2016년에는 약 125 퍼센트에 이르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따라서 제시된 그래프는 식품 공급량이 충분한데도 기아 문제가 발생하는 실태를 제시하고 있는 (다)에 활용해야 하는 자료이다.

03 (라)에서는 일부 기업이나 정부가 이익을 많이 남기기 위해 농산물의 가격과 생산량을 조절하는 것이 기아 문제의 원인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따라서 ㉠에는 수요와 공급에 의해 자원이 배분되는 '시장 경제 체제'가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04 **서술형** (마)에서는 구호 단체에서 펼치고 있는 기부 활동을 안내하는 영상을 소개함으로써 기아 문제의 해결 방법을 제시하고 듣는 이가 이에 동참할 것을 권유하고 있다.

어휘력 키우기 본문 034쪽

01 ③ 02 ②

01 ③의 '무기력하다'는 '어떠한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기운과 힘이 없다.'라는 의미를 지닌 낱말이다.

02 '불모지'는 '식물이 자라지 못하는 거칠고 메마른 땅'으로, 농사를 짓기가 힘든 곳이기 때문에 ②의 쓰임은 바르지 않다.

시험에 나오는 대단원 문제 본문 035~036쪽

01 '만병통치약'과도 같은 책 읽기를 생활화하자. 02 ⑤ 03 ⑤ 04 ① 05 ⑤ 06 ② 07 ③ 08 기부하기, 기아 문제의 심각성 알리기, 기아 관련 정책이나 소식에 관심 기울이기

01 **고난도 서술형** 글쓴이는 '이덕무'의 삶과 글을 통해 책 읽기가 지닌 가치를 제시하고, 글 읽기를 만병통치약에 빗대어 표현하고 있다. 이를 통해 독자에게 읽기의 가치와 중요성을 강조하고 책을 읽자는 당부를 하고 있다.

평가 목표	읽기의 가치 및 중요성과 관련지어 글쓴이가 전하고자 하는 바 파악하기
채점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목과 관련지어 글쓴이가 전하고자 하는 바를 <조건>에 맞게 쓴 경우 [상] ✓ 제목과 관련지어 글쓴이가 전하고자 하는 바를 썼으나, <조건>에 맞지 않은 경우 [중] ✓ 글쓴이가 전하고자 하는 바를 썼으나, 그 서술이 미흡하고 <조건>에 맞지 않은 경우 [하]

02 (다)에서는 '이보다 더 좋은 만병통치약이 어디 있겠어?'라고 하며 스스로 질문은 하고 있으나 그에 대한 대답은 하고 있지 않다. 그 질문은 쉽게 판단할 수 있는 사실을 의문의 형식으로 표현하여 의미를 강조한 설의법을 사용한 표현이다.

03 ㉠은 숲이 생길 때 가장 중심부에서 그 틀을 잡아 주다가 숲이 완성되면 큰 나무들에게 자리를 내 주고 주변부로 밀려난다. 그리고 ㉡은 불모지에 가장 먼저 들어와 지반을 안정시키고 운택한 토양을 만드는 역할을 한다. 이처럼 ㉠과 ㉡은 자신을 내세우지 않으면서 묵묵히 자신의 역할을 수행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04 (바)에는 세상 모든 것은 저마다 가치를 지니고 있다는 글쓴이의 깨달음이 드러나 있다. 따라서 ㉢에는 보잘것없어 보이는 나무들이 묵묵히 자신의 소임을 다하여 숲을 지켜 나가는 모습을 강조한 '뭇생긴 나무가 산을 지킨다.'가 들어가야 한다.

- 오답 풀이**
- ② 부분만 보고 전체는 보지 못하는 근시안적인 행동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 ③ 잘될 사람은 어려서부터 남달리 장래성이 엿보인다는 말이다.
 - ④ 아무리 뜻이 굳은 사람이라도 여러 번 권하거나 피고 달래면 결국은 마음이 변한다는 말이다.
 - ⑤ 자식을 많이 둔 어버이에게는 근심, 걱정이 끊일 날이 없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05 이 발표의 끝부분인 (마)에서는 '지금까지 기아 문제의 심각성과 그 원인,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알아보았습니다.'라고 하며 앞부분의 내용을 요약정리하고 있다. 그리고 '오늘 발표를 듣고, 여러분도 세계의 이웃을 생각하여 함께 고민해 주세요.'라고 하며 듣는 이의 인식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06 이 발표에서는 둘 이상의 낱말이 합쳐져 원래의 뜻과는 전혀 다른 뜻으로 굳어져 쓰이는 관용 표현을 활용하고 있지 않다.

07 제시된 자료는 영양실조 인구 비율을 지도에 색으로 표시해 기아를 겪고 있는 사람들의 분포와 비율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게 하였다.

08 **서술형** 이 발표에서는 기아 문제의 심각성과 원인을 제시한 후, (라)에서 기부하기, 기아 문제의 심각성 알리기, 기아 관련 정책이나 소식에 관심 기울이기 등을 그 해결 방안으로 제안하고 있다.

2 주고받는 이야기, 함께 나누는 생각

[1] 담화의 개념과 특성

간단 체크 개념 문제

본문 040쪽

1 (1) ○ (2) ○ (3) × 2 상황 맥락 3 ⑤

- (3) 언어 공동체의 의식이나 가치를 담고 있고, 인종, 국적, 지역, 성별 등과 관련되는 것은 상황 맥락이 아니라 사회·문화적 맥락이다.
- 상황 맥락은 담화가 이루어지는 구체적인 시간과 공간이다. 같은 말이나 글이라도 어떤 상황 맥락에 쓰였는지에 따라 의미가 달라질 수 있다.
- 사회·문화적 맥락은 특정한 공동체에서 사회적, 문화적으로 오랜 기간에 걸쳐 만들어진 맥락으로, 지역, 세대, 성별, 문화, 역사적 상황 등이 있다. 담화가 이루어지는 공간인 장소는 상황 맥락에 해당한다.

학습 활동

본문 041~050쪽

이해 민재, 말하는 이, 시간과 공간, 손님, 무단 횡단, 이해, 이모, 언니, 직접적인, 역사적

[학습록]

본문 041~050쪽

047쪽 맥락, 상황 맥락, 문화, 차별적

간단 체크 활동 문제

본문 041~050쪽

- 041쪽 01 ⑤ 02 ②
- 042쪽 03 ⑤ 04 ㉠: 팔이 아프지는 않으신가요? / ㉡: 신발이 발에 잘 맞나요?
- 043쪽 05 ③ 06 ⑤
- 044쪽 07 ② 08 ⑤
- 045쪽 09 ③ 10 ⑤
- 046쪽 11 ② 12 ②
- 047쪽 13 ③ 14 역사적 상황
- 048쪽 15 ⑤ 16 ①
- 049쪽 17 ④ 18 ⑤
- 050쪽 19 ④

- 양호 선생님이 배를 움켜쥐고 아파하는 남학생에게 걱정하는 표정으로 말하는 것으로 보아 “어떻게 왔어?”가 “어디가 아프니?”의 의미로 쓰였음을 알 수 있다.
- 같은 말이라도 대화를 나누는 시간과 장소, 말하는 이와 듣는 이 등 상황이 달라지면 그 말의 뜻도 달라질 수 있다.
- 담화 상황에서 말의 뜻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말하

는 이, 듣는 이, 구체적인 시간과 공간을 고려해야 한다.

- ①은 신발 가게에 온 의사가 환자인 점원에게 다친 팔의 상태가 어떤지 묻는 말이다. ㉡은 신발 가게의 점원이 손님으로 온 의사에게 신발이 발에 잘 맞는지 묻는 말이다.
- ㉢은 게임을 그만하고 잠자리에 들라는 의도가 담긴 말이므로, ③과 같이 대답하는 것이 적절하다.
- <보기>의 ‘양심을 지키세요.’라는 문구를 시험장에서는 ‘부정 행위를 하지 마세요.’ 정도의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 지역 방언에는 해당 지역의 오랜 역사와 전통이 배어 있다. (가)의 안내문은 지역 방언을 사용하여 지역의 특색과 분위기를 뚜렷하게 드러내고 있다.
- ‘남아공’은 ‘남아서 공부를 해야 한다.’는 말의 줄인 말이다. (나)에서 아빠는 딸이 사용한 ‘남아공’의 뜻을 알지 못하여 두 사람의 대화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처럼 세대에 따라서 주로 사용하는 어휘나 표현 등이 다를 수 있으므로 상대를 배려하며 말해야 한다.
- 우리나라 문화에서는 친척이나 연상이 아니더라도 친근감 있는 어투로 상대를 부를 때 ‘이모’와 ‘언니’를 사용하기도 한다. 그런데 이 일기를 쓴 외국인은 ‘이모’와 ‘언니’의 사전적 의미는 알지만 우리의 말 문화를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해당 호칭을 어색하게 느꼈다.
- 다른 문화권의 사람과 대화할 때에는 우리의 문화를 이해해야만 의미를 알 수 있는 관용적 표현 대신에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표현을 쓰는 것이 좋다.
- 연설문에서 벨슨 만델라는 집단행동을 하여 인종 차별 체제를 끝내야 한다고 하였다. 이로 보아 당시 남아프리카 공화국에는 흑인과 백인을 차별하는 인종 차별이 존재했음을 알 수 있다.
 - 오답 풀이 ①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흑인과 백인 대부분은’이라는 말에서 백인과 흑인이 모두 거주했음을 알 수 있다.
 - ③ ‘보통 선거만이 평화와 인종 화합을 이룰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라고 하는 것으로 보아 보통 선거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 ④, ⑤ ‘자유를 얻기 위해 우리가 저항하고 행동할 때 민주주의는 우리의 눈앞에 다가올 것입니다.’라는 말에서 민주주의가 실현되지 않고 흑인도 자유를 누리지 못했음을 알 수 있다.
- 특정한 역사를 배경으로 한 담화는 말하는 이와 듣는 이가 그 역사적 상황과 정서를 같이 공유하고 있을 때 원활하게 의사소통을 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연설문을 읽은 학생들은 그 당시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역사적 상황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내용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
- 이 연설문을 이해하려면 연설문이 쓰일 당시의 역사적 상황과 연설자에 대한 정보, 당시 사용한 용어 등을 조사해야 한다. 그런데 의학 잡지에서 백인과 흑인의 유전자적 유사성을 찾아보는 것은 이 연설문이 쓰일 당시의 역사적 상황을 조사하는 것과는 관계가 없다.

- 14 이 연설문과 같이 특정한 역사를 배경으로 한 담화는 말하는 이(글쓴이)와 듣는 이(읽는 이)가 그 역사적 상황을 공유하고 있을 때 듣는 이가 그 내용을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다.
- 15 “잘한다.”는 담화 상황에 따라 의미가 다르게 표현되고 해석된다. ①, ②, ④와 같은 상황에서는 질책의 목적이, ③과 같은 상황에서는 칭찬의 목적이 담겨 있다.
- 16 “지금 몇 시니?”라는 말은 제시된 두 상황에서 다른 의미로 사용되었다. 상황 1에서는 “이제 그만 자고 빨리 일어나.”의 의미로, 상황 2에서는 “게임 그만하고 이제 자야지.”의 의미로 쓰였는데, 이는 담화가 이루어진 시간의 차이 때문에 의미가 달라진 것이다.
- 17 모둠에서 토의하여 설정한 상황은 아침에 버스를 타고 등교하다가 발이 불편한 친구에게 자리를 양보한다는 내용이다. 따라서 등장인물은 학생들이다.
- 18 지역, 세대, 문화, 역사적 상황은 사회·문화적 맥락의 요인이고, 시간과 공간은 담화가 이루어지는 장면과 직접 관련된 상황 맥락의 요인이다.
- 19 [A]는 ‘수민’이 맛있는 저녁을 준비해 주신 부모님께 고맙다고 말씀드리는 상황이므로, ④와 같이 연기해 달라고 지시하는 것이 적절하다.

- 오답 풀이** ① ‘수민’과 엄마, 아빠 모두 말하는 이면서 동시에 듣는 이이다.
 ② ‘수민’은 시무룩한 표정으로 들어와서 아빠가 자신을 위해 불고기를 만들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아빠에게 감사해한다.
 ③ 담화 장소는 ‘수민’의 방이 아니라 부엌이다.
 ⑤ 현실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실제 상황처럼 자연스럽게 연기해야 한다.

압축 파일 본문 051쪽

① 발화 ② 맥락 ③ 내용 ④ 시간 ⑤ 문화

시험에 나오는 소단원 문제 본문 052~053쪽

01 ④ 02 ③ 03 ② 04 (가): 이제 그만 자고 어서 일어나. / (나): 게임은 그만하고 이제 자야지. 05 ⑤ 06 지역, 세대, 성별, 문화, 역사적 상황 07 ③ 08 ② 09 ⑤ 10 ②

- 01 담화는 말하는 이(글쓴이)와 듣는 이(읽는 이)를 포함하여 구체적인 맥락 속에서 이루어지는 발화(문장)나 발화(문장)의 연속체이다. ④는 문장에 대한 설명이다.
- 오답 풀이** ① 담화는 담화 참여자인 말하는 이(글쓴이)와 듣는 이(읽는 이), 전달하려는 내용, 상황 맥락이나 사회·문화적 맥락과 같은 맥락으로 구성된다.
 ② 담화는 언제, 어디에서 이루어지느냐에 따라 그 뜻과 표현 등이 달라진다.

- ③ 담화 참여자인 말하는 이(글쓴이)와 듣는 이(읽는 이)의 의도나 처지, 관계 등에 따라 같은 말(글)이라도 그 뜻이 달라지기도 하며, 표현이 바뀌기도 한다.
 ⑤ 담화의 구체적인 뜻은 그것이 쓰인 의사소통 상황인 맥락에 따라 결정된다. 따라서 원활한 의사소통을 하려면 말이나 글이 이루어지는 구체적인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
- 02 고통스러워하는 표정을 지으며 양호실에 온 학생에게 “어떻게 왔어?”라고 묻는 양호 선생님의 말에는 “어디가 아파서 왔어?”라는 뜻이 담겨 있다.
- 03 제시된 상황은 팔 수술을 받은 환자가 재활 치료를 받기 위해 병원을 찾아 의사와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다. 의사가 환자에게 팔이 아프지는 않은지를 묻고 있는 것이므로 환자는 팔 상태에 대해 답변해야 한다.
- 04 **서술형** (가)는 시계가 8시를 가리키고 창밖이 환한 것으로 보아 엄마가 아침에 늦잠 자는 아들을 꾸짖는 장면임을 알 수 있다. (나)는 시계가 11시를 가리키고 창밖이 어두운 것으로 보아 엄마가 늦은 밤까지 게임을 하는 아들을 꾸짖는 장면임을 알 수 있다.
- 05 (가)~(다)의 “양심을 지키세요.”는 표현은 동일하지만 공간(장소)에 따라 그 의미가 다르게 사용되고 있다.
- 06 **서술형**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는 지역, 세대, 성별, 문화, 역사적 상황 등과 같은 사회·문화적 맥락에 따라 그 뜻이나 표현 등이 달라진다.
- 07 안내문을 지역 방언으로 쓰면 해당 지역의 특색과 분위기를 드러낼 수 있다. 그러나 해당 지역 방언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 뜻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표준어로 풀어서 설명해 주면 내용 이해를 도울 수 있다.
- 08 같은 언어권에 속하더라도 지역, 세대, 성별 등에 따라 사용하는 어휘나 표현 등이 다를 수 있어 같은 말이라도 그 뜻은 서로 다르게 이해할 수 있다.
- 09 우리나라에서는 친척이나 연상이 아니더라도 상대에게 친근함을 주기 위해 관습적으로 ‘언니’라는 호칭을 사용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 일기를 쓴 외국인은 이러한 우리의 말 문화를 잘 알지 못하여 ‘언니’라고 부르는 것을 어색하게 느낀 것이다.
- 오답 풀이** ① 옷 가게의 주인은 줄인 말을 사용하지 않았다.
 ②, ④ 외국인은 ‘언니’가 같은 부모에게서 태어난 사이이거나 일가친척 가운데 형렬이 같은 동성의 손위 형제, 혹은 남인 경우에는 자기보다 나이가 위인 여자를 부르는 말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즉 우리의 말 문화를 알지 못하고 ‘언니’의 사전적인 뜻만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에게 ‘언니’라고 부르는 주인의 말을 어색하게 느낀 것이다.
 ③ ‘공간’은 옷 가게 주인과 외국인의 의사소통 상황에 영향을 미친 요인이 아니다.
- 10 이 연설문의 내용을 이해하려면 그 당시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역사적 상황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그런데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위치와 면적을 알아보자고 하는 것은 역사적 상황을 이해하기 위한 활동과는 거리가 멀다.

(2) 의미를 나누는 듣기·말하기

학습 활동

본문 054~061쪽

이해 반응, 정보, 돌려, 울타리, 반대

학습목

본문 054~061쪽

058쪽 관계, 공유, 목적

간단 체크 활동 문제

본문 054~061쪽

- 054쪽 01 ③ 02 ①
- 055쪽 03 ③ 04 우리나라 석탑에 대한 정보 전달
- 056쪽 05 ⑤ 06 울타리
- 057쪽 07 ⑤ 08 ③
- 058쪽 09 ② 10 ⑤
- 059쪽 11 ⑤ 12 새 운동화
- 060쪽 13 ② 14 ④
- 061쪽 15 ④

01 (가)에서 여학생은 남학생의 농담이 재미있다고 말하며, 재미 있는 이야기를 더 해 달라고 하였다. 그런데 천일염을 어디에 사용하는지를 이야기하는 것은 여학생의 말에 대한 적절한 대답으로 보기 어렵다.

- 오답 풀이** ① 여학생의 요구에 맞게 재미있는 얘기를 더 해 주었다.
 ② 다른 얘기는 더 알지 못한다고 적절하게 대답하였다.
 ④ 여학생의 물음에 맞게 천일염의 사전적 의미를 말해 주었으므로 적절한 대답이다.
 ⑤ 여학생의 물음에 천일염의 뜻을 인터넷 사전에서 같이 찾아보자고 하며 적극적으로 의사소통하고 있다.

02 (가)와 (나)에서는 같은 말로 시작한 대화가 여학생의 반응에 따라 다른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대화는 정해진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참여자들의 배경지식이나 경험, 참여자들 사이의 관계, 상대의 반응 등에 따라 결정된다.

03 (나)의 엄마는 놀이공원에 가자는 아들의 말을 귀 기울여 듣고 있지 않지만, 아들의 제안을 못 들은 척하지는 않았다. 다만 거절의 근거를 타당하게 제시하지 못했을 뿐이다.

- 오답 풀이** ① (가)의 강연자는 청중의 지식수준을 고려하지 않고 '전탑', '옥개석'과 같은 어려운 용어를 사용하였다.
 ② (가)의 남학생이 '강의 주제가 탑과 관련된 거였어? 전혀 몰랐네.'라고 말한 것으로 보아 남학생이 자신이 듣고 있는 강연의 주제를 모른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④ (다)의 '영서'는 '서우'에게 지금 입고 있는 옷이 되게 안 어울린다면서 상대가 불쾌해질 만한 농담을 하였다.
 ⑤ (다)의 '서우'는 '영서'에게 '너 정말 예의가 없구나?'라고 말하며 자신의 불쾌한 감정을 직접적으로 드러내었다.

04 (가)의 강연자는 청중들에게 우리나라의 석탑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고 있다.

05 (다)의 여학생은 남학생의 농담이 기분 나쁘더라도 의도를 고려해 그것을 가볍게 받아들이는 태도가 필요하다. 또한 불쾌한 감정을 직접 드러내기보다 돌려서 표현해야 한다.

06 아빠와 아들은 울타리를 세우는 일을 주제로 이야기하고 있다. 아들은 직유법을 사용하여 사람만이 자기 것을 지키려고 울타리를 세운다면, 울타리를 세우는 일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07 아빠와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울타리에 대한 아들의 부정적인 인식이 차츰 긍정적으로 바뀌게 된다. 처음에 아들은 울타리를 세우는 것을 사람만이 하는 이기적인 행동이라고 여겼지만, 아빠의 설명을 듣고 울타리가 이웃을 하나로 만들어 주는 것임을 알게 된다.

- 오답 풀이** ① 아빠는 울타리를 긍정적으로 여기고 있다.
 ② 아빠는 아들에게 생각을 묻거나 자신이 생각하는 바를 이해시키기 위해 여러 가지 예를 들어 상냥하게 설명해 주고 있다. 이를 통해 아빠가 아들에게 생각을 강요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③ 아빠는 아들의 지식수준을 고려하며 울타리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하고 있고, 아들은 자신과 다른 아빠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며 협력적으로 대화에 참여하고 있다.
 ④ 아들은 처음에는 울타리를 자신의 것을 지키기 위해 세우는 것, 이웃을 갈라놓는 것이라고 생각하였지만, 아빠와의 대화를 통해 울타리를 긍정적으로 여기게 되었다.

08 아빠는 울타리를 세우는 일을 평화로운 전쟁이라고 역설적으로 표현한다. 이를 통해 아빠는 울타리가 서로의 영역을 구분해 줌으로써 타인과 자신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결과적으로 이웃을 하나로 만들어 준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09 처음에 울타리를 부정적으로 여겼던 아들은 아빠가 울타리의 긍정적인 의미를 자신의 눈높이에 맞춰 설명해 주자 아빠의 말에 적극적으로 반응한다. 이처럼 대화에 참여하는 우호적이고 협력적인 태도가 두 사람의 의견을 일치시켰다.

10 상대의 의견이 자신의 의견과 다르더라도 상대가 말하는 중간에 끼어들어 질문하는 것은 올바른 듣기·말하기 태도가 아니다. 자신과 의견이 달라도 상대의 말을 경청하면서 그것을 존중하고 수용하려는 태도를 지녀야 한다.

11 친구들로부터 엄마가 필리핀 출신이라고 놀림을 받아 기분이 좋지 않던 '차은'은 ㉠과 같이 엄마의 말에 대꾸도 하지 않는다.

- 오답 풀이** ①, ② 육상부 친구들이 서울로 전학을 갔을 뿐만 아니라 육상부 코치 선생님의 전학 권유를 받고 '차은'도 전학 가서 육상을 계속하고 싶어 하였다. 그러나 이는 '차은'의 기분이 안 좋아진 직접적인 이유가 아니다.
 ③ 몇몇 친구들이 자신을 놀려서 기분이 안 좋았기 때문에 엄마가 사 온 새 운동화에 대해서는 관심 자체가 없었다.
 ④ '앞부분 줄거리'를 보면 '차은'의 전학을 반대하는 사람이 엄마가 아니라 아버지임을 알 수 있다.

12 새 운동화는 엄마가 달리기를 좋아하는 '차은'을 위해 일부러 사 온 물건으로, '차은'에 대한 엄마의 애정을 엿볼 수 있는 소재이다. 그러나 이를 보고서도 '차은'이 엄마에게 화를 내면서 두 사람의 갈등이 시작된다.

13 엄마와 '차은'의 대화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까닭은 '차은'이 엄마의 성의를 무시하고 자기 기분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엄마에게 무작정 화를 냈기 때문이다(ㄱ). 또한 엄마가 '차은'이 속상해하는 이유도 모른 채 계속 운동화 이야기만 했기 때문이다(ㄷ).

14 '차은'은 학교에서 놀림을 받고 화가 나 있는데, 그것을 엄마가 몰라주고 운동화 이야기만 해서 더 화가 났다. 하지만 엄마는 '차은'의 기분이 좋지 않은 이유를 모르기 때문에 엄마께 무턱대고 화를 내기보다는 자신의 속마음을 먼저 이야기해서 어려움을 함께 해결하려는 태도가 필요하다.

15 엄마는 힘이 없는 '차은'이 걱정되어 고민을 나누고자 ③과 같이 말을 건넸다. 그러한 엄마께 눈길도 주지 않고 ④와 같이 대답하면 엄마의 기분을 상하게 만들 수 있다.

압축 파일 본문 062쪽

① 의사소통 ② 반응 ③ 의미 ④ 울타리 ⑤ 눈높이
 ⑥ 협력적 ⑦ 운동화 ⑧ 갈등

시험에 나오는 소단원 문제 본문 063~064쪽

01 ④ 02 ② 03 ⑤ 04 ② 05 다른 사람의 것을 지켜 주기 위해 세우는 것, 이웃을 하나로 만들어 주는 것
 06 ③ 07 ④ 08 ㉠ / 이유: '차은'의 특기를 칭찬하면서 '차은'과 대화를 이어 가려고 했으므로

01 듣기·말하기는 일방적으로 뜻을 전달하고 전달받는 의사소통 과정이 아니다. 말하는 이가 듣는 이와 더불어 내용을 창조하고 그 의미를 공유해 가는 과정이다.

02 아들은 주말에 놀이공원에 가자고 엄마를 설득하기 위하여 대화를 시도했지만 타당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였다.

03 '서우'는 '영서'의 농담을 가볍게 넘기지 않고 불쾌한 감정을 직접적으로 드러내고 있을 뿐, '영서'의 말하기 태도가 지닌 문제점을 지적한다거나 그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 있지는 않다.

- 오답 풀이** ① '영서'가 '네가 서우구나? 반가워.'라고 한 것으로 보아 '서우'와 '영서'가 처음 만난 사이임을 알 수 있다.
 ② '영서'는 자신의 농담을 듣고 불쾌해하는 '서우'에게 '빨리 친해지려고 농담한 건데 왜 화를 내고 그래?'라고 말하였다. 이로 보아 '영서'의 말하기 목적은 친구 표현임을 알 수 있다.
 ③ '영서'는 처음 만난 '서우'에게 '네가 지금 입고 있는 옷은 너한테 되게 안 어울린다'라고 말하며 '서우'의 기분을 상하게 만들었다.
 ④ '서우'는 '영서'에게 '너 정말 예의가 없구나?'라고 말하며 불쾌한 감정을 직접적으로 드러내었다.

04 아빠는 여우를 예로 들어, '울타리'의 의미를 아들의 눈높이에 맞게 설명하였고(ㄷ), 아들은 자신과 다른 아빠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며 아빠의 말에 적극적으로 반응하였다(ㄴ). 이와

같은 협력적인 태도가 두 사람의 의견을 일치하게 만들었다.

05 **서술형** 아빠와 대화를 하기 전에 아들은 울타리를 전장하듯이 자기 것을 지키기 위해 세운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아빠의 의견을 들은 후에는 울타리를 세우는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게 된다.

06 '차은'이 육상부 코치 선생님에게 전학을 권유받았다는 것, 서울로 전학을 가 육상을 계속하고 싶어 한다는 것, 엄마가 '차은'에게 '달리기를 잘한다며?'라고 말한 것 등을 통해 ㄴ을 알 수 있다. 또한 ㄷ처럼 '차은'은 엄마의 성의를 무시하고, 자기 기분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엄마에게 무작정 화를 내며 감정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오답 풀이 ㄱ. '차은'의 기분이 좋지 않은 이유는 엄마가 필리핀 출신인 것을 알게 된 친구들이 자신을 '필리핀'이라고 부르며 놀렸기 때문이다.

ㄷ. '차은'은 자신의 속상한 기분을 몰라주고, 계속 운동화 이야기만 하는 엄마에게 화가 났는데, 엄마가 '영찬'을 자신의 남자 친구인 것으로 생각하자 더 화가 났다.

07 엄마는 '차은'과 대화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지만, '차은'에게 속상한 일이 있었다는 것을 눈치채지 못하고 계속 운동화 이야기만 하여 '차은'의 기분을 더 좋지 않게 만들었다. 따라서 엄마에게는 '차은'의 마음을 헤아려 가며 조심스럽게 대화를 나누라는 조언을 할 수 있다.

08 **서술형** '차은'은 엄마가 사 온 운동화에 관심을 보이지 않고, 엄마의 질문에 대답하지도 않는다. 그런데도 엄마는 '차은'에게 ㉠과 같이 말을 건네며 대화를 이어 가려고 노력하는데, 이 부분에서 '차은'에 대한 엄마의 애정을 느낄 수 있다.

어휘력 키우기 본문 065쪽

01 ② 02 ①

01 '고르거나 가지런하지 않고 차별이 있음.'을 뜻하는 낱말은 '차등'이다. '차이'는 '서로 같지 아니하고 다름, 혹은 또는 그런 정도나 상태'를 의미한다.

02 '토론하다'는 '어떤 문제에 대하여 여러 사람이 각각 의견을 말하며 논의하다.'를 뜻하는 낱말인데, ①의 밑줄 친 부분에는 문맥상 반대한다는 뜻의 낱말이 들어가야 한다. 따라서 '어떤 의견, 주장, 논설 따위에 반대하여 말하다.'를 뜻하는 '반박하다'를 쓰는 것이 적절하다.

시험에 나오는 대단원 문제 본문 066~068쪽

01 ⑤ 02 ⑤ 03 ③ 04 ④ 05 세대(나이)
 06 ④ 07 ⑤ 08 ③ 09 ① 10 남학생에게: 처음 만난 친구에게는 신중하게 농담을 해야 해. / 여학생에게: 친구의 의도를 고려하여 농담을 가볍게 받아들이고, 감정을 돌려 표현해야 해. 11 ① 12 ⑤ 13 ① 14 ②

01 듣는 이의 지역, 상황, 문화 등에 따라 사용하는 어휘나 표현 등이 다를 수 있으므로, 담화 상황에서 말하는 이는 듣는 이를 고려하여 그에 맞는 언어 표현을 사용해야 한다.

02 담화 참여자의 성별이 다르기는 하지만 두 사람의 의사소통에 어려움은 나타나 있지 않다.

03 (가)~(다)에서 '양심을 지키세요.'는 그것이 쓰인 장소(공간)에 따라 전달하려는 의미가 달라진다. 이처럼 담화는 상황 맥락(담화가 이루어지는 구체적인 시간과 공간)에 따라 뜻이나 표현 등이 달라지기도 한다.

04 제시된 상황은 엄마가, 밤늦게까지 자지 않고 게임을 하는 아들을 꾸짖는 상황이다. 따라서 "지금 몇 시니?"라는 말에는 게임을 그만하고 자라는 의미가 담겨 있으므로, 이러한 의도를 고려하여 ④와 같이 대답하는 것이 적절하다.

오답 풀이 ①, ③ 시간이 아침이고, 늦잠을 자고 있을 때 할 수 있는 대답이다.

② 엄마의 의도는 빨리 자라는 것이지, 아들에게 시간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다. 이는 엄마가 시간을 몰라 몇 시인지 물어보는 상황일 때 할 수 있는 대답이다.

⑤ 엄마에게 화를 내는 듯이 말하는 대답이므로 적절하지 않으며, 엄마는 시간을 물어보려고 했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엄마의 의도를 제대로 고려하지 않은 대답이다.

05 **서술형** 딸이 기성세대가 잘 모르는 '남아공'이라는 줄인 말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아빠는 그 말을 이해하지 못하고 자신이 알고 있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떠올렸다. 이와 같이 세대에 따라 사용하는 언어가 달라지기도 한다.

06 우리나라 문화에서는 친척이 아니더라도 친근감 있는 어투로 상대를 부를 때 '이모'라는 말을 사용하기도 한다. 그런데 외국인은 이러한 우리의 문화를 알지 못해 식당 안 손님들 모두가 친척인 것으로 오해를 하였다.

07 특정한 역사를 배경으로 한 담화는 글쓴이와 읽는 이가 역사적 상황과 정서를 같이 공유할 때 원활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다. 이 연설문을 읽을 때에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역사적 상황을 알아야 '아파르트헤이트'와 같은 낱말의 뜻도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다.

08 '넬슨 만델라'는 연설문에서 '우리는 결단력 있게 집단행동을 하여 인종 차별 체제를 끝내야 합니다.'라고 하였다. 이로 보아 '우리'는 인종 차별 때문에 고통받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사람들임을 알 수 있다.

09 여학생이 남학생의 물음에 적극적으로 반응하고 있고, 같은 말로 시작한 대화가 여학생의 반응에 따라 다른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로 보아 대화가 남학생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남학생과 여학생이 함께 참여하면서 새로운 의미를 만들어 나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오답 풀이 ② 여학생이 재미있는 농담을 더 듣고 싶어 하는지, '천 일명'의 정확한 뜻을 알고 싶어 하는지에 따라 대화가 다른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

③ 남학생과 여학생이 대화를 나누며 함께 내용을 창조하고 의미를 공유하고 있다.

④ 대화 참여자인 남학생과 여학생의 경험, 배경지식이 다르기 때문에 같은 내용으로 시작한 대화가 각기 다른 방향으로 진행된 것이다.

⑤ 여학생은 남학생의 농담에 적극적으로 반응하고 있고, 남학생은 농담 이후 이어진 여학생의 질문에 적극적으로 답변하고 있다.

10 **고난도 서술형** 처음 만난 사이인데도 상대가 불쾌해할 수 있는 농담을 한 남학생에게는 처음 만난 친구에게는 신중하게 농담을 건네고, 상대가 기분 나쁠 법한 농담을 건네지 말라는 조언을 할 수 있다. 그리고 그러한 남학생의 농담을 가볍게 넘기지 않고, 불쾌함을 직접적으로 드러낸 여학생에게는 상대의 농담을 가볍게 받아들이고, 감정을 돌려 표현하라는 조언을 할 수 있다.

평가 목표	듣기·말하기를 할 때의 유의점 이해하기
채점 기준	✓ 남학생과 여학생에게 필요한 듣기·말하기 태도를 주어진 형식에 맞게 바르게 쓴 경우 [상]
	✓ 남학생과 여학생에게 필요한 듣기·말하기 태도 가운데 하나만 주어진 형식에 맞게 쓴 경우 [중]
	✓ 남학생과 여학생에게 필요한 듣기·말하기 태도에 대한 서술이 미흡하고, 주어진 형식에도 맞지 않은 경우 [하]

11 아들과 아빠가 주고받는 대화의 중심 소재는 울타리이다. 아빠는 아들이 울타리의 긍정적인 역할을 이해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다.

12 처음에는 울타리에 대한 아빠와 아들의 생각이 완전히 달랐다. 이에 아빠는 울타리의 의미를 아들의 눈높이에 맞추어 설명해 주었고, 아들은 아빠의 말에 관심을 보이며 적극적으로 반응하였다. 이와 같이 대화에 참여하는 적극적이고 협력적인 태도가 두 사람의 의견을 일치시켰다.

오답 풀이 ① 아빠는 울타리의 긍정적 의미를 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 과정에서 객관적인 수치를 제시하지는 않았다.

② 아빠는 울새와 여우를 예로 들어 울타리의 의미를 아들의 눈높이에 맞게 설명해 주었다. 따라서 아빠가 권위적인 자세로 자기의 생각을 말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③ 아들은 어린아이기는 하나, 대화 주제에서 벗어난 이야기를 계속적으로 하지는 않았다.

④ 처음에 울타리 세우는 일을 부정적으로 생각했던 아들은 아빠와 대화를 주고받으며 점차 아빠의 생각에 동의하게 된다. 아들은 아빠의 의견이 자신과 다름에도 그것에 귀를 기울이고, 동의하는 부분에는 맞장구를 치며 협력적으로 반응하였다.

13 ㉠에서 울타리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드러내었던 아들은 아빠와 이야기를 나눈 후 생각이 바뀌었다. ㉡은 울타리를 세우는 것에 대한 아들의 생각이 바뀌었음을 알 수 있는 부분으로, 아들은 이전과 다른 긍정적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14 ㉠, ㉡, ㉢, ㉣는 살아 있는 생명체가 울타리를 세우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는 암컷이 수컷이 세워 놓은 울타리 안으로 들어간다는 것으로, 울타리를 세우는 것과는 관련이 없다.

3 개성이 드러난 표현

[1] 창의적인 발상 - 먼 후일

간단 체크 **개념** 문제 본문 072쪽
1 (1) ○ (2) ○ (3) × **2** ② **3** 역설

- (3) 시에 나타나는 운율은 외형률과 내재율이 있다. 외형률은 일정한 규칙이 반복되어 시의 표면에 운율이 드러나는 것이고, 내재율은 일정한 규칙 없이 시 속에서 운율이 은근하게 느껴지는 것이다. 따라서 모든 시에서 일정한 규칙의 운율이 반복되는 것은 아니다.
- 말하는 이나 글쓴이가 자신의 속마음을 원래의 뜻과 반대로 표현하는 것은 '반어'에 해당한다. 반어 표현을 활용하면 사용하는 맥락에 따라 대상을 비꼬거나 비판하는 뜻을 담을 수 있다.
- '역설'은 언뜻 보기에 이치에 어긋나서 서로 맞지 않는 모순되는 말인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속에 진리를 담고 있는 표현이다.

학습곡 본문 073쪽
음보, 시어, 반대

간단 체크 **내용** 문제 본문 073쪽
073쪽 **01** ⑤ **02** 잊었노라 **03** ④

- 이 시는 반어 표현을 활용하여 '당신을 잊을 수 없다.'는 내용을 반대로 표현하고 있다.
 - 오답 풀이** ①, ④ 이 시는 떠난 입을 잊을 수 없는 안타까운 마음을 서정적, 민요적, 애상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 ② 이 시는 '~면 ~ 잊었노라'와 같은 가정형 문장을 반복하여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
 - ③ 이 시는 미래에 '당신'이 말하는 이에게 돌아온 상황을 가정하여 그때 할 말을 반복하여 제시하고 있다.
- 이 시는 같은 문장 구조와 시어를 반복하여 운율을 형성하고 있는데,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시어는 '잊었노라'이다.
- ①은 말하는 이가 '당신'을 줄곧 잊지 못하고 그리워하였다는 본심을 드러낸 표현이다.

학습 활동 본문 074~075쪽
이해 박자감, 잊었노라, 문장 구조, 미래

간단 체크 **활동** 문제 본문 074~075쪽
074쪽 **01** ④ **02** ~면 ~ 잊었노라
075쪽 **03** ① **04** ②

01 시를 낭송할 때 일정한 부분을 끊어서 읽으면 운율감이 느껴지고, 호흡이 규칙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박자감이 잘 느껴진다.

02 1연에는 '~ 찾으시면 ~ 잊었노라', 2연과 3연에는 '~ 나무라면 ~ 잊었노라'가 반복적으로 드러나 있다. 따라서 이 시에서는 '~면 ~ 잊었노라'라는 문장 구조가 반복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03 이 시의 말하는 이는 매 연마다 '잊었노라'라고 말하고 있고, 1연에서는 '먼 훗날 당신이 찾으시면'이라고 가정하고 있다. 이를 통해 현재 말하는 이는 '당신과 이별한 상황임을 알 수 있다.'

04 말하는 이의 속마음을 직접적으로 표현하면, 반대로 표현하였을 때보다 말하는 이의 심리가 확실하게 드러난다.

[1] 창의적인 발상 - 봄 길

학습곡 본문 076쪽
희망, 길, 모순

간단 체크 **내용** 문제 본문 076쪽
076쪽 **01** ③ **02** 역설 **03** ⑤

01 이 시에서는 절망적인 상황을 '강물', '새', '꽃잎'과 같은 자연물을 통해 표현하고 있다.

- 오답 풀이** ① 이 시에서는 '~ 곳에서도 ~이 있다'의 비슷한 문장 구조를 반복하여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 ② 종결 어미 '-다'를 사용하여 단정적이고 의지적인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 ④ 이 시의 제목은 '봄 길'인데, '봄'은 만물이 소생하는 계절로 희망의 느낌을 표현한다.
- 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시련을 극복하고 희망과 사랑을 찾고자 하는 삶의 태도를 노래하고 있다.

02 이 시는 역설 표현을 활용하여 절망적인 현실 속에서도 시련을 극복하면 희망과 사랑을 찾을 수 있다는 믿음을 강조하고 있다.

03 말하는 이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희망과 사랑이 존재한다는 믿음을 노래하고 있다. 이를 통해 말하는 이의 의지적이고 희망적인 태도를 엿볼 수 있다.

- 오답 풀이** ① '낙관적'은 '인생이나 사물을 밝고 희망적인 것으로 보는. 또는 그런 것'을 의미하고, '소극적'은 '스스로 앞으로 나아가거나 상황을 개선하려는 기백이 부족하고 비활동적인. 또는 그런 것'을 의미한다.
- ② '비관적'은 '인생을 어둡게만 보아 슬퍼하거나 절망스럽게 여기는. 또는 그런 것'을 의미하고, '절망적'은 '바라볼 것이 없게 되어 모든 희망을 끊어 버리는. 또는 그런 것'을 의미한다.
- ③ '비판적'은 '현상이나 사물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여 밝히거나 잘못된 점을 지적하는. 또는 그런 것'을 의미하고, '현실적'은 '실제로 얻을

수 있는 이익 따위를 우선시하는, 또는 그런 태도'를 의미한다.
 ④ '적극적'은 '대상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이고 능동적인, 또는 그런 것'을 의미하고, '세속적'은 '세상의 일반적인 풍속을 따르는, 또는 그런 것'을 의미한다.

학습 활동

본문 077~080쪽

- 이해** 사랑, 사람, 절망, 희망, 진리
적용 당신

간단 체크 활동 문제

본문 077~080쪽

- 077쪽 01 ② 02 ①, ②
 078쪽 03 ③ 04 희망, 사랑
 079쪽 05 ⑤ 06 이젠 당신이 그림지 않죠, 보고 싶은 마음도 없죠, / 이젠 괜찮은데, 사랑 따윈 저버렸는데
 080쪽 07 ②

01 이 시에서 '봄 길을 걷어가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묵묵히 걷어가는 사람,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치더라도 절망하지 않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02 ①, ②는 길이 끝나는 곳에서도 길이 있고, 길이 되는 사람이 있다고 하였다. 이처럼 겉으로 모순되고 이치에 맞지 않는 것 같지만 그 속에 진리를 담고 있는 표현을 '역설'이라고 한다.

03 제시된 시구는 역설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희망이 있고 사랑이 사라졌다고 생각한 상황에서도 사랑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있다는 뜻이다. 하지만 사랑의 아픔을 언젠가는 이겨 낼 수 있다는 내용은 제시된 시구의 의미와는 거리가 멀다.

오답 풀이 ①, ⑤ 역설 표현을 사용하면 읽는 이에게 충격을 주면서 그 안에 담긴 의미를 진지하게 생각해 보게 한다.
 ②, ④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희망이 있다는 것은 겉으로 보기에는 모순된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04 이 시의 말하는 이는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희망과 사랑이 존재한다는 믿음을 드러내고 있으며, 희망과 사랑을 품은 채로 깨끗하게 살아가는 삶의 태도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

05 이 노랫말은 반어 표현을 활용하여 자신을 떠나간 '당신'에 대한 그리움과 슬픔을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모순되는 표현을 사용하지는 않았다.

오답 풀이 ① 이 작품은 대중가요인 '비와 당신'의 노랫말이다.
 ② '빛바랜 추억 그 얼마나 사무친 건지, / 미운 당신을 아직도 그리워하네.'에 자신을 떠나간 '당신'에 대한 말하는 이의 원망이 나타난다.
 ③ '눈물'이라는 단어를 반복하면서 이별의 슬픔과 '당신'에 대한 그리움을 애절하게 표현하고 있다.
 ④ '다신 안 올 텐데, 잊지 못한 내가 싫은데'에서는 '당신'을 잊지 못하고 그리워하는 자신에 대한 안타까움이 나타난다.

06 실제로 나타내고자 하는 것과 반대로 표현하여 강한 인상을 주는 방법은 '반어'에 해당한다. 이 노랫말에서 반어 표현이 나타나는 부분은 '이젠 당신이 그림지 않죠, 보고 싶은 마음도 없죠.'와 '이젠 괜찮은데, 사랑 따윈 저버렸는데'로, 이 부분을 통해 말하는 이는 '당신'을 여전히 잊지 못하고 그리워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07 약속 시간에 늦게 온 친구에게 "참 빨리도 왔다."라고 말하는 것은 늦은 친구를 나무라는 것으로 "왜 이렇게 늦게 온 거야."의 뜻이라고 볼 수 있다.

압축 파일

본문 081~082쪽

- ① 질책 ② 애절 ③ 이별 ④ 3음보 ⑤ 시어 ⑥ 절망 ⑦ 봄 ⑧ 긍정적 ⑨ 사랑 ⑩ 그리움

시험에 나오는 소단원 문제

본문 083~085쪽

- 01 ④ 02 ③ 03 눈물 04 ② 05 ③ 06 ②
 07 ④ 08 봄 길 09 ⑤ 10 ④ 11 ① 12 ③
 13 ① 14 ② 15 ㉠: 반어, ㉡: 역설

01 (가)는 떠난 '당신'을 잊지 못하는 마음을, (나)는 떠난 '당신'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표현하고 있다. 따라서 (가)와 (나)의 말하는 이는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한 상황이다.

오답 풀이 ①, ③ (가)는 현대 시이고, (나)는 대중가요의 노랫말이다. 따라서 (나)에는 음보나 운율과 관련된 내용이 없다. (가)는 정해진 형식이나 운율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로운 형식으로 이루어진 자유시지만, 3음보의 규칙적인 울격이 나타난다.
 ② (나)는 대중가요의 노랫말이지만, (가)는 대중가요의 노랫말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⑤ (가)와 (나)에는 원래의 뜻과 반대로 표현하는 '반어' 표현이 사용되었다. 제시된 설명은 '역설'에 해당한다.

02 시에서 같은 시어나 문장 구조가 일정하게 반복되면 리듬감을 느낄 수 있고, 시를 낭송할 때 호흡이 규칙적으로 이루어져 박자감이 잘 나타난다. 그러나 (가)는 시행이 점층적으로 늘어나지는 않는다.

03 (나)의 말하는 이는 자신을 떠나간 '당신'을 그리워하면서 이를 반어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또한 '당신'을 그리워하면서 흘리는 '눈물'을 통해 그리움을 상징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04 ㉠은 '당신을 잊을 수 없다.'는 말하는 이의 본심을 반대로 표현한 것으로, 말하는 이의 애뜻하고 간절한 심정을 강조하는 역할을 한다. 하지만 '당신'에 대한 따뜻한 시선과 애정이 담겨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오답 풀이 ①, ⑤ ㉠은 '당신'을 잊지 못하는 말하는 이의 심정을 반대로 표현하여, '당신'에 대한 애뜻하고 간절한 그리움을 강조하는 역할을 한다.
 ③, ④ ㉠의 표면적인 의미는 '당신을 잊었다.'이지만, 실제적인 의미는 '당신을 잊을 수 없다.'이다.

05 (가)와 (나)의 말하는 이는 이별한 '당신'을 아직도 사랑하며 그리워하고 있다.

06 7~9행은 말하는 이를 위로하던 사람들이 떠난 절망적인 상황을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끝난 절망적인 상황을 '강물', '새', '꽃잎' 등과 같은 자연물을 통해 표현하고 있다.

07 이 시의 말하는 이는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희망과 사랑이 존재한다는 믿음을 드러내고 있다. 이를 통해 말하는 이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희망과 사랑을 품은 채로 깨끗하게 살아가는 삶의 태도를 중요하게 여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08 '봄 길'에서 '봄'은 만물이 소생하는 계절로 희망의 느낌을 표현하고, '길'은 미래와 가능성의 의미를 내포하여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가치를 표현하고 있다.

09 ㉠은 역설 표현이 나타난 부분으로, '-다'라는 종결 어미를 사용하여 말하는 이의 단정적이고 의지적인 태도를 나타낸다.

오답 풀이 ① '길이 끝나는 곳'에서 '길이 있다'라고 하였으므로, 내용상으로는 뜻이 모순된다.

②, ③ 역설은 이치에는 맞지 않지만 그 속에는 진리를 담고 있는 표현으로, 읽는 이가 그 안에 담긴 의미를 스스로 찾게 한다.

④ ㉠이 담고 있는 진리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희망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10 '사랑이 끝난 곳'은 사랑이 끝난 절망적인 공간을 의미하며, 이곳에서 '사랑으로 남아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희망이 없는, 고통만 남은 곳에서도 다른 이에게 사랑을 베푸는 사람'이 있다는 의미이다.

11 (가)에는 계절적 배경이 드러나지 않으며, (나)는 만물이 소생하는 계절인 '봄'을 배경으로 한다.

오답 풀이 ② (가)에는 '~면 ~ 잊었노라'라는 문장 구조가 반복되고, (나)에는 '~곳에서도 ~ 사람이 있다'라는 문장 구조가 반복되어 나타난다.

③ (가)와 (나)는 개인의 감정이나 정서를 주관적으로 표현하는 서정시이다.

④ (가)는 두 행씩 연이 구분되어 있고, (나)는 행은 구분되지만 연은 구분되지 않는 시이다.

⑤ (나)는 '있다', '보라'와 같이 현재형 종결 어미를 사용하여 단정적인 느낌을 준다. (가)는 과거형 문장이 사용되었다.

12 (가)를 읽을 때에는 호흡이 규칙적이어서 박자감이 잘 느껴지고, 시적 분위기도 보다 더 잘 느껴진다. 하지만 <보기>는 줄글이기 때문에 박자감이나 시적 분위기는 약하게 느껴진다.

13 (가)의 말하는 이는 줄곧 '당신'을 잊지 못하고 그리워하는 자신의 본심과 반대로 '잊었노라'라고 표현하고 있다.

14 '길'은 미래와 가능성을 의미하는데, '길이 끝나는 곳'이므로 미래와 사랑의 가능성이 사라진 절망적인 공간을 의미한다.

15 ㉠에는 원래의 뜻과는 반대로 표현한 '반어', ㉡에는 겉으로는 뜻이 모순되고 이치에 맞지 않는 것 같지만 그 속에 진리를 담고 있는 표현인 '역설'이 사용되었다.

(2) 비판적인 표현

간단 체크 개념 문제 본문 086쪽

1 ② 2 (1) × (2) ○ (3) ○ (4) × 3 서술자

1 소설 구성의 3요소는 '인물, 사건, 배경'이다. 이 중에서 소설 속에 등장하는 인물이 겪는 일이나 벌이는 행동은 '사건'에 해당한다.

2 (1) '풍자'는 사실을 과장하거나 왜곡하고, 부정적인 현실을 비꼬으로써 웃음을 유발한다. (4) 소설에서 이야기를 전달하는 사람이 어린아이일 경우 풍자의 효과가 높아지지만, 풍자 소설의 서술자가 항상 어린아이인 것은 아니다.

3 소설에서 '서술자'는 작가의 대리인으로 작가를 대신하여 허구적인 이야기를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학습곡 본문 087~094쪽

087쪽	외모, 강 선생님
089쪽	박 선생님, 조선말
091쪽	조선, 맥, 태극기
092쪽	해방
093쪽	미국, 일본
094쪽	찬양, 일본, 미국, 풍자

간단 체크 내용 문제 본문 087~094쪽

087쪽	01 ②	02 ①	
088쪽	03 ③	04 ⑤	
089쪽	05 ③	06 친일적인 태도	07 ①
090쪽	08 ③	09 ②	10 ①
091쪽	11 ④	12 건국, 태극기	
092쪽	13 ④	14 ④	
093쪽	15 ④	16 기회주의	17 ③
094쪽	18 ⑤	19 ⑤	

01 (가)에서 '나'는 '박 선생님'의 별명으로 '뽕쟁', '뽕박', '대갈장군' 등을 제시하고 있다. 이를 통해 '나'는 '박 선생님'을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가식적'은 말이나 행동 따위를 거짓으로 꾸미는 것을 의미한다.

③ '편파적'은 공정하지 못하고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 있는 것을 의미한다.

④ '합리적'은 이론이나 이치에 합당한 것을 의미한다.

⑤ '이해타산적'은 이해관계를 이모저모 모두 따져 보는 것을 의미한다.

02 '순하여 사나움이 든 데가 없고, ~ 장난을 잘하고'라는 부분을 통해서 '강 선생님'은 마음이 넓고 여유로우며 유순한 성격임을 짐작할 수 있다.

- 오답 풀이** ② '활발하다'는 '생기 있고 힘차며 시원스럽다.'라는 의미이고, '수다스럽다'는 '쓸데없이 말수가 많은 데가 있다.'라는 의미이다.
 ③ '조급하다'는 '참을성이 없이 몹시 급하다.'라는 의미이다.
 ④ '옹졸하다'는 '성품이 너그럽지 못하고 생각이 좁다.'라는 의미이다.
 ⑤ '소심하다'는 '대담하지 못하고 조심성이 지나치게 많다.'라는 의미이고, '자기중심적'은 '남의 일보다 자기의 일을 먼저 생각하고 더 중요하게 여기는. 또는 그런 것.'을 의미한다.

- 03 (라)에서는 학교에서 일본 말만 쓰고 조선말을 쓰지 못했으며, 공공 기관에 있는 사람들은 일본 말을 사용하였고, 보통 사람들은 조선말을 사용했다고 하였다. 이를 통해 (라)의 시대적 배경이 일제 강점기임을 알 수 있다.
- 04 (마)에서 '박 선생님'은 조선말을 사용하는 학생들을 혼내고 중한 벌을 주었다고 하였으며, '나'도 친구와 싸우다가 조선말을 사용하여 '박 선생님'에게 들켜서 혼이 났다고 하였다. 이를 통해 '나'는 조선말을 사용하다가 '박 선생님'에게 여러 번 혼이 났음을 알 수 있다.
- 05 '강 선생님'은 의도적으로 일본 말 대신에 조선말을 사용하는 데, 이는 자기 나름대로 일제에 저항하면서 민족정신을 지키려는 행동으로 볼 수 있다.
- 06 '박 선생님'은 일본을 '우리 대일본 제국'이라고 부르며, 미국과 영국과의 전쟁에서 반드시 이길 것이라고 강조한다. 이것으로 보아 '박 선생님'이 친일적인 태도를 지녔음을 알 수 있다.
- 07 일본이 항복하자 '박 선생님'은 다른 일본 선생님들과 직원실에서 모여 앉아 초상난 집처럼 근심에 싸여 기가 죽고 맥이 빠져 있었다.
- 08 '언니'는 같은 부모에게서 태어난 사이이거나 일가친척 가운데 항렬이 같은 동성의 순위 형제를 이르거나 부르는 말이다. 여기서는 '형'을 뜻하며, '대석 언니'는 '나'의 사촌 형이다.
- 09 교장 선생님과 두 일본 선생님, '박 선생님'은 일본이 패망해서 기가 죽었기 때문에 '대석 언니'의 말에 아무런 대꾸도 하지 못한 것이다.
- 10 '강 선생님'은 일본이 패망하고 조선이 독립한 것이 기쁘고 감격스러워 평소와 다르게 들이 날뛰고 덤비고 있는 것이다.
- 11 '강 선생님'은 일본이 패망한 후에도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 '박 선생님'의 친일적인 태도를 비판하기 위해 화를 내면서 큰 소리로 꾸짖은 것이다.
- 12 (타)에서 '강 선생님'은 부드럽고 조용한 목소리로 '박 선생님'에게 건국에 도움이 될 일을 하자고 설득했다. '강 선생님'의 말을 듣고 난 후 '박 선생님'은 일본이 패망했다는 것을 인정하고 '강 선생님'을 따라 태극기를 그리기 시작했다.
- 13 '박 선생님'은 조선의 역사가 사천 년이나 되었고, 어떤 나라 못지않게 훌륭한 문화가 발달한 나라라고 이야기했다.
- 14 '박 선생님'은 광복 이후 미국의 영향력이 점차 커지자, 미국에 협력하여 개인적인 이익을 얻기 위해 미국 말을 열심히 공부하였다.

15 (거)에서 '강 선생님'이 교장이 된 다음부터, '박 선생님'은 '강 선생님'과 도로 사이가 나빠졌다고 하였다.

- 오답 풀이** ① 해방 뒤에 새로 온 '김 교장 선생님'이 갈려 가고 '강 선생님'이 교장이 되었다고 하였다.
 ② 교장이 된 '박 선생님'은 그 작은 키가 으쓱했다고 하였다.
 ③ '강 선생님'은 교장이 된 지 일 년이 못 되어서 파면을 당했다고 했다.
 ⑤ '뽀박 박 선생님이 강 선생님을 그렇게 꼬아 댄 것이지, 강 선생님은 하나도 빨갱이가 아니라고도 했다.'는 것에서 '강 선생님'이 '박 선생님'의 모함을 받아 파면을 당했다는 소문이 돌았음을 알 수 있다.

16 '박 선생님'은 광복 전인 일제 강점기에는 일본을 찬양하다가, 광복 후에는 미국을 찬양하고 있다. 이처럼 일관된 입장을 지니지 못하고 그때그때의 정세에 따라 이로운 쪽으로 행동하는 경향을 '기회주의'라고 한다.

17 (너)에서 '박 선생님'은 미국이 전쟁까지 하면서 조선을 독립시켜 주고, 생필품까지 지원하는, 이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나라이기 때문에, 미국이 시키는 대로 순종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하지만 '조선에 얽한 벌을 줄 수 있는 나라'라는 생각은 하지 않았다.

18 원래의 뜻과 반대로 표현하는 것은 '반어'에 해당한다. ㉠은 ㉡에 대한 '박 선생님'의 대답으로, 어린아이의 시선을 통해 '박 선생님'의 말을 희화화하는 역할을 한다.

- 오답 풀이** ①, ② ㉠은 서술자인 '나'가 세상 물정을 모르는 순진무구한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가능한 질문이다.
 ③, ④ ㉠은 ㉡에 대한 '박 선생님'의 대답으로, 이를 통해 비판하려는 대상인 '박 선생님'의 부정적인 면을 부각하면서 읽는 이의 웃음을 유발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19 '나'는 광복 전에는 일본을 찬양하다가 광복 후에는 일본을 비난하고 미국을 찬양하는 '박 선생님'의 모습을 보고, 뜻대 없이 이리저리 흔들리는 '박 선생님'을 이상하게 여기고 있다.

간단 체크 어휘 문제

본문 087~094쪽

- 087쪽 (1) 정기 (2) 하학 (3) 낙방 (4) 혈서
 088쪽 (1) 경치는 (2) 만판 (3) 제기고
 091쪽 (1) × (2) ○ (3) ×
 092쪽 (1) 불측한 (2) 체득 (3) 공출

학습 활동

본문 096~099쪽

- 이해 조선말, 교장 선생님, 기회주의적, 웃음, 비판적
 적용 도망, 백성

간단 체크 활동 문제

본문 096~099쪽

- 096쪽 01 ⑤ 02 ①
 097쪽 03 ② 04 ②, ⑤
 098쪽 05 ⑤ 06 ④
 099쪽 07 ① 08 풍자

01 해방이 되자 '강 선생님'은 교장이 되었으나 '박 선생님'의 모함을 받아 이내 파면을 당하고, '박 선생님'이 교장이 되었다.

02 '박 선생님'은 해방 전과 후의 상황에 따라 일본과 미국에 대한 태도를 뒤바꾼다. 이처럼 일관된 입장을 지니지 못하고 그때그때의 정세에 따라 이로운 쪽으로 행동하는 '박 선생님'의 태도를 '기회주의적'이라고 한다.

오답 풀이 ② '낙천주의'는 세상과 인생을 희망적으로 밝게 보는 생각이나 태도를 의미한다. '낙관주의'라고도 한다.

③ '이상주의'는 인생의 의의를 오로지 이상, 특히 도덕적·사회적 이상의 실현에 두는 태도를 의미한다.

④ '침략주의'는 정당한 이유 없이 남의 나라에 쳐들어감을 주요 정책으로 삼는 주의를 의미한다.

⑤ '형식주의'는 사물의 내용적 측면을 경시하고 형식적 측면을 중시하는 태도를 의미한다.

03 ①과, '뺨'은 '엄지손가락과 다른 손가락을 완전히 퍼서 벌렸을 때에 두 끝 사이의 거리'를 의미한다는 것을 관련지으면 '뺨생', '뺨박'은 '박 선생님의 키가 작아서 생긴 별명임을 알 수 있다.

04 원래의 뜻과는 반대로 표현하여 의미를 강조하는 것은 '반어'의 효과이고, 읽는 이에게 신선한 충격을 주어 삶의 진리를 깨닫게 하는 것은 길으로는 뜻이 모순되고 이치에 맞지 않는 것 같지만 그 속에 진리를 담고 있는 표현인 '역설'의 효과이다.

오답 풀이 ①, ③, ④ 이 소설에서는 '박 선생님'을 우스꽝스럽게 표현하여 풍자하고 있다. 이처럼 풍자 표현을 사용하면 읽는 이에게 웃음을 유발하고(①), '박 선생님'의 기회주의적인 모습을 부각하여(③), 읽는 이가 '박 선생님'을 비판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한다(④).

05 이 사실시조는 '두꺼비', '파리', '백송골'과 같은 동물에 빗대어 탐관오리의 이중성을 비판한 작품이다.

오답 풀이 ①, ② 이 작품은 조선 후기의 사실시조로, 중장의 길이가 평시조보다 길다.

③, ④ '두꺼비', '파리', '백송골'과 같은 동물에 빗대어 탐관오리의 이중성을 비판하는 우의적인 성격이 있으며, '두꺼비'의 모습을 통해 탐관오리의 모습을 풍자적이고 해학적으로 그려 내었다.

06 '두꺼비'는 파리를 물고 두엄 위에 앉아 있다가 '백송골'을 보고는 깜짝 놀라 도망치다가 두엄 아래로 자빠진다.

07 '파리'는 '두꺼비'로 상징되는 지방의 탐관오리에게 수탈당하는 힘없는 백성을 의미한다.

08 이 시조는 자신보다 힘이 없는 백성은 수탈하고 괴롭히면서, 자신보다 더 큰 권력을 가진 중앙의 고위 관료에게는 굽실거리는 탐관오리를 '두꺼비'로 표현하면서, 그들의 횡포와 허장성세를 우의적으로 풍자하고 있다.

압축 파일

본문 100~101쪽

- ① 조선말
- ② 미국
- ③ 독립 만세
- ④ 친일적
- ⑤ 조선
- ⑥ 이상한
- ⑦ 웃음
- ⑧ 백성
- ⑨ 두꺼비
- ⑩ 풍자

시험에 나오는 소단원 문제

본문 102~104쪽

- 01 ④
- 02 ③
- 03 ①
- 04 ④
- 05 일제 강점기
- 06 ⑤
- 07 ②
- 08 ①
- 09 일본이 패망했기 때문이다.
- 10 ①
- 11 ⑤
- 12 ④
- 13 들맹이
- 14 ②
- 15 ④

01 (가)~(다)는 소설의 '발단'에 해당한다. '발단'은 소설에서 인물과 배경을 소개하고, 사건의 실마리가 나타나는 단계이다.

오답 풀이 ① 긴장감과 갈등이 최고조에 이르며, 주제가 제시되는 단계는 '절정'이다.

② 인물 간의 갈등이 고조되고 긴장감이 나타나는 단계는 '위기'이다.

③ 사건이 시작되고 인물들 사이의 갈등이 나타나는 단계는 '전개'이다.

⑤ 갈등이 해소되고 사건이 해결되며, 인물의 운명이 결정되는 단계는 '결말'이다.

02 (나)에서 '강 선생님'은 키와 몸집이 크며 '박 선생님'과 아주 정반대로 생겼다고 하였다.

03 '견원지간(犬猿之間)'은 개와 원숭이의 사이라는 뜻으로, 사이가 매우 나쁜 두 관계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다)에서 '박 선생님'과 '강 선생님'은 만나면 싸움이었다고 하였으므로, 두 사람의 관계에 해당하는 한자 성어는 '견원지간'이라고 할 수 있다.

오답 풀이 ② '꺾목상대(刮目相對)'는 눈을 비비고 상대방을 본다는 뜻으로, 남의 학식이나 재주가 놀랄 만큼 부쩍 늙을 이르는 말을 의미한다.

③ '근묵자흑(近墨者黑)'은 먹물 가까이하는 사람은 검어진다는 뜻으로, 나쁜 사람과 가까이 지내면 나쁜 버릇에 물들기 쉬움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을 의미한다.

④ '수어지교(水魚之交)'는 물이 없으면 살 수 없는 물고기와 물의 관계라는 뜻으로, 아주 친밀하여 떨어질 수 없는 사이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을 의미한다.

⑤ '죽마고우(竹馬故友)'는 대말을 타고 놀던 벗이라는 뜻으로, 어릴 때부터 같이 놀며 자란 벗을 의미한다.

04 (라)에서 당시에는 일본 말을 '국어'라고 불렀으며, 학교에서 조선말을 한 마디도 쓰지 못하게 했다고 하였다.

05 (라)에는 민족정신을 말살하기 위해 조선말을 사용하지 못하게 일제가 우리 민족을 탄압한 내용이 나타난다. 이를 통해 ③의 시대적 배경이 일제 강점기임을 알 수 있다.

06 '박 선생님'은 일제 강점기에는 일본에 협력하고, 미국의 영향력이 커진 해방 후에는 미국에 협력하는 모습을 보인다. 이처럼 '박 선생님'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힘이 강한 세력에 협력하는 기회주의적인 인물이다.

07 (나)에서 '강 선생님'은 일본 말이 서투르지 않은데도, 일부러 조선말을 사용하였다고 했다. 따라서 '강 선생님'이 조선말을 사용한 것은 일제에 저항하면서 민족정신을 지키려고 한 행동으로 볼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⑤ '강 선생님'이 교장이 된 지 일 년이 못 되어서 파면을 당한 후 '박 선생님'이 교장이 되었다.

③, ④ '박 선생님'은 조선말을 사용하는 학생들에게 벌을 주었고, 일본이 전쟁에서 이길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08 (마)에서 '박 선생님'이 '강 선생님'을 빨갱이라고 꼬아 대었으며, '강 선생님' 대신에 교장이 되고 나서 으쓱했다고 하였다. 이를 통해 '박 선생님'이 '강 선생님'을 포함해서 '강 선생님'이 파면당했다고 추측할 수 있다.

09 일본이 전쟁에서 지고 패망했기 때문에 '박 선생님'을 포함한 네 명의 선생님이 기가 죽어 초상난 집처럼 코가 빠져 있었던 것이다.

10 일본이 패망하고 조선이 독립한 후에는 미국의 영향력이 커졌다. '박 선생님'은 이러한 변화를 파악하고 학생들에게 미국 말을 공부하라고 했으며, 자신도 미국 말을 공부하여 통역을 하면서 개인적인 이익을 얻었다.

11 (가)는 '박 선생님'의 기회주의적인 행태를, (나)는 '두꺼비'로 상징되는 조선 후기 지방의 탐관오리의 속성을 부정적으로 묘사하면서 풍자하고 있다.

오답 풀이 ①, ② (가)는 해방 전후를 배경으로, 기회주의적 인물인 '박 선생님'의 모습과 행동을 우스꽝스럽게 표현하여 풍자하고 있다. ③, ④ (나)는 평시조와 달리 초창·중창이 제한 없이 길며, 중창도 길어진 사설시조로, '두꺼비', '파리', '백송골' 등의 동물에 빗대어 당시의 사회상을 풍자하고 있다.

12 (가)의 서술자는 학교에 다니는 학생인 '나'로 작품 안에서 인물과 사건을 관찰하고 이야기를 전달한다. 이처럼 소설 속 인물인 '나'가 주인공을 관찰하여 이야기를 전달하는 것을 '인칭 관찰자 시점'이라고 한다.

13 (가)에 등장하는 '박 선생님'은 기회주의적인 인물로, 해방 전에는 일본의 '텐노헤이까'를 찬양하였고, 해방 후에는 미국의 '돌맹이'라는 인물을 찬양하였다.

14 ㉠은 어린아이인 '나'의 입장에서 '박 선생님'을 평가한 내용 이면서(ㄱ), 기회주의적인 태도를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작가의 시각이 나타난 부분이다(ㄷ).

오답 풀이 ㄴ. '나'는 광복 전에는 일본을 찬양했다가 광복 후에는 미국을 찬양하는 '박 선생님'의 모습에 보고 '이상한 선생님'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상황에 따라 시류에 편승하며 살아가는 '박 선생님'의 모습은 기회주의적인 태도라고 볼 수 있다. ㄹ. 여기서 '이상하다'는 평가는 '박 선생님'의 외모에 대한 것이 아니라 '박 선생님'의 태도에 관한 것이다.

15 ㉡은 '백송골'을 본 '두꺼비'가 깜짝 놀라 도망치다가 두엄 아래로 자빠지는 모습을 표현한 것으로, 두꺼비의 우스꽝스러운 모습이 나타난다.

오답 풀이 ① '고집스럽다'는 '보기에 고집을 부리는 태도가 있다.'라는 의미이다. ② '용맹스럽다'는 '용감하고 사나운 데가 있다.'라는 의미이다. ③ '자연스럽다'는 '억지로 꾸미지 아니하여 이상함이 없다.'라는 의미이다. ⑤ '거추장스럽다'는 '물건 따위가 크거나 무겁거나 하여 다루기가 거북하고 주체스럽다.' 또는 '일 따위가 성가시고 귀찮다.'라는 의미이다.

(3) 개성을 살리는 글다듬기

학습 활동

본문 105~113쪽

이해 추억, 그 후로, 과거, 미래, 부정, 보이지 않았고, 그래서, 생각, 자초지종, 틈새
적용 가격, 과자, 흥미, 중심, 띄어쓰기

학습곡

본문 105~113쪽

109쪽 주제, 목적, 낱말, 글, 추가

간단 체크 활동 문제

본문 105~113쪽

- 105쪽 01 ③ 02 ③
- 106쪽 03 ⑤ 04 (마)
- 107쪽 05 ③ 06 ②
- 108쪽 07 ① 08 ③
- 109쪽 09 ⑤ 10 ⑤
- 110쪽 11 ② 12 ③
- 111쪽 13 ⑤ 14 ④
- 112쪽 15 ⑤ 16 글 수준
- 113쪽 17 ①

01 이 글은 병아리 '민들레'와의 추억과 그리움에 대한 수필로, 글쓴이의 경험을 회상한 글이다. 대상에 대한 설명을 목적으로 한 글은 설명문에 해당한다.

오답 풀이 ①, ② 이 글은 반려동물을 소재로 일정한 형식이나 틀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쓴 수필이다. ④, ⑤ (가)는 주인을 잃어버린 강아지를 보고 '민들레'를 떠올린 것으로 현재에 해당하고, (나)~(라)는 글쓴이가 초등학교 2학년 때의 일을 회상한 과거에 해당한다.

02 (다)에서는 병아리 '민들레'를 방 안에서 기르고 싶어 하는 '나'의 모습이 나타난다.

03 다른 학생들은 이 글의 제목인 '민들레'에 대한 의견을 적절하게 제시하고 있지만, '미준'은 이 글에서 서술하지 않은 내용을 들어 이야기하고 있다.

04 이 글은 주인을 잃은 강아지를 보호하다가 주인을 찾아 보내면서, 예전에 키웠던 '민들레'라는 병아리에 대한 추억과 그리움을 표현하고 있다. (마)는 이러한 주제와 상관이 없는 병아리의 특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05 'ㄷ'은 과거의 일을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비가 오면 엄마 몰래 민들레를 방 안에 데리고 왔다.'라고 고쳐 써야 한다. 'ㄴ'은 비가 오는 날이면 '민들레'를 방 안에 데리고 와서 함께 있었다는 앞의 내용과 관계가 없으므로 삭제하는 것이 적절하다.

06 '나'와 동생에게 장난감을 사 준 사람이 '아버지'이므로, 높임법에 맞게 '사 주었다'를 '사 주셨다'로 바꾸는 것이 적절하다.

07 '전혀'는 주로 부정하는 뜻을 나타내는 말과 함께 쓰여 '도무지', '아주', '완전히'의 뜻을 나타낸다. 따라서 ㉠은 '이 라면은 전혀 새로운 맛이 나지 않습니다.'나 '이 라면은 매우 새로운 맛이 납니다.'로 고쳐 써야 한다.

오답 풀이 ㉡ '차마'는 뒤에 오는 동사를 부정하는 문맥에 쓰여 '부끄럽거나 안타까워서 감히'라는 의미를 나타낸다.

㉢ '별로'는 부정을 뜻하는 말과 함께 쓰여 '이렇다 하게 따로, 또는 그다지 다르게'라는 의미를 나타낸다.

㉣ '결코'는 '아니다', '없다', '못하다' 등의 부정어와 함께 쓰여 '어떤 경우에도 절대로'라는 의미를 나타낸다.

㉤ '반드시'는 '틀림없이 꼭'이라는 의미를 나타낸다.

08 '기억'은 '이전의 인상이나 경험을 의식 속에 간직하거나 도로 생각해 냄.'이라는 뜻이다. 하지만 제시된 부분에는 문맥상 '어떤 일을 하려고 마음을 먹음, 또는 그런 마음'을 의미하는 '생각'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

09 제시된 내용은 '나'가 강아지를 발견하고 집으로 강아지를 데리고 오기까지의 과정을 가족들에게 설명하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는 '처음부터 끝까지의 과정'을 의미하는 '자초지종(自初至終)'이라는 한자 성어가 어울린다.

오답 풀이 ㉠ '갑론을박(甲論乙駁)'은 여러 사람이 서로 자신의 주장을 내세우며 상대방의 주장을 반박한다는 의미이다.

㉡ '불문곡직(不問曲直)'은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아니한다는 의미이다.

㉢ '왈가왈부(白可白否)'는 어떤 일에 대하여 옳거나 옳지 아니하거나 하고 말한다는 의미이다.

㉣ '자력갱생(自力更生)'은 남에게 의지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힘만으로 어려운 처지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의미이다.

10 고쳐쓰기의 일반 원리에서 앞뒤 순서를 바꾸거나, 몇 부분을 하나로 줄이거나 늘이면서 내용을 조정하는 것을 '재구성'이라고 한다.

11 자신의 경험을 글로 쓸 때에는 가장 먼저 자신의 경험을 떠올리고 정리한 다음, 글의 주제와 글을 쓰는 목적을 정해야 한다. 자료를 활용하여 글의 내용을 뒷받침하는 것은 글쓰기 부분에 해당하는 활동이다.

12 '미래의 먹거리 전망'은 앞으로의 일을 예측하여 써야 하는 글이기 때문에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쓰기에 적합한 글감이라고 볼 수 없다.

13 고쳐쓰기는 글을 다 쓴 뒤에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글의 내용을 계획하고 조직하는 단계에서부터 계속해서 이루어진다.

14 개요를 살펴보면, 과자를 샀는데 포장지 속의 과자 양이 너무 적어 과자 회사의 누리집에 항의 글을 올리겠다는 결심을 했다는 내용이다. 이 개요에서 나타나는 핵심은 과자의 양이 적었다는 것이므로, 이와 관련된 제목을 쓰는 것이 적절하다.

15 고쳐쓰기를 할 때에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물어보는 것도 고쳐쓰기 방법 중의 하나이다.

16 고쳐쓰기를 할 때 글의 제목을 수정하거나, 글의 주제와 관련

된 내용을 보충하거나 삭제하는 것은 '글 수준'에서 점검하는 내용에 해당한다.

17 '적은지'에서 '은지'는 막연한 의문을 나타내는 종결 어미로 앞말과 붙여 써야 한다. 이것은 맞춤법에 맞지 않은 내용을 바르게 고친 것에 해당한다.

압축 파일

본문 114쪽

- 1 제목 2 부사어 3 맞춤법 4 읽는 이 5 주제
- 6 연결 7 호응 8 순서

시험에 나오는 소단원 문제

본문 115쪽

- 01 ㉠ 02 당시 나는 동생과 한방을 써서 조금 불편했다. 03 ㉢
- 04 ㉤ 05 ㉠

01 글의 시작 부분에는 병아리를 처음 만난 내용(가)을 제시하고, 다음에는 병아리에게 '민들레'라는 이름을 지어 준 내용(다), '민들레'를 방에서 기르고 싶어 하는 내용(나), '민들레'가 우리 곁을 떠나는 내용(라)으로 이어지는 것이 전체적인 글의 흐름에 알맞다.

02 '당시 나는 동생과 한방을 써서 조금 불편했다.'의 앞부분은 비가 오는 날이면 '민들레'를 방 안에 데리고 왔다는 내용이다. 이러한 내용과, '나'가 동생과 한방을 쓴다는 내용은 자연스럽게 이어지지 않으므로, 마지막 문장을 삭제하는 것이 적절하다.

03 '모질다'는 '기세가 몹시 매섭고 사납다.'라는 뜻으로, '민들레'가 잘 자라기를 바라는 글쓴이의 마음을 담아내지 못한다. 따라서 '굳세게'나 '튼튼하게'라고 바꾸어 쓰는 것이 적절하다.

04 '전혀'는 주로 부정하는 뜻을 나타내는 말과 함께 쓰여 '도무지', '아주', '완전히'의 뜻을 나타낸다. 따라서 ㉠은 '민들레는 일어날 김새를 전혀 보이지 않았고, 결국 우리 곁을 떠났다.'로 바꾸어 써야 한다.

05 글의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아서 다시 쓰는 일을 '고쳐쓰기'라고 한다.

오답 풀이 ㉡ '평가하기'는 글의 초고를 바탕으로 구성, 표현,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는 것이다.

㉢ '글감 정하기'는 글을 쓰기 전에 계획하기 단계에서 하는 일이다.

㉣ '개요 작성하기'는 글로 쓸 내용을 표로 정리하는 일이다.

㉤ '글의 주제와 목적'은 자유롭게 떠올린 글감을 바탕으로 정한다.

어휘력 키우기

본문 116쪽

- 01 ㉡

01 '다발'은 '꽃, 푸성귀, 돈 따위의 묶음을 세는 단위'라는 뜻이다. 문맥상 ㉡에서는 '손으로 한 줌 움켜질 만한 분량을 세는 단위'라는 뜻인 '옴큼'이 적절하다.

시험에 나오는 대단원 문제

본문 117~120쪽

- 01 ① 02 ③ 03 · 겹으로 드러나는 의미: 당신을 잊었다. / · 말하는 이의 속마음: 당신을 잊을 수 없다. / · 표현의 효과: '당신'을 잊을 수 없는 말하는 이의 애뜻하고 간절한 심정을 강조할 수 있다. 04 ③ 05 ③ 06 ③ 07 ④ 08 '박 선생님'이 일본이 패망한 현실을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09 ⑤ 10 ⑤ 11 (라), 글의 주제와 상관이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12 ⑤ 13 ① 14 낱말 수준 15 ③ 16 ③ 17 모순, 진리 18 ④

- 01 (가)에서는 3음보를 바탕으로 비슷한 문장 구조 및 시어를 반복하여 운율을 형성하고 있고, (나)에서는 비슷한 시구를 반복하여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
- 02 (가)의 말하는 이는 사랑하고 그리워하는 '당신'과 이별한 상황이다.
- 03 **고난도 서술형** ㉠은 말하는 이의 속마음과는 반대로 표현한 반어이다. 이러한 표현을 사용하면 '당신'을 잊을 수 없다는 뜻을 반대로 표현하면서 '당신'에 대한 애뜻하고 간절한 심정을 강조하는 효과가 있다.

평가 목표	반어의 의미와 효과 이해하기
채점 기준	✓ ㉠의 두 가지 의미를 모두 쓰고, 반어 표현의 효과를 모두 바르게 쓴 경우 [상]
	✓ ㉠의 두 가지 의미를 모두 바르게 썼으나, 반어 표현의 효과를 바르게 쓰지 못한 경우 [중]
	✓ ㉠의 두 가지 의미, 반어 표현의 효과 중 하나만 바르게 쓴 경우 [하]

- 04 ㉠에는 겹으로는 뜻이 모순되고 이치에 맞지 않는 것 같지만, 그 속에 진리를 담고 있는 표현인 '역설'이 사용되었다. ㉢은 사람이 아닌 것을 사람에게 비겨 사람이 행동하는 것처럼 표현하는 '의인법'이 사용되었다.
- 오답 풀이** ㉠ '어린이'를 '어른의 아버지'로 표현했기 때문에 역설이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 '청춘을 '찬란한 슬픔의 불'이라고 하였는데, 찬란하고 슬프다는 것은 모순되고 이치에 맞지 않기 때문에 역설이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 임은 갖는데 '나는 입을 보내지 않았다고 하였으므로 역설이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 '아우성'을 소리 없다고 표현하였기 때문에 역설이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 05 (나)의 10행인 '보라'는 명령형으로 시상을 전환하며, 말하는 이의 의지를 강조하는 효과가 있다.
- 06 (다)에는 해방 직후에 '강 선생님'이 일제에 협력했던 '박 선생님'을 좋은 말로 타이르고, 이를 들은 '박 선생님'은 일본이 패망한 현실을 받아들이고 있다. 따라서 인물 간의 갈등이 심화한다고 볼 수 없다.
- 07 '강 선생님'은 의도적으로 일본 말 대신 조선말을 사용하면서 민족정신을 지키기 위해 나름대로 노력하였다. 하지만 선생님이라는 위치에서 일제의 정책을 학생들에게 가르쳐야만 했

으며, 그가 이에 대해 죄책감을 느끼고 있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 08 '박 선생님'은 일본이 전쟁에서 지고 패망한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가, '강 선생님'의 이야기를 듣고 그 사실을 받아들였다. 이러한 '박 선생님'의 심리 변화가 태극기를 그리는 행동으로 나타난 것이다.
- 09 ㉡는 어린아이의 시선으로 '박 선생님'의 말을 희화화하는 것으로, '박 선생님'의 박학다식한 면모와는 관련이 없다.
- 10 이 글에서는 '박 선생님'이라는 인물을 통해, 해방 전후라는 사회적 혼란기에 자신의 이익을 위해 기회주의적으로 처신하는 지식인을 비판하고 있다.
- 11 (라)를 제외한 다른 문단은 모두 병아리 '민들레'와의 추억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라)는 병아리의 특성을 설명하고 있어 글 전체 주제에 어긋난다.
- 12 '결국은'은 '일이 마무리되는 마당이나 일의 결과가 그렇게 돌아감을 이르는 말'인 '결국'에 조사 '은'이 붙은 것으로, 내용의 흐름으로 볼 때 어색한 부분이 아니다. '반드시'는 '틀림없이 꼭'이라는 뜻으로, '결국은'을 '반드시'로 바꾸면 오히려 더 어색한 표현이 된다.
- 13 ㉠은 과거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데리고 올 것이다.'와 같이 미래의 일로 표현했기 때문에 어색한 문장이 되었다. 따라서 '데리고 올 것이다.'를 '데리고 왔다.'로 바꾸는 것이 적절하다.
- 14 ㉠과 ㉢은 고쳐쓰기 중에서 문맥에 적절한 낱말이나 맞춤법을 고쳐 쓰는 것에 해당하므로, 낱말 수준의 고쳐쓰기에 해당한다.
- 15 (가)는 '잊었노라'라는 시어를 반복하여 규칙적인 리듬감이 느껴지며(㉠), (나)는 말하는 이의 의지적이고 단정적인 어조를 통해(㉢) '시련을 극복하고 스스로 사랑을 찾기 위해 노력하는 삶의 태도'라는 주제를 표현하고 있다.
- 오답 풀이** ㉡. (가)에서는 대상과의 대화가 나타나지 않고, 말하는 이가 개인의 감정이나 정서를 주관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 (나)에서는 반어 표현은 나타나 있지 않으며, 겹으로는 뜻이 모순되고 이치에 맞지 않는 것 같지만, 그 속에 진리를 담고 있는 표현인 역설을 사용하여 말하는 이의 심정을 강조하고 있다.
- 16 '박 선생님'은 일제 강점기에 혈서를 써서 일본 군대에 지원했다가 탈락했으므로, 일본의 지배에서 독립하기 위해 노력하는 인물이 아니라 친일적인 인물로 볼 수 있다.
- 17 ㉠은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희망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겹으로는 뜻이 모순되고 이치에 맞지 않는 것 같지만, 그 속에 진리를 담고 있는 역설 표현이다.
- 18 '기억'은 이전의 경험을 도로 생각해 내는 것을 뜻하므로, 문맥상 적절하지 않다. ㉣는 '어떤 일을 하려고 마음을 먹음. 또는 그런 마음.'을 뜻하는 낱말인 '생각'으로 고쳐 써야 한다.

4 더 쉽게 더 정확하게

[1] 다양한 설명 방법

간단 체크 개념 문제

본문 124쪽

1 (1) × (2) × (3) ○ 2 비교 3 ㉔

- (1) 설명하는 글은 어떤 대상에 대해 독자를 이해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설명하는 글은 효과적인 설명 방법을 사용하여 독자가 대상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써야 한다.
- 둘 이상의 대상을 견주어서 공통점이나 비슷한 점을 중심으로 설명하는 방법은 비교이고, 차이점을 중심으로 설명하는 방법은 대조이다.
- ㉔의 예는 오빠와 동생의 식성의 차이점을 말하고 있으므로 대조의 설명 방법이 쓰인 문장이다. 인과는 원인과 결과를 중심으로 설명하는 방법이다.

학습곡

본문 125~127쪽

125쪽 발효 식품, 질문, 치즈

127쪽 우수성, 발효, 부패, 차이, 억제, 향암, 발전, 보관, 가치

간단 체크 내용 문제

본문 125~127쪽

125쪽 01 예시 02 ①, ③ 03 ①

126쪽 04 ④ 05 ② 06 아미노산

127쪽 07 메주가 발효되는 과정에서 향암 물질이 만들어지기 때문이다. 08 ③

- ㉔은 다양한 발효 식품의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다.
- (다)에서는 '발효'의 개념을 정의의 방법으로 설명하고, '발효'의 특징을 '부패'와 비교·대조하여 설명하고 있다. 인용은 남의 말이나 글을 자신의 말이나 글 속에 끌어 써서 설명하는 방법인데, (다)에서는 누군가의 말을 끌어 쓰지 않고 있다. 또한 분석은 하나의 대상을 몇 개의 부분이나 구성 요소로 나누어 설명하는 방법인데, (다)에서는 발효를 부분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지 않다.
- 이 글에는 사람이 발효된 물질을 안전하게 먹을 수 있다는 내용만 제시되어 있을 뿐, 식중독을 예방해 준다는 내용은 나타나 있지 않다.
- 채소로 김치를 만들어 발효시켜 먹는 것이지, 발효된 채소를 필요한 때에 김치로 만들어 먹는 것은 아니다.

오답 풀이 ① (바)에서 김치가 변비, 대장암, 당뇨병 등과 같은 여러 질병을 예방하는 데 효과적이라고 하였다.

② (바)에서 김치의 젖산균과 젖산이 우리 몸 안에서 소화를 촉진하고, 노폐물이 잘 배설될 수 있도록 돕는다고 하였다.

③ (라)에서 김치는 채소의 영양분을 계절에 상관없이 섭취할 수 있도록 해 준다고 하였다.

⑤ (바)에서 김치의 젖산균과 젖산이 유해균 번식과 발암 물질의 생성을 억제하기도 한다고 하였다.

- ㉔은 젖산의 성질(원인) 때문에 생기는 효과(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 젖산균의 일종인 바실루스가 콩에 들어 있는 단백질을 분해하여 만든 아미노산은 간장에 감칠맛을 더하고 영양소를 공급한다.
- 된장의 재료인 메주가 발효되는 과정에서 향암 물질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된장은 향암 효과가 뛰어나다.
- (카)에서 글쓴이는 발효 식품의 가치를 강조하고, 읽는 이에게 우리의 전통 발효 식품을 발전시킬 방법을 생각해 보기를 제안하고 있다.

간단 체크 어휘 문제

본문 125~127쪽

125쪽 (1) 장수 (2) 부패 (3) 비결

127쪽 (1) 풍성하다 (2) 보관하다 (3) 예방하다

학습 활동

본문 128~132쪽

이해 감칠맛, 우수성, 개념, 예시, 음식

적용 분류, 인과

간단 체크 활동 문제

본문 128~132쪽

128쪽 01 ② 02 ③

129쪽 03 ② 04 ② 05 ⑤

130쪽 06 ③ 07 ①, ③

131쪽 08 (다) 09 ③ 10 ①

132쪽 11 ③

- (가), (나)는 글의 처음으로, 앞으로 설명할 대상을 밝히고 있다.
 - 오답 풀이** ① 글의 중심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부분은 가운데이다.
 - ③, ⑤ 핵심 내용을 요약정리하고,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를 당부하는 부분은 끝이다.
 - ④ 읽는 이의 궁금증을 해소해 주는 부분은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가운데이다.
- 이 글은 발효의 개념과 우리의 전통 발효 식품의 효용 가치를 설명하여, 우리 전통 발효 식품의 우수성을 알리고 있다.
- ㉔에서는 요구르트, 하몬, 된장, 빵, 치즈 등의 예를 들어 다양한 발효 식품을 설명하고 있다.
- '발효'와 '부패'는 둘 다 미생물이 유기물에 작용하여 물질의 성질을 바꾸지만, '발효'는 인간에게 유용한 물질을 만들고, '부패'는 인간에게 해로운 물질을 만들어 낸다.
- <보기>에서는 원인과 결과를 중심으로 설명하는 방법인 인과를 활용하여 탄 고기를 먹으면 암이 발생할 확률이 높아진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 ⑤ 역시 인과를 활용하여 젖산이 김치를 잘 썩지 않게 한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

06 <보기>에서는 쇼, 코미디, 드라마, 스포츠 등과 같은 구체적인 예를 들어 오락 기능을 담당하는 텔레비전 프로그램의 장르를 설명하고 있다. ③의 학생들이 사용하는 줄인 말 역시 구체적인 예를 들면 쉽게 설명할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시계의 구조는 분석, ② 럭비와 미식축구의 차이점은 대조, ④ 말하기와 쓰기 영역의 공통점은 비교, ⑤ 지구 온난화의 원인과 해결 방법은 인과의 설명 방법으로 설명하기에 적절하다.

07 대상에 맞는 설명 방법을 적절하게 활용하면, 글쓴이는 내용을 정확하고 쉽게 전달할 수 있고 읽는 이는 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기억할 수 있다.

08 <보기>는 심장을 그 하위 요소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으므로 분석의 설명 방법을 사용한 것이다. (다) 역시 가야금을 ‘몸통’, ‘안죽’, ‘줄’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09 가야금은 줄을 튕기거나 굽어서 소리를 내는 악기이므로 현 악기에 속한다.

10 (나)에서는 여러 국악기를 ‘연주 방법’이라는 기준에 따라 종류별로 묶어 설명하고 있다.

11 <보기>에 제시된 설명 방법은 예시이다. 거울과 유리의 차이 설명에는 둘 이상의 대상을 견주어 서로 간의 차이점을 밝혀 설명하는 대조의 설명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다.

압축 파일

본문 133쪽

- ① 인정 ② 개념 ③ 정의 ④ 부패 ⑤ 인과 ⑥ 계절
- ⑦ 예방 ⑧ 발전

시험에 나오는 소단원 문제

본문 134~135쪽

- 01 ⑤ 02 ④ 03 ④ 04 ① 05 발효 과정에서 몸에 좋은 성분이 만들어지기 때문이다. 06 ④ 07 ③ 08 발효 식품의 우수성을 알고 전통 발효 식품을 발전시켜 나가자.
- 09 ② 10 ⑤

01 주장과 근거를 통해 읽는 이를 설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글은 주장하는 글이다.

02 (가)는 설명하는 글의 처음 부분이다. (가)에서는 질문을 통해 독자의 관심과 흥미를 유발하고, 앞으로 설명하게 될 대상을 소개하고 있다.

03 (라)에서 김치 발효의 주역은 젖산균이고 젖산은 약한 산성 물질이어서 유해균이 증식하는 것을 억제하고, 김치가 잘 썩지 않게 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그 덕분에 발효 식품인 김치를 오래 두고 먹을 수 있다고 하였다.

오답 풀이 ① (나)에서 발효와 부패 모두 미생물이 유기물에 작용하여 물질의 성질을 바꾸어 놓는다고 하였다. ② (가)에서 발효 식품은 특유의 맛과 향으로 사람들의 입맛을 사로잡고 있다고 하였다. ③ (다)에서 발효를 거쳐 만들어지는 대표적인 전통 음식에는 김치가 있다고 하였다.

⑤ (나)에서 발효란 미생물이 탄수화물, 단백질 등을 분해하는 과정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04 <보기>에는 순우리말로 만든 땅 이름의 구체적인 예를 들고 있다. ① 또한 세계적으로 애용되는 발효 음식의 구체적인 예를 들고 있다.

오답 풀이 ② ㉠에는 정의의 설명 방법이, ③ ㉡에는 비교의 설명 방법이, ④ ㉢에는 대조의 설명 방법이, ⑤ ㉣에는 인과의 설명 방법이 사용되었다.

05 **서술형** (다)에서 김치는 발효 과정에서 더해진 좋은 성분으로 우리의 건강을 지키는 데 도움을 준다고 하였다.

06 (다)의 ‘간장은 음식을 더 맛있게 만들고 건강에도 좋기 때문에 우리 조상들은 장 담그는 일에 정성을 기울였다.’라는 내용으로 볼 때, 간장이 건강에 해롭다는 ④의 내용은 적절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라)에서 된장은 ‘암을 이기는 한국인의 음식’ 중 하나로 꼽힐 정도로 항암 효과가 뛰어나다고 하였다. ② (나)에서 간장은 발효된 메주를 소금물에 담가 우려내고 그 국물을 달여 만든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③ (가)에서 젖산균과 젖산이 유해균 번식이나 발암 물질 생성을 억제하기 때문에 젖산균과 젖산이 풍부한 김치는 질병을 예방하는 데에 효과적이라고 하였다. ⑤ (마)에서 발효 식품은 독특한 맛과 향을 지녀서 우리 밥상을 풍성하게 해 준다고 하였다.

07 이 글은 김치, 간장, 된장을 예로 들어 전통 발효 음식의 우수성을 설명하고 있다.

08 **서술형** (마)에서 글쓴이는 우리나라 전통 발효 식품의 가치를 언급하며, 발효 식품을 발전시킬 방법을 생각해 볼 것을 제안하고 있다.

09 <보기>는 ‘가야금’이라는 하나의 대상을 ‘몸통, 줄, 안죽’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설명 방법은 분석이다.

10 인과는 원인과 결과를 중심으로 설명하는 방법이므로 세계 각국의 전통 의상을 설명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

[2] 설명하는 글 쓰기

학습 활동

본문 136~144쪽

- 이해** 정보, 가치, 차이점, 분석
- 적용** 역할, 귀지

학습곡

본문 136~144쪽

- 136쪽 목적
- 139쪽 구조, 정의
- 140쪽 개요
- 141쪽 조직, 수준, 표현

136쪽	01 ③	02 ③	03 ②
137쪽	04 ⑤	05 ②	
138쪽	06 ⑤	07 ②	
139쪽	08 ②	09 ①	10 ⑤
140쪽	11 내용 조직하기	12 ④	13 ⑤
141쪽	14 ③	15 ④	
142쪽	16 ②	17 ④	18 ①
143쪽	19 개요	20 ①	
144쪽	21 ③		

- 01 설명하는 글을 쓰는 첫 단계에서는 글의 주제, 글을 쓰는 목적, 예상 독자 등을 떠올려 보고 이를 구체적으로 설정해 두어야 한다.
- 02 '줄다리기에 관한 여러 정보를 찾아보고, 친구들에게 알려줘야지.'라고 말하는 것으로 볼 때, '민재'는 줄다리기에 관한 여러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목적으로 글을 쓰려는 것을 알 수 있다.
- 03 '민재'는 줄다리기에 관한 여러 정보를 친구들에게 알려 주려고 하고 있으므로, '민재'가 어떠한 대상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객관적으로 서술하는 설명문을 쓸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 04 자료를 활용하여 글을 쓸 때에는 글의 주제와 목적, 예상 독자의 수준, 글의 짜임 등을 고려하여 자료의 내용을 재구성하여 써야 한다.
- 오답 풀이** ① '자료 1'은 줄다리의 뜻, '자료 2'는 줄다리의 가치를 다루고 있으므로, 모두 글의 주제인 줄다리와 관련이 있다.
 ② '자료 1'은 표준 국어 대사전, '자료 2'는 신문에서 찾은 것이므로, 모두 인쇄 매체에서 수집한 자료들이다.
 ③ '자료 1'에서는 줄다리의 개념을 정의하고 있다.
 ④ '자료 2'에서는 줄다리가 교육적으로 가치가 있기 때문에 이를 잘 보존하고 계승해야 한다고 하고 있다.
- 05 '민재'가 수집한 '자료 2(신문 기사)'에서는 인과를 활용하여 줄다리가 교육적으로 가치가 있음을 설명하고 있다.
- 06 누리집에서 수집한 '자료 3'은 줄다리에 사용되는 줄의 구조를 머리, 몸줄, 결줄 부분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 07 ㉠에서는 줄다리에 사용되는 줄의 구조를 머리, 몸줄, 결줄 부분으로 나누어 설명하는 분석의 설명 방법을 사용했다.
- 오답 풀이** ① 둘 이상의 대상을 견주어 서로 간의 차이점을 밝혀 설명하는 대조의 설명 방법이 사용되었다.
 ③ 대상의 본질, 개념, 뜻을 밝히며 설명하는 정의의 설명 방법이 사용되었다.
 ④ 둘 이상의 대상을 견주어 서로 간의 공통점을 밝혀 설명하는 비교의 설명 방법이 사용되었다.
 ⑤ 구체적인 예를 들어 설명하는 예시의 설명 방법이 사용되었다.
- 08 '자료 4'는 줄다리가 언제,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지 그 유래(기원)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 09 ㉠에서는 경상남도 영산 지방과 전라남도 강진 지방의 편 구성 방식의 차이점(㉠)과 공통점(㉡)을 설명하고 있다.
- 10 '자료 6'에서는 줄다리를 전승하기 위해 전승 협회, 박물관, 초등학교, 지방 자치 단체에서 하고 있는 노력을 설명하고 있다.
- 11 글의 주제와 관련된 자료를 수집하고 선택하는 '내용 생성하기'를 한 후에는 생성한 내용을 바탕으로 개요를 작성하는 '내용 조직하기'를 해야 한다.
- 12 <보기>는 줄다리의 사회적 측면에서의 가치를 설명하고 있으므로 '가운데-3-가. 줄다리가 지닌 가치'를 작성할 때 활용한 자료라고 할 수 있다.
- 13 여러 가지 예나 사실을 낱말이 죽 늘어놓아 설명하는 방법은 열거이고(㉢), 믿을 만한 사람의 말이나 글을 자신의 글에 끌어 써 설명하는 방법은 인용이다(㉣).
- 14 설명하는 글은 대상을 설명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화려한 표현이 아닌 구체적이고 명료한 표현을 활용해야 한다.
- 15 ㉤에서는 줄다리기를 줄의 모양을 '지네'에 빗대어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 16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내용을 생성하는 글쓰기 과정은 '내용 생성하기'이다.
- 17 자료는 다양한 매체에서 수집하는 것이 좋기 때문에 수집한 매체의 종류는 자료 선별의 기준이라고 볼 수 없다.
- 18 <보기>는 귀가 외이, 중이, 내이로 나뉜다고 하며 귀의 구조를 설명하고 있다.
- 19 글의 '개요'란 글의 내용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를 일목요연하게 표로 나타낸 것이다.
- 20 이 개요로 보아, 귀지를 파면(원인) 세균이 쉽게 침범하고 만성 외이도염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결과) 귀를 파면 안 된다는 내용을 '인과'를 활용하여 설명하려 한다. ㉠ 역시 인과를 활용하여 복귀의 빙하가 녹는 현상을 설명하고 있다.
- 21 설명하는 글은 읽는 이에게 정보와 지식을 전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근거를 제시하고 이를 통해 글쓴이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글은 설득하는 글이다.

압축 파일

- ① 생성 ② 가운데 ③ 보충 ④ 줄다리기 ⑤ 개요
 ⑥ 수준

시험에 나오는 소단원 문제

- 01 ③ 02 ④ 03 분석 04 ⑤ 05 ③

01 (가)의 자료는 줄다리기가 매우 가치 있는 놀이이므로 이를 잘 보존하고 계승해야 한다는 내용을 ‘인과’를 통해 설명하고 있다. 줄다리기의 유래는 드러나 있지 않다.

오답 풀이 ① ‘2016년 5월 29일’, ‘경남 도민 신문’으로 자료의 출처가 드러나 있다.

- ② 신문 기사는 인쇄 매체에 해당한다.
- ④ 인과의 설명 방법을 활용하여 줄다리기의 가치를 설명하고 있다.
- ⑤ 줄다리기의 가치를 신체적·정신적·사회적 측면에서 살펴보고 있다.

02 ㉠은 ‘가운데-2. 줄다리기를 하는 방법’의 하위 항목이다. 따라서 ㉠에는 줄다리기를 하는 방법 중의 일부인 ‘줄다리기의 편 구성 방식’이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03 **서술형** ㉠에서는 하나의 대상을 몇 개의 부분이나 구성 요소로 나누어 설명하는 분석을 활용하여 줄다리기에 사용되는 줄의 구조를 설명하고 있다.

04 <보기>는 전승 협회, 박물관, 초등학교 등에서 줄다리기를 전승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를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보기>는 ㉡ ‘가운데-3-나. 줄다리기를 전승하려는 노력을 쓸 때 활용할 수 있는 자료이다.’

05 설명하는 글을 쓰는 데 필요한 자료를 더 찾아보는 단계는 ‘내용 생성하기’이다. ‘내용 조직하기’는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글의 개요를 작성하는 단계이다.

어휘력 키우기

본문 147쪽

01 ④ 02 ③

01 ‘증식’은 생물이나 조직 세포 따위가 세포 분열을 하여 그 수를 늘려 간다는 뜻이므로 ④에는 ‘사람이나 물건이 갑자기 사라져 행방을 알지 못하게 됨.’을 속되게 이르는 ‘증발’이 어울린다.

02 <보기> 문장의 내용으로 볼 때, 빈칸에는 ‘사물이 생겨남. 또는 사물이 생겨 이루어지게 함.’을 뜻하는 ‘생성’이 들어가야 한다.

시험에 나오는 대단원 문제

본문 148~150쪽

01 ② 02 ④ 03 먼저, 알아보자. 04 ⑤ 05 ③
 06 ④ 07 메주가 발효될 때 만들어진 아미노산이 소금물에 녹아들면서 감칠맛을 더하기 때문이다. 08 ㉡ 09 ④ 10 ㉠: 줄다리기의 뜻, ㉡: 정의 11 ④ 12 비유, 줄의 구조를 머릿속에 떠올려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13 ③ 14 ‘외이’, ‘중이’, ‘내이’를 쉬운 표현으로 15 ①

01 (가)와 (나)에서 세계적으로 애용되는 다양한 발효 식품을 소개하고 있으므로, 발효가 우리나라에만 있는 식품 제조 방법이라고 한 ②의 내용은 적절하지 않다.

02 <보기>는 김치 발효에서 주된 역할을 하는 젖산균과 젖산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그러므로 <보기>는 전통 발효 식품인 김치를 소개하는 (라)와, 젖산균과 젖산 때문에 김치가 건강을 지키는 데에 도움을 준다는 (마) 사이에 들어가야 한다.

03 **서술형** (나)에서 글쓴이는 ‘먼저 발효의 개념을 알아보고, 우리나라의 전통 발효 식품을 중심으로 발효 식품의 우수성을 자세히 알아보자.’라고 하며 가운데 부분에서 전개할 내용을 미리 소개하고 있다.

04 ㉡은 부패와의 차이점을 밝힌 대조를 통해 발효의 특징을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⑤의 문장은 원인과 결과를 중심으로 설명하는 인과를 활용하고 있다.

05 (마)에서 글쓴이는 전통 발효 식품의 가치를 강조하며 이를 발전시킬 방법도 생각해 보자는 제안을 하고 있다.

06 (가)~(라)에서는 우리나라의 전통 발효 식품의 우수성을 간장과 된장을 예로 들어 설명하고 있다.

07 **서술형** (나)에서 메주가 소금물 속에서 발효될 때, 젖산균의 일종인 바실루스가 단백질을 분해하여 만든 아미노산이 간장에 감칠맛을 더해 준다고 하고 있다.

08 **서술형** (가)에서 발효한 메주를 소금물에 담가 우려내고, 그 국물을 떠내어 달이면 간장이 완성된다고 하고 있다.

09 ㉠에는 원인과 결과를 중심으로 설명하는 인과의 설명 방법이 사용되었다. ④ 또한 원인과 결과로 설명하는 인과의 설명 방법을 활용하는 것이 적절하다.

오답 풀이 ① 개념을 밝히는 것이므로 정의의 설명 방법이 적절하다.
 ② 하위 항목을 설명해야 하므로 분류 등의 설명 방법이 적절하다.
 ③ 나이를 기준으로 분류해서 설명하거나 노래를 예를 들어 설명할 수 있으므로 분류, 예시 등의 설명 방법이 적절하다.
 ⑤ 갈래별 차이점을 설명해야 하므로 대조의 설명 방법이 적절하다.

10 **서술형** (가)에 제시된 자료는 국어사전에서 찾은 것으로, 줄다리기의 뜻(㉠)을 정의(㉡)하고 있다.

11 (나)는 줄다리기의 줄은 머리, 몸줄, 겹줄로 이루어져 있다고 하며 줄다리기의 줄의 구조를 설명하고 있다.

12 **고난도 서술형** ㉠에서는 줄다리에 사용되는 줄의 모양을 지네에 비유하여 읽는 이가 줄의 구조를 쉽게 머릿속에 떠올려 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평가 목표	설명 방법과 그 효과 파악하기
채점 기준	✓ 설명 방법과 그 효과를 모두 바르게 쓴 경우 [상]
	✓ 설명 방법과 그 효과를 모두 썼으나 효과의 내용이 미흡한 경우 [중]
	✓ 설명 방법을 쓰지 않았거나 효과의 내용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 [하]

13 귀지가 생기는 까닭과 귀지를 파면 안 되는 까닭을 설명하는 부분이므로 인과의 설명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다.

14 고쳐 쓴 글에서는 ‘외이’, ‘중이’, ‘내이’와 같은 어려운 말을 각각 ‘바깥귀’, ‘가운데귀’, ‘속귀’와 같은 쉬운 말로 풀어서 서술하고 있다. 따라서 선생님의 검토 의견에는 ‘외이’, ‘중이’, ‘내이’를 쉬운 표현으로 바꾸어 달라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5 설명하는 글을 쓰는 과정에서 글의 주제, 글을 쓰는 목적, 예상 독자 등을 정하는 단계는 ‘계획하기’이다.

07 <보기>에서는 글을 읽고 자신이 몰랐던 나무들의 역할을 알게 되었음을 말하고 있다. 따라서 <보기>의 소감은 (라)에 제시된 여러 가지 읽기의 가치 중 지식을 쌓는 것과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08 (사)에서 글쓴이는 보잘것없는 나무들을 통해 얻은 깨달음을 바탕으로 스스로를 가치 있다고 여기며 살아가겠다는 다짐을 하고 있다. 특히, '내가 스스로 가치 있다고 여기면 그것으로 족하지 않은가.'에서는 쉽게 판단할 수 있는 사실을 의문의 형식으로 표현하여 그 의미를 강조하는 설의법을 활용하고 있다.

3단계

09 (나)에서 글쓴이는 우리도 '이덕무'처럼 평소에 좋아하는 책을 정해 두고 슬프거나 화가 나거나 외로울 때 조금씩 읽어 보자고 권유하고 있다. 그리고 (다)에서 이렇게 책을 읽으면 마음이 고요해지면서 다시 생활할 수 있는 용기가 생겨나고, 근심거리를 해결할 수 있는 좋은 생각이 떠오르지 모른다고 하였다.

평가 목표	글 읽기가 가치 있는 이유 파악하기
채점 기준	✓ 글쓴이가 ㉠과 같이 권유한 까닭을 (조건)에 맞게 쓴 경우 [20점]
	✓ 글쓴이가 ㉠과 같이 권유한 까닭을 썼으나 (조건)에 맞지 않은 경우 [15점]
	✓ 띄어쓰기나 맞춤법이 잘못되었을 경우 [1점씩 감점]

10 (마)~(사)의 글쓴이는 보잘것없는 나무들을 통해 이 세상에 소중하지 않은 삶은 없다는 것을 깨닫고 자신의 삶을 가치 있게 여기며 살아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된다. <보기>의 말하는 이도 널따란 동해바다를 바라보며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엄격하고 웅중했음을 깨닫고 반성을 하게 된다. 따라서 <보기>와 (마)~(사) 모두 자연물에서 얻은 깨달음을 표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평가 목표	작품 간의 공통점 파악하기
채점 기준	✓ (마)~(사)와 <보기>의 공통점을 (조건)에 맞게 쓴 경우 [25점]
	✓ (마)~(사)와 <보기>의 공통점을 썼으나 (조건)에 맞지 않은 경우 [20점]
	✓ 띄어쓰기나 맞춤법이 잘못되었을 경우 [1점씩 감점]

(2) 핵심 정보를 담은 발표

간단 복습 문제

본문 09쪽

- 꼭지 시험** 01 핵심 정보 02 세계 기아 03 문제와 해결 방법 04 ○ 05 × 06 × 07 ㉠ 08 ㉠ 09 ㉠ 10 ㉠
어휘 시험 01 부정부패 02 기아 03 역양 04 구호 05 실태 06 영양실조 07 외형 08 ㉠ 09 ㉠ 10 ㉠

03 '세민이네 모듬'에서는 기아 문제의 심각성과 원인을 살펴본 다음 그 해결 방식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발표를 구성하였다.

06 발표를 할 때에는 듣는 이가 지루해하지 않도록 내용의 중요도에 따라 목소리 크기를 조절하는 것이 좋다.

09 '세민이네 모듬'에서는 '유엔 세계 식량 계획[WFP]'과 '유엔 식량 농업 기구[FAO]'라는 권위 있는 기관의 자료를 제시하여 발표 내용의 신뢰성을 높이고 있다.

05 '실태'는 '있는 그대로의 상태. 또는 실제의 모양'이라는 의미로, 청소년들의 언어 사용에 대한 있는 그대로의 상태를 조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빈칸에는 '실태'가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예상 격률 소 단 원 평가

본문 10쪽

- 01 ⑤ 02 ⑤ 03 ③ 04 ④

01 (다)에서는 일부 기업이나 정부에서 농산물의 가격을 올리거나 농산물의 생산량을 줄이면 식량 가격이 상승하여 가난한 나라들은 식량을 구하는 것이 점점 어려워진다고 하고 있다.

02 이 발표는 기아 문제의 심각성과 원인을 살펴본 다음 그 해결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03 <보기>에서는 식량이 충분한데도 수많은 사람들이 기아에 시달리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하며 책에서 분석하고 있는 다양한 문제의 원인을 소개하겠다고 하였다. 따라서 <보기>는 기아 문제의 원인을 소개하고 있는 (다) 앞에 들어가야 한다.

04 '자료 4'는 우리가 참여할 수 있는 구호 단체의 활동을 소개해 줌으로써, 기아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도록 유도하는 영상이다. 따라서 이 자료가 기아 문제 해결이 어렵다는 것을 드러낸다고 볼 수 없다.

고득점 서술형 문제

본문 11~12쪽

1단계 01 이, 깨달았습니다. 02 유엔 세계, 안타까운 일입니다. 03 (라) 04 전쟁 05 요약정리

2단계 06 핵심 정보: 전 세계 평균 식품 에너지 공급 충분성 지수 / 자료의 효과: 전 세계 평균 식품 에너지 공급 충분성 지수의 변화를 보여 줌으로써, 식량이 충분한데도 기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원인을 생각해 보게 한다. 07 책의 내용을 오랫동안 기억할 수 있다. / 책을 읽으며 받았던 감동을 오래 간직할 수 있다. / 자신의 독서 성향을 파악할 수 있다. 등 08 권위 있는 사람의 말을 인용하여 발표자의 생각을 호소력 있게 전달할 수 있다.

3단계 09 기부 활동에 참여하기, 기아 문제의 심각성 알리기, 기아 관련 정책이나 소식에 관심을 기울이기

1단계

01 발표자는 『왜 세계의 절반은 굶주리는가?』라는 책을 읽으면서 그동안 우리가 세계의 기아 문제에 무관심했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하고 있는데, 이는 발표 동기에 해당한다.

02 (나)에서 발표자는 '유엔 식량 계획[WFP]'이라는 권위 있는 기관의 통계 자료를 인용하여 내용의 신뢰성을 높이고 있다. 그리고 세계 인구의 약 9분의 1이 극심한 영양실조를 겪고 있고, 5세 이하의 영·유아 중 절반이 영양실조로 사망한다는 사실을 밝히며 기아 문제의 심각성을 드러내고 있다.

03 (라)에서는 기아 문제의 원인으로 '시장 경제 체제'의 문제와 '부정부패'의 문제를 제시하고 있다.

04 (마)에서는 (라)에서 분석한 기아 문제의 원인 외에 전쟁을 겪는 나라도 많아 날이 갈수록 기아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고 하고 있다.

05 발표의 끝부분인 (사)에서는 앞에서 다룬 내용을 요약정리하고, 기아 문제에 대한 청중의 인식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2단계

06 제시된 그래프는 전 세계 평균 식품 에너지 공급 충분성 지수가 계속 증가하는 모습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게 해 준다. 이를 통해 듣는 이로 하여금 식량의 공급이 충분한데도 기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원인을 생각해 보게 한다.

07 독서 카드를 작성하면 자신이 읽은 책의 내용을 오랫동안 기억할 수 있고, 책을 읽으며 받았던 감동을 오래 간직할 수 있다. 그리고 자신의 독서 습관이 기록되기 때문에 자신의 독서 성향을 확인하는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08 발표자는 듣는 이의 인식 변화를 요구하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는 법정 스님의 말을 인용하여 자신의 생각을 호소력 있게 전하고 있다.

3단계

09 <보기>의 [A]는 무분별한 플라스틱 사용 때문에 발생한 바다 오염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 발표에서도 기아 문제의 심각성과 원인을 제시한 후, (바)에서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기아 문제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평가 목표	내용 조직 방법의 공통점과 그 내용 파악하기
채점 기준	✓ 내용 조직 방법을 고려하여 [A]에 해당하는 내용을 <조건>에 맞게 쓴 경우 [25점]
	✓ 내용 조직 방법을 고려하여 [A]에 해당하는 내용을 썼으나 <조건>에 맞지 않은 경우 [20점]
	✓ 띄어쓰기나 맞춤법이 잘못되었을 경우 [1점씩 감점]

예상 적중 대단원 평가

본문 13~14쪽

01 ② 02 ④ 03 ⑤ 04 걱정이나 근심을 해결하게 된다. 05 ⑤ 06 ③ 07 ② 08 ㉠은 세계 기아 인구의 분포와 비율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게 해 주고, ㉡은 기부금 만 원의 효과를 소개해 줌으로써, 기아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도록 유도한다.

01 (가)~(다)는 책 읽기의 과정과 방법을 설명한 것이 아니라 책 읽기의 가치와 중요성에 대해 서술한 후 책을 읽자는 당부를 하고 있다.

02 <보기>의 독자는 글쓴이가 불편한 소비를 하는 까닭과 그것 때문에 왜 즐거움을 느끼는지가 궁금하여 『즐거운 불편』이라는 책을 읽을 것이라고 하였다. 이로 보아 <보기>의 독자는 글쓴이의 생각, 즉 다른 사람의 생각을 알기 위해 책을 읽는다고 볼 수 있다.

03 '마치 갈증 ~ 기분이라고 할까.'에서는 쉽게 판단할 수 있는 사실을 의문의 형식으로 표현하여 상대편이 스스로 판단하게 하는 설의법을 활용하여 남대문 야시장 사람들로부터 느끼는 시원함을 강조하고 있다(ㄷ). 그리고 '좌판을 벌여 놓고 ~ 입 찌름하는 사람…….'에서는 여러 가지 예나 사실을 늘어놓는 열거법을 활용하여 활력이 넘치는 남대문 야시장 사람들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ㄹ). '고무장갑 같은'과 '물고기처럼'에서는 비슷한 성질을 지닌 두 대상을 연결어로 결합하여 직접 비유하는 직유법을 활용하여 남대문 야시장 사람들의 활력 넘치는 모습을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다(ㄹ).

04 서술형 <보기>의 독자는 자신이 쓸모없는 사람이라는 생각에 근심을 하다가 (마)를 읽고 삶의 의미를 새롭게 발견하게 된다. 이는 (다)에 제시된, 책을 읽으면 걱정이나 근심을 해결하게 된다는 읽기의 가치와 관련이 있다.

05 이 발표는 '기아 문제의 심각성과 해결 방법'이라는 주제에 따라 내용을 일관되게 전개하고 있다.

오답 풀이

- ① 이 발표에서는 기아 문제의 원인으로 '시장 경제 체제'의 문제, '부정부패'의 문제, '사막화 현상'을 제시하고 있다.
- ② (마)에서 제시한 기아 문제의 해결 방법은 모두 학생 수준에서 참여할 수 있는 손쉬운 방법들이다.
- ③ (가)에서는 '유엔 세계 식량 계획[WFP]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이라고 하면서 발표문에 인용한 통계 자료의 출처를 밝히고 있다.
- ④ (가)의 '지도', (마)의 '영상'과 같은 다양한 자료를 활용하고 있다.

06 이 발표는 기아 문제의 심각성과 원인을 밝힌 후 그 해결 방법을 제시하는 문제와 해결 방법에 따라 내용을 구성하였다. '미세먼지 이대로 안 된다' 역시 같은 방식으로 내용을 구성할 수 있다.

07 <보기>는 (나)~(라)에서 제시한 기아 문제의 세 가지 원인을 종합하여 정리하고 있다. 그리고 전쟁을 겪는 나라도 많다고 하며 기아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 현실을 전달하고 있다.

08 고난도 서술형 ㉠은 세계 기아 인구의 분포와 비율을 표시한 지도로, 듣는 이가 세계 기아 인구의 분포와 비율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게 해 준다. 그리고 ㉡은 기부금 만 원의 효과를 소개한 영상으로, 듣는 이가 기아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게 해 준다.

평가 목표	자료 활용의 효과 파악하기
채점 기준	✓ ㉠과 ㉡의 자료 활용 효과를 <조건>에 맞게 서술한 경우 [상]
	✓ ㉠과 ㉡의 자료 활용 효과 중 한 가지만 <조건>에 맞게 서술한 경우 [중]
	✓ ㉠과 ㉡의 자료 활용 효과에 대한 서술이 미흡하고, <조건>에도 맞지 않은 경우 [하]

2 주고받는 이야기, 함께 나누는 생각

[1] 담화의 개념과 특성

간단 복습 문제

본문 16쪽

- 꼭지 시험** 01 담화 02 사회·문화적 맥락 03 지역 방언
 04 차별적 05 시간, 공간 06 성별 07 ○ 08 ○
 09 × 10 ○
어휘 시험 01 문구 02 의사소통 03 맥락 04 발화
 05 방언 06 연설문 07 고려해야 08 ㉠ 09 ㉡
 10 ㉢

09 다른 문화권 사람들과 의사소통을 할 때에는 상대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 표현을 사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특히 다른 문화권의 사람과 대화할 때에는 우리의 문화가 담긴 관용적 표현보다는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표현을 사용해야 한다.

06 '안내문'은 어떤 내용을 소개하여 알려 주는 글을 의미하므로, 제시된 문장에는 연설할 내용을 적은 글을 의미하는 '연설문'이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07 '배려하다(배려해야)'는 '도와주거나 보살펴 주려고 마음을 쓰다.'는 의미이므로, 제시된 문장에는 '생각하고 헤아려 보다.'는 의미를 지닌 '고려하다(고려해야)'가 들어가야 한다.

예상 적중 소단원 평가

본문 17~18쪽

- 01 ④ 02 ② 03 ⑤ 04 ④ 05 ② 06 ⑤
 07 ⑤ 08 ④ 09 ④ 10 그 당시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역사적 상황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01 같은 말이라도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는 시간과 공간(장소)에 따라 뜻이 달라질 수 있는데, 이와 같이 담화가 이루어지는 구체적인 시간과 공간을 가리켜 상황 맥락이라고 한다(ㄴ). 또한 말하는 이(글쓴이)와 듣는 이(읽는 이)를 포함하여 구체적인 맥락 속에서 이루어지는 발화(문장)나 발화(문장)의 연속체를 담화라고 한다(ㄹ).

오답 풀이 ㄱ. 담화의 구성 요소는 말하는 이(글쓴이)와 듣는 이(읽는 이)와 같은 담화 참여자, 전달하려는 내용, 맥락으로 구성된다. 담화 참여자인 말하는 이와 듣는 이는 담화를 이루는 데 중요한 요소로 이것이 바뀌면 내용과 표현 모두 바뀔 수 있다.

ㄷ. 말뿐만 아니라 글도 상황이 달라지면 그 뜻이나 표현이 달라지기도 한다.

02 (가)는 '세민'이 '민재'에게 무엇을 타고 왔는지 물어보는 상황이므로 '민재'는 타고 온 교통수단에 대해 말해야 한다. 그리고 (나)는 '윤하'가 자신이 미처 초대하지 못한 친구가 전시회장에 온 것을 보고 어떻게 알고 왔는지를 물어보는 상황이므로, '진수'는 어떻게 알고 전시회장에 왔는지에 대해 답해야 한다.

03 (2)의 담화 참여자의 관계는 의사와 환자이기 때문에 "불편하지는 않으세요?"를 "팔이 아프지는 않으신가요?"와 같이 해석할 수 있다. (3)에서는 두 사람의 관계가 신발 가게의 점원과 손님이기 때문에 같은 질문을 "신발이 발에 잘 맞나요?"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처럼 (2)와 (3)은 말하는 이와 듣는 이의 관계에 따라 말의 의미가 달라진 것이다.

04 (가)의 "지금 몇 시니?"는 아침에 늦잠을 자는 아들에게 "이제 그만 자고 어서 일어나."라는 의미로 한 말이고, (나)의 "지금 몇 시니?"는 늦은 밤까지 게임을 하는 아들에게 "게임은 그만 하고 이제 자야지."라는 의미로 한 말이다. 따라서 (가)와 (나)의 엄마의 말은 대화가 이루어지는 시간에 따라 그 의미가 달라진 것이다.

05 "양심을 지키세요."라는 문구는 그것이 붙어 있는 장소에 따라 의미가 다르게 해석될 수 있다. 도서관에 붙어 있을 때는 "책을 깨끗이 읽으세요.", "책을 찢지 마세요.", "조용히 하세요." 등의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 오답 풀이** ① 지하철역에 붙어 있을 때 해석할 수 있는 의미이다.
 ③ 시험장에 붙어 있을 때 해석할 수 있는 의미이다.
 ④ 공원에 붙어 있을 때 해석할 수 있는 의미이다.
 ⑤ 노약자석에 붙어 있을 때 해석할 수 있는 의미이다.

06 <보기>를 통해 같은 언어를 사용하더라도 지역적인 차이에 따라 말이 달라짐을 알 수 있다. 만약 안내문을 지역 방언으로만 썼다면, 해당 지역 방언을 모르는 사람은 그 내용을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07 아빠와 딸의 대화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한 이유는 딸이 아빠가 모르는 '남아서 공부한다.'는 뜻의 '남아공'이라는 단어를 사용했기 때문이다.

08 외국인 손님은 우리나라 문화에서 친척이 아니더라도 친근감 있는 어투로 상대를 부를 때 '이모'라는 말을 사용한다는 것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한국인 손님들이 모두 친척 사이라고 오해를 하였다.

09 연설자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인종 차별 문제를 주제로 삼아 평화와 인종 화합을 위해서는 보통 선거가 유일한 길임을 주장하고 있다.

- 오답 풀이** ① 아파트헤이트에 미래가 없다는 내용은 당시 남아프리카 공화국 사람들의 공통된 인식을 언급함으로써 그만큼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현실이 암울하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 제시한 것이다. 이는 연설자가 연설문을 쓴 목적은 아니다.
 ② 인종 차별이 없는 국가를 꿈꾸는 것으로 보아, 연설자는 피부색으로 사람을 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할 것이다.
 ③ 인종 차별이 남아 있으므로 아직 민주주의 국가라고 할 수 없기에 연설자는 인종 차별을 없애 그러한 국가를 만들자고 말하고 있다.
 ⑤ 현재의 상황은 인종 차별 체제가 유지되는 상태를 이야기하므로 연설자는 이러한 상황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10 **서술형** 이 연설문과 같이 특정한 역사적 상황을 배경으로 한 담화는 연설문이 쓰인 당시의 역사적 상황을 알고 있어야 그 내용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다.

1단계 01 상황 맥락 02 (1) 부정행위를 하지 마세요. (2) 무단 횡단을 하지 마세요.

2단계 03 우리의 말 문화를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04 세대 차이로 아빠가 딸이 사용한 낱말의 뜻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05 관용적 표현보다는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표현을 사용해야 한다. / 상대가 알지 못하는 우리 문화를 친절하게 설명해 주어야 한다. / 문화에 따라 사용하는 언어 표현이 다르거나, 표현이 같더라도 서로 다른 뜻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3단계 06 <보기>의 담화가 이루어지는 시간은 '아침', 공간은 '버스'이다. 담화 참여자는 '민재'와 '지우'이며, 담화의 목적은 '양보'이다.

1단계

01 말이나 글이 이루어지는 구체적인 시간과 공간을 상황 맥락이라고 한다. 이러한 상황 맥락은 담화의 뜻뿐만 아니라 표현에도 영향을 미친다.

02 공간(장소)에 따라 사람들이 지켜야 할 양심의 구체적인 내용이 다르므로, 제시된 문구 역시 사용된 공간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다.

2단계

03 우리 문화에서는 뜨거운 탕 요리를 먹으면서 "시원하다."라고 표현을 한다. 이와 같이 문화권에 따라 그 나라만의 관습적인 언어 표현을 사용하기도 하는데, <보기>의 일본 학생은 우리의 말 문화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한국 학생의 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이다.

04 <보기>에서 딸은 남아서 공부한다는 뜻으로 '남아공'이라는 말을 사용하였는데, 그 말의 뜻을 모르는 아빠는 '남아공'을 '남아프리카 공화국'으로 오해하였다. 이처럼 부모님 세대에서는 청소년 세대가 많이 쓰는 줄인 말을 알지 못해 두 사람의 의사소통에 문제가 생긴 것이다.

05 문화에 따라 사용하는 언어 표현이 달라질 수 있다. 외국인은 우리의 말 문화를 잘 알지 못하고, '언니'의 사전적 뜻만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옷 가게 주인이 자신에게 왜 '언니'라고 부르는지를 이해하지 못한 것이다.

3단계

06 담화는 말하는 이, 듣는 이와 같은 담화 참여자, 상황 맥락, 담화 목적 등과 같은 요소로 이루어진다. <보기>를 통해 해당 담화 상황을 이루고 있는 구성 요소를 분석해 보면 된다.

평가 목표	담화의 구성 요소 분석하기
채점 기준	✓ 상황 맥락과 담화 참여자, 담화의 목적을 모두 바르게 쓴 경우 [30점]
	✓ 상황 맥락과 담화 참여자, 담화의 목적 가운데 두 가지만 바르게 쓴 경우 [20점]
	✓ 상황 맥락과 담화 참여자, 담화의 목적 가운데 한 가지만 바르게 쓴 경우 [10점]
	✓ 띄어쓰기나 맞춤법이 잘못되었을 경우 [점씩 감점]

(2) 의미를 나누는 듣기·말하기

간단 복습 문제

- 꼭지 시험 01 의미 02 목적 03 다른 04 적극적
 05 ○ 06 × 07 × 08 ○ 09 ○
 어휘 시험 01 석탑 02 전형 03 전담 04 전개되기
 05 협력 06 타당한 07 ⊖ 08 ⊕ 09 ⊕

06 듣기·말하기 활동은 일방적으로 뜻을 전달하고 전달받는 의사소통 과정이 아니다. 따라서 자신의 생각을 상대방에게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것은 올바른 듣기·말하기 태도라고 볼 수 없으며, 상대의 반응을 살피며 협력적으로 대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07 대화의 화제를 전환하고 싶다고 해서 대화 주제에서 벗어난 이야기를 자주 하는 것은 예의에 어긋난다. 화제를 전환하고 싶을 때에는 먼저 대화 상대의 양해를 구해야 한다.

05 '협상'은 '어떤 목적에 부합되는 결정을 하기 위하여 여럿이 서로 의논함.'을 뜻하고, '협력'은 '힘을 합하여 서로 도움.'을 뜻한다. 제시된 문장은 두 나라가 군사적 측면에서 서로 돕기 위해 방안을 찾기로 했다는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협상'이 아니라 '협력'이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예상 적용 소단원 평가

- 01 ⑤ 02 ② 03 ② 04 ⑤ 05 다른 사람의 것을 지켜 주기 위해 06 ② 07 ④ 08 ③ 09 가는 말이고 와야 오는 말이 곱다

01 상대의 말을 비판적으로 들어야 하는 상황도 있지만, 항상 상대의 말을 비판적으로 듣는 것은 옳지 않다. 또한 상대의 말에 잘못된 점이 있더라도 듣는 즉시 지적하는 것보다는 상대의 말을 끝까지 경청한 후, 상대의 기분이 상하지 않도록 배려하며 문제점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밝히는 것이 바람직하다.

02 여학생과 남학생은 적극적이고 협력적인 자세로 함께 대화 내용을 창조하고 그 의미를 공유하고 있다. 그러나 제시된 대화에서 두 사람이 서로를 설득하는 부분은 찾을 수 없다.

03 강연자는 학생인 듣는 이의 지식수준을 고려하지 않고 '전형', '전담', '옥개석'과 같은 어려운 용어를 사용하였다(㉠, ㉡). 그리고 학생들은 강연을 듣기 전에 강연 주제나 내용을 미리 알아보지 않아 내용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오답 풀이

㉠ 제시된 상황에서 여학생은 강연자가 말한 용어의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있고, 남학생은 강연을 들으며 강의 주제가 '탑'과 관련이 있음을 깨닫는다. 이로 보아 학생들이 강연을 집중해서 듣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강연자는 '탑'을 주제로 하여 강연을 하고 있다. 이 강연에서 강연자는 '탑'에 관한 객관적인 사실을 전달하고 있을 뿐, 자신의 의견이나 주장을 내세우고 있지는 않다.

- 04 아빠는 울타리를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아들에게 울새와 여우를 예로 들어 울타리의 의미를 아들의 눈높이에 맞게 설명해 주었다.
- 05 **서술형** 이 글에서 아빠는 울타리를 세우는 것이 평화로운 전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따라서 뒷부분에는 서로의 영역을 확고히 함으로써 타인과 자신의 피해를 최소화해 주는 울타리의 역할에 대한 설명이 이어지는 것이 자연스럽다.
- 06 ‘영찬’이 ‘차은’의 엄마가 필리핀 사람이라는 소문을 내는 바람에 ‘차은’은 친구들로부터 놀림을 받게 된다. 따라서 이 사건은 ‘차은’의 기분을 안 좋게 만들어 ‘차은’과 엄마의 갈등을 일으키는 근본적인 원인이 된다. 그러나 ‘차은’과 ‘영찬’의 관계 자체가 갈등의 원인은 아니다.
- 07 ‘차은’은 엄마의 성의를 무시하고 자신의 기분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엄마에게 화를 내고 있다. 엄마는 ‘차은’과 대화하기 위해 노력하지만 ‘차은’의 속상한 마음을 위로하지 않은 채 운동화 이야기만 해서 ‘차은’의 기분을 더 상하게 만들었다.
- 08 ‘차은’은 서울로 가서 육상을 하고 싶지만 그것을 반대하는 아버지와, 자신의 엄마가 필리핀 사람이라고 놀리는 친구들 때문에 화가 나 있다. 그러므로 이때에는 짜증 섞인 목소리로 엄마의 말에 대꾸하는 것이 적절하다.
- 09 **서술형** 빈칸에는 자기가 남에게 말이나 행동을 좋게 하여야 남도 자기에게 좋게 한다는 뜻의 속담인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가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고득점

서술형 문제

본문 24~25쪽

- 1단계 01 공유 02 협력적 03 우리나라 석탑에 대한 정보 전달
- 2단계 04 아들은 자신이 원하는 바를 타당한 근거 없이 내세웠다. 엄마는 아들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고, 아들의 의견에 반대하는 근거 또한 타당하게 제시하지 못하였다. 05 처음 만난 친구와는 친밀도가 낮다는 것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농담을 건네야 한다. / 처음 만난 친구와는 친밀도가 낮다는 것을 고려하여 상대가 기분 나쁠 법한 농담은 건네지 말아야 한다. 06 대화 전에는 울타리가 이웃을 갈라놓는다고 생각했지만, 대화 후에는 울타리가 이웃을 하나로 만들어 준다고 생각했다.
- 3단계 07 차은아, 친구들이 사정도 모르면서 놀려서 기분이 좋지 않겠구나. 하지만 엄마는 네가 속상해지는 이유를 모르시니, 엄마께 무척대고 화를 내기보다는 네 속마음을 얘기하면서 함께 고민하면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을 거야.

1단계

- 01 대화는 정해진 방향으로 흘러가는 단선적인 것이 아니라 참여자들의 배경지식, 경험 등에 따라 결정된다. 따라서 듣기·말하기는 말하는 이와 듣는 이가 함께 참여하여 새로운 의미를 만들어 나가고 그 의미를 공유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 02 듣기·말하기는 말하는 이와 듣는 이가 상대와 더불어 내용을 창조하고 그 의미를 공유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대화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력적인 태도로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다.
- 03 <보기>의 강연자는 학생들에게 우리나라의 석탑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초창기의 석탑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2단계

- 04 <보기>는 아들이 주말에 놀이공원에 가자고 엄마를 설득하는 상황이다. 그런데 아들은 엄마를 설득하기 위한 타당한 근거를 제시하지도 않고 원하는 바를 이야기하였다. 엄마는 그러한 아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어린아이도 아니고…….’라는 타당하지 않은 근거를 제시하며 아들의 제안을 거절하였다.
- 05 ‘영서’는 ‘서우’와 처음 만난 사이임에도 상대가 불쾌하게 느낄 수 있는 농담을 한다. 이에 ‘서우’는 ‘영서’의 농담을 가볍게 넘기지 않고 불쾌함을 직접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 06 “그렇다면 그건 전쟁이 아니네요.”라는 아들의 말에서 울타리를 세우는 것에 대한 인식이 바뀌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아들은 아빠와 대화를 하기 전에 울타리를 부정적으로 여겼지만, 아빠와 대화를 나눈 후에는 울타리를 긍정적으로 생각하게 된다.

3단계

- 07 엄마는 ‘차은’의 기분을 풀어 주기 위해 노력한다. 그러나 엄마가 필리핀 사람이라는 이유로 친구들에게 놀림을 받아 기분이 좋지 않던 ‘차은’은 엄마에게 무작정 화를 내면서 대화 분위기를 무겁게 만든다. 따라서 그러한 ‘차은’에게는 ‘차은’이 처한 상황과 기분을 헤아려 준 후에 듣기·말하기 태도와 관련한 조언을 해야 한다.

평가 목표	듣기·말하기 태도에 나타난 문제점을 파악하고, 협력적인 듣기·말하기 태도 조언하기
채점 기준	✓ ‘차은’의 처지와 기분에 공감하는 말과 ‘차은’의 듣기·말하기 태도에 나타난 문제점을 모두 서술한 경우 [30점] ✓ ‘차은’의 처지와 기분에 공감하는 말과 ‘차은’의 듣기·말하기 태도에 나타난 문제점 가운데 하나만 서술한 경우 [15점] ✓ 띄어쓰기나 맞춤법이 잘못되었을 경우 [1점씩 감점]

예상 적중 대단원 평가

본문 26~27쪽

- 01 ④ 02 ① 03 ⑤ 04 ⑤ 05 ③ 06 문화권에 따라 그 나라만의 관습적인 언어 표현을 사용하기도 하는데, 외국인도 이러한 우리의 말 문화를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07 ② 08 (나)의 엄마와 아들은 모두 타당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다. 아들은 놀이공원에 가야 하는 타당한 근거를 들어 엄마를 설득해야 하고, 엄마 역시 아들의 말에 반대하는 근거를 타당하게 제시해야 두 사람의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다. 09 ⑤ 10 “그렇다면 그건 전쟁이 아니네요.”

01 담화는 말하는 이(글쓴이)와 듣는 이(읽는 이)를 포함하여 구체적인 맥락 속에서 이루어지는 발화나 발화의 연속체를 말한다. 담화는 담화 참여자, 전달하려는 내용, 맥락(상황 맥락, 사회·문화적 맥락)으로 구성된다.

02 말하는 이와 듣는 이의 관계에 따라 말의 뜻이 달라진다. (2)는 의사와 환자의 관계에서, (3), (4)는 손님과 신발 가게 점원의 관계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03 말하는 이와 듣는 이의 관계가 달라짐에 따라 “불편하지는 않으세요?”의 의미가 달라졌다. ㉠에서는 ‘팔이 아프지는 않으신가요?’라는 뜻으로, ㉡에서는 ‘신발의 크기가 발에 잘 맞으시나요?’라는 뜻으로 쓰였다.

04 (가)와 (나)의 대화 참여자는 모두 엄마와 아들로, 말하는 이와 듣는 이의 관계가 동일하다. (가)와 (나)는 담화가 이루어지는 시간에 따라 “지금 몇 시니?”의 의미가 달라지고 있다.

05 다른 문화권의 사람과 대화할 때에는, 우리의 문화가 담긴 관용적 표현보다는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표현을 사용하거나, 상대가 이해하지 못하는 우리 문화를 친절하게 설명해 주어야 한다.

06 **서술형** 원래 ‘언니’는 같은 부모에게서 태어난 사이이거나 일가친척 가운데 항렬이 같은 동성의 순위 형제, 혹은 남인 경우에는 자기보다 나이가 위인 여자를 부르는 말이지만, 우리나라 문화에서는 친근감 있는 어투로 상대를 부를 때 ‘언니’를 사용하기도 한다. 하지만 외국인은 우리의 이러한 말 문화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자신에게 ‘언니’라고 호칭하는 것을 어색하게 느낀 것이다.

07 (가)의 학생들은 ‘전형’, ‘전답’과 같은 용어의 뜻과 강의 주제를 모르지만, 그러한 내용을 강연 중에 질문하고 있지는 않다. (가)의 학생들이 지닌 문제점은 강연을 듣기 전에 강연 주제나 내용을 미리 알아보지 않았다는 것이다.

08 **고난도 서술형** 아들은 자신이 원하는 바를 타당한 근거 없이 내세우고 있고, 엄마는 아들의 제안에 반대하는 근거를 타당하게 제시하지 않았다.

평가 목표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듣기·말하기 과정에서 유의할 점 파악하기
채점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엄마와 아들에게 필요한 듣기·말하기 태도를 <조건>에 맞게 쓴 경우 [상] ✓엄마와 아들에게 필요한 듣기·말하기 태도를 썼으나, 서술이 미흡한 경우 [중] ✓엄마와 아들에게 필요한 듣기·말하기 태도를 <조건>에 맞지 않게 쓴 경우 [하]

09 태너 아저씨가 울타리를 세우는 이유는 자신의 영역을 확고하게 함으로써 타인에게 피해를 끼치는 것을 막기 위해서였다. 아들은 아빠의 설명을 듣고 태너 아저씨가 울타리를 세우는 진정한 이유를 알게 되어 ㉡과 같이 말한 것이다.

10 **서술형** 이 글에서 아빠와 아들은 울타리를 세우는 일에 관해 대화를 나누고 있다. 아들은 아빠와 대화하기 전에는 울타리를 부정적으로 생각했으나, 아빠의 설명을 듣고 난 후에는 울타리를 긍정적으로 인식하게 되었다.

3 개성이 드러난 표현

1) 창의적인 발상

간단 복습 문제 본문 29쪽

쪽지 시험 01 가락 02 반대로 03 모순 04 ㉠ 05 ㉡
 06 ㉢ 07 ㉣, ㉤ 08 × 09 ○ 10 × 11 ㉥
 12 ㉦ 13 ㉧
 어휘 시험 01 걸어갈 02 그리던 03 나무라는 04 훗날
 05 한없이 06 스스로 07 ㉨ 08 ㉩ 09 ㉪

- 01 시를 읽을 때 느껴지는 말의 가락을 ‘운율’이라고 한다.
- 02 원래의 뜻과는 반대로 표현하는 것을 ‘반어’라고 한다.
- 03 겉으로는 뜻이 모순되고 이치에 맞지 않는 것 같지만, 그 속에 진리를 담고 있는 표현을 ‘역설’이라고 한다.
- 06 「봄 길」은 역설 표현을 사용하여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희망과 사랑이 있다는 믿음을 강조하고 있다.
- 07 「봄 길」은 의지적이고 단정적인 어조를 사용하여 ‘시련을 극복하고 스스로 사랑을 찾기 위해 노력하는 삶의 태도’라는 주제를 드러내고 있다.
- 08 「면 후일」의 말하는 이는 ‘당신’을 잊을 수 없는 마음을 ‘잊을 노라’라는 시어를 통해 반대로 표현하고 있다.
- 10 「면 후일」은 반어 표현을, 「봄 길」은 역설 표현을 사용하여 말하는 이의 정서를 심화하며 주제를 명확하게 드러내고 있다.

- 01 ‘걸어가다’는 ‘목적지를 향하여 발로 걸어서 나아가다.’라는 의미이고, ‘날아가다’는 ‘공중으로 날면서 가다.’라는 의미이다.
- 02 ‘그리다’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생각하다.’라는 의미이고, ‘잊다’는 ‘한번 알았던 것을 기억하지 못하거나 기억해 내지 못하다.’라는 의미이다.
- 03 ‘나무라다’는 ‘잘못을 꾸짖어 알아들도록 말하다.’라는 의미이고, ‘찾다’는 ‘현재 주변에 없는 것을 얻거나 사람을 만나려고 여기저기를 뒤지거나 살피다.’라는 의미이다.

예상 적률 **소 단 원** 평가 본문 30~31쪽

01 ④ 02 그림움 03 ③ 04 ③ 05 ④ 06 ②
 07 1~6행, 7~9행, 10~14행 08 ② 09 ④ 10 ③
 11 ②

01 (나)에는 애상적인 어조가 나타나 있으며 반어 표현을 활용하여 말하는 이의 심정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당신’과 이별한 슬픔과 그리움만이 나타나 있을 뿐, 미래에 대한 긍정적 의지는 나타나 있지 않다.

02 **서술형** (가)와 (나)에서 '당신'은 말하는 이와 이별한 대상으로, 말하는 이가 아직도 사랑하고 그리워하는 존재이다.

03 (가)의 '있었노라'는 반어로, 실제로는 '있을 수 없다.'는 뜻을 나타낸다. 말하는 이는 이러한 표현을 반복함으로써 당신을 잊을 수 없는 자신의 애뜻하고 간절한 심정을 강조하고 있다.

04 (나)의 말하는 이는 이별한 '당신'에 대한 감정을 반어적으로 표현하여, '당신'을 그리워하는 심정을 더욱 강조하여 표현하였다.

05 ㉓는 원래의 뜻과는 반대로 표현하는 '반어'가 사용되었다. ㉔는 죽어도 눈물을 흘리지 않겠다고 말하면서 실제로는 한 없이 울겠다는 마음을 표현하고 있다.

오답 풀이 ㉑ 서로 이어 주는 말 없이 '무엇은 무엇이다'의 형식으로, 원관념과 보조 관념을 암시적으로 연결시키는 방법인 '은유법'이 쓰였다.

㉒ 사람이 아닌 것을 사람에 비겨 사람이 행동하는 것처럼 표현하는 방법인 '의인법'이 쓰였다.

㉓ 같거나 비슷한 어구를 되풀이하여 의미를 강조하는 표현 방법인 '반복법'이 쓰였다.

㉔ 비슷한 성질이나 모양을 가진 두 사물을 '같이', '처럼', '듯이'와 같은 연결어로 결합하여 직접 비유하는 표현 방법인 '직유법'이 쓰였다.

06 이 시는 비슷한 문장 구조를 반복하여 '시련을 극복하고 스스로 사랑을 찾기 위해 노력하는 삶의 태도'라는 주제를 강조하고 있다(ㄷ). 또한 이러한 주제를 나타내기 위해 시의 분위기를 의지적이고 희망적으로 조성하고 있다(ㄱ).

오답 풀이 나. '수미 상관'은 첫 연을 끝 연에 다시 반복하여 구조적 안정감을 주는 표현 방법인데, 이 시에서는 수미 상관의 형식이 드러나지 않는다.

ㄷ. 시의 표면엔 운율이 드러나는 것은 외형물에 해당한다. 하지만 이 시에서는 외형물이 나타나지 않는다.

07 **서술형** 이 시는 사상의 흐름에 따라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1~6행은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는 사람이 있음.', 7~9행은 '사랑이 끝난 절망적인 상황이 찾아옴.', 10~14행은 '사랑이 끝난 곳에서도 사랑을 베푸는 사람이 있음.'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08 [A]에서는 강물이 멈추고, 새들은 돌아오지 않으며, 세상의 모든 꽃잎이 흩어지는 부정적인 상황을 차례로 제시하여, 사랑이 끝난 절망적인 상황이 찾아온 것을 표현하고 있다.

09 ㉑은 어떤 상황에서도 희망과 사랑을 품은 채로 깨끗하게 살아가는 삶의 태도를 지닌 사람을 의미한다. ㉔의 경우는 자신의 목표를 위해 열심히 공부를 하지만, ㉑과 같은 삶의 태도와 관련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10 ㉓와 ㉔는 사랑이 끝난 절망적인 공간을 의미하고, ㉕, ㉖, ㉗는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다른 이에게 사랑을 베푸는 사람을 의미한다.

11 이 시의 시인은 길이 끝나고 사랑이 끝나는 상황에서도 아직 사랑으로 남아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강조하며,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희망과 사랑이 존재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고득점 서술형 문제

본문 32~33쪽

1단계 01 잊었노라 02 당신이V속으로V나무라면 / '무척V그리다가V있었노라' 03 먼 훗날 당신이 찾으시면 04 보라 05 봄 길

2단계 06 '잊지 못하리라'라고 바꾸어 표현하면 말하는 이의 진심이 원래 시의 내용보다 덜 절실하게 느껴진다. 또한 말하는 이가 '당신'을 그리워하는 절절한 마음도 잘 느껴지지 않는다. 07 (가)에서는 같은 음보의 반복, 같은 문장 구조의 반복, 같은 시어의 반복을 통해 애상적인 분위기와 정서를 심화한다. 08 ㉑: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는 사람 / ㉒: 희망이 없는 고통만 남은 곳에서도 다른 이에게 사랑을 베푸는 사람

3단계 09 (가)의 ㉓와 <보기>의 밑줄 친 부분에서는 원래의 뜻과는 반대로 표현하는 반어를 활용하였다. (가)와 <보기>의 말하는 이는 현재 '당신'과 이별한 상황으로, (가)의 ㉓에서는 '당신을 잊었다.', <보기>의 밑줄 친 부분에서는 '당신이 그리지 않고, 보고 싶은 마음도 없다.'라고 자신의 속마음과 반대로 표현하여 '당신'에 대한 애뜻하고 간절한 그리움을 강조하고 있다. 10 (나)에서는 겉으로는 뜻이 모순되고 이치에 맞지 않는 것 같지만, 그 속에 진리를 담고 있는 표현인 역설을 활용하였다. 이를 통해 '절망적인 상황일 지라도 희망과 사랑이 있다.'라는 삶의 진리를 나타내고 있다.

1단계

01 (가)에서는 '있었노라'라는 시어를 반복적으로 제시하여, '당신을 잊을 수 없다.'라는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02 (가)는 3음보의 민요적 율격을 통해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

03 (가)의 말하는 이는 '당신'과 이별하고 '당신'을 그리워하고 있는데, '먼 훗날 당신이 찾으시면'이라는 시구를 통해 '당신'이 다시 자신을 찾아올 상황을 가정하고 있다.

04 7~9행까지는 사랑이 끝난 절망적인 상황을 보여 주다가, 10행에서 명령형 어미를 통해 시의 흐름을 전환시킨 후 11~14행에서 사랑이 끝난 곳에서도 사랑을 베푸는 사람이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05 '봄'은 만물이 소생하는 희망의 계절을, '길'은 긍정적인 희망적인 가치를 표현한다. 이러한 '봄'과 '길'이 합쳐진 '봄 길'은 희망적인 미래와 긍정적인 가치를 의미한다.

2단계

06 말하는 이의 속마음을 반대로 서술한 '있었노라'는 읽는 이에게 강한 인상을 주면서 '당신'을 잊지 못하는 말하는 이의 진심을 절실하게 나타낸 표현이다. 또한 이별한 '당신'을 그리워하는 말하는 이의 마음도 절절하게 나타내고 있다. 그런데 ㉑을 평범하고 일상적인 표현으로 바꾼다면 말하는 이의 진심과 절절한 마음이 잘 느껴지지 않게 된다.

07 (가)는 3음보의 율격의 반복과 '~면 ~ 잊었노라'와 같은 미래 상황을 가정하는 문장 구조의 반복, 또한 '있었노라'라는 시어의 반복을 통해 애상적인 분위기와 정서를 심화한다.

08 ㉔와 ㉕의 '길이 끝나는 곳'과 '사랑이 끝난 곳'은 '사랑이 끝난 절망적인 공간'을 의미한다. 이러한 곳에서도 '길이 되는 사람'과 '사랑으로 남아 있는 사람'은, 각각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는 사람', '희망이 없는 고통만 남은 곳에서도 다른 이에게 사랑을 베푸는 사람'을 의미한다.

3단계

09 반어는 원래의 뜻과는 반대로 표현하는 것으로, 이를 활용하면 강한 인상을 주거나 그 안에 담긴 진심을 강조할 수 있다. (가)와 <보기>의 말하는 이는 '당신'과 이별한 상황으로, 말하는 이가 자신의 속마음을 반어로 표현하여 '당신'에 대한 사랑과 그리움을 더욱 애뜻하고 간절하게 드러내고 있다.

평가 목표	반어의 개념과 그 효과 이해하기
채점 기준	✓ 표현 방법의 이름과 그 정의를 쓰고, 이를 통해 얻을 수 있는 효과를 모두 바르게 쓴 경우 [20점]
	✓ 표현 방법의 이름과 그 정의를 썼으나, 이를 통해 얻을 수 있는 효과를 쓰지 못한 경우 [10점]
	✓ 서술한 항목의 내용이 미흡한 경우 [5점씩 감점]
	✓ 띄어쓰기나 맞춤법이 잘못되었을 경우 [1점씩 감점]

10 역설은 겉으로는 뜻이 모순되고 이치에 맞지 않는 것 같지만 그 속에 진리를 담고 있는 표현이다. 역설을 사용하면 읽는 이가 그 안에 담긴 의미를 스스로 찾게 함으로써 내면의 의미를 강조할 수 있고, 읽는 이에게 삶의 진리를 깨닫게 할 수 있다. (나)에서는 세 번의 역설을 통해 '절망적인 상황일지라도 희망과 사랑이 있다.'라는 삶의 진리를 표현하고 있다.

평가 목표	역설의 개념과 그 효과 이해하기
채점 기준	✓ 표현 방법의 이름과 그 정의를 쓰고, 이를 통해 깨달을 수 있는 삶의 진리를 모두 바르게 쓴 경우 [20점]
	✓ 표현 방법의 이름과 그 정의를 썼으나, 이를 통해 깨달을 수 있는 삶의 진리를 쓰지 못한 경우 [10점]
	✓ 서술한 항목의 내용이 미흡한 경우 [5점씩 감점]
	✓ 띄어쓰기나 맞춤법이 잘못되었을 경우 [1점씩 감점]

[2] 비판적인 표현

간단 복습 문제

본문 35쪽

- 꼭지 시험 01 풍자 02 모순, 불합리한 03 서술자 04 1인칭
 05 사실시조 06 ○ 07 × 08 ○ 09 × 10 ×
 11 ㉔ 12 ㉕, ㉖ 13 ㉗
 어휘 시험 01 조행 02 소견 03 위엄 04 영락없이
 05 일없다 06 파면

01 사실을 곧이곧대로 드러내지 않고 과장하거나 왜곡하고, 비꼬아서 표현하여 웃음을 유발함으로써, 현실의 부정적 현상이나 모순을 폭로하는 것을 '풍자'라고 한다. '반어'는 원래의 뜻과는 반대로 표현하는 것을 말한다.

03 글쓴이가 소설 속에 내세운 대리인으로 글쓴이를 대신하여 허구적인 이야기를 전달하는 존재를 '서술자'라고 한다.

05 사실시조는 평시조보다 초장·중장이 제한 없이 길며, 중장도 길어진 시조이고, 연시조는 두 개 이상의 평시조가 하나의 제목으로 엮여 있는 시조이다.

13 「두꺼비 파리를 물고 ~」에서 '파리'는 '힘없는 백성'을 상징하고, '두꺼비'는 '지방의 탐관오리'를, '백송골'은 '중양의 고위 관료'를 상징한다.

04 '영락없이'는 '조금도 틀리지 아니하고 꼭 들어맞게'라는 의미이고, '자상히'는 '찬찬하고 자세히'라는 의미이다.

05 '일없다'는 '소용이나 필요가 없다.'라는 의미이고, '애달프다'는 '마음이 안타깝거나 쓰라리다.'라는 의미이다.

06 '항복'은 '적이나 상대방의 힘에 눌리어 굴복함.'이라는 의미이고, '파면'은 '잘못을 저지른 사람에게 직무나 직업을 그만두게 함.'이라는 의미이다.

예상 적중 소 단 원 평가

본문 36~37쪽

- 01 ㉔ 02 ㉕ 03 서술자는 어린아이로, 순진무구하다.
 04 ㉖ 05 ㉗ 06 ㉘ 07 박 선생님, 두꺼비 08 ㉙
 09 ㉚ 10 ㉛

01 (가)에서는 '박 선생님'의 외양을 우스꽝스럽게 표현하여, 읽는 이의 웃음을 유발하고 있다.

02 '박 선생님'은 일본이 패망하기 전에는 친일적인 성향을 보이다가 일본이 패망하자 미국을 추종하고 찬양한다. 이를 통해 그가 정세에 따라 이로운 쪽으로 행동하는 기회주의적인 성향을 알 수 있다.

03 서술형 (마)에는 '나'가 '박 선생님'에게 미국에도 '텐노헤이'가 있느냐고 묻고, 그렇게 묻은 까닭이 나타나 있다. 이를 통해 서술자인 '나'가 세상의 물정을 모르는 어린아이이며, 순진무구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04 '박 선생님'이 ㉔처럼 행동한 이유는 '나'와 상준이 조선말을 썼기 때문이다.

05 ㉕은 일본이 패망한 사실을 알게 된 '대석 언니'가 일본을 추종하는 '박 선생님'을 놀리기 위해 의도적으로 한 말이다.

06 이 글은 해방 전후의 혼란한 상황 속에서 기회주의적으로 행동하는 인물을 '나'라는 서술자의 시각에서 비판하고 있다. 이처럼 소설에서 주인공의 주변 인물인 '나'가 주인공을 관찰하여 이야기를 전달하는 것을 '1인칭 관찰자 시점'이라고 한다.

오답 풀이

- ① (가)~(다)는 소설로, 소설은 현실에 있음직한 일을 작가가 상상하여 꾸며 낸 이야기이다.
 ② (가)~(다)는 해방 전후, 어느 초등학교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제시하고 있다.

③ (가)~(다)는 부정적인 인물에 대해 비판적인 태도를 취하면서, 기회주의적으로 행동하는 '박 선생님'을 풍자하고 있다.

⑤ (가)~(다)에는 인물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갈등인 '내적 갈등'은 나타나지 않는다.

07 서술형 (가)~(다)에서는 '박 선생님'이라는 인물을 통해 해방 전후의 혼란한 시기에 자신에게 이로운 쪽으로만 행동하는 기회주의적인 인물, (라)에서는 '두꺼비'를 통해 약한 사람을 괴롭히면서 강한 사람에게는 굽실거리는 인물을 비판하고 있다.

08 (라)에서는 '두꺼비'를 통해 약한 상대인 일반 백성에게는 가혹하고, 강한 상대인 중앙의 고위 관료에게는 굽실거리는 탐관오리의 횡포와 이중성을 풍자하고 있다.

09 ㉠은 두엄 아래로 자빠진 '두꺼비'가 자신의 실수에 대해 허세를 부리며 변명하는 부분이다. 따라서 '실속은 없으면서 큰소리치거나 허세를 부림.'을 의미하는 '허장성세(虛張聲勢)'가 이 상황과 어울린다.

오답 풀이 ① '견물생심(見物生心)'은 어떠한 실물을 보게 되면 그것을 가지고 싶은 욕심이 생긴다는 의미이다.

② '어두육미(魚頭肉尾)'는 물고기는 머리 쪽이 맛이 있고 짐승 고기는 꼬리 쪽이 맛이 있다는 의미이다.

③ '장삼이사(張三李四)'는 장씨(張氏)의 셋째 아들과 이씨(李氏)의 넷째 아들이라는 뜻으로, 이름이나 신분이 특별하지 않은 평범한 사람들을 이르는 말을 의미한다.

⑤ '허허실실(虛虛實實)'은 허를 찌르고 실을 꺾는 계책을 의미한다.

10 ㉡는 '두꺼비'한테 수탈과 괴롭힘을 당하는 존재로, '힘없는 백성'을 상징한다.

고득점 서술형 문제

본문 38~39쪽

1단계 **01** 인물 **02** 외양 **03** 일본, 일이다 **04** 강 선생님 **05** (나): 일본, (라): 미국

2단계 **06** '강 선생님'은 일제의 조선어 말살 정책에 저항하여 되도록 조선말을 사용하려고 노력하였다. **07** '박 선생님'은 일본이 패망하고 조선이 광복한 후에 미국의 영향력이 커지자 개인적인 이익을 얻기 위해 미국 말을 공부했다. **08** '나'는 일제 강점기에는 일본을 찬양하고, 조선이 광복한 후에는 미국을 찬양하는 '박 선생님'의 기회주의적인 태도를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박 선생님'을 '이상한 선생님'이라고 평가했다.

3단계 **09** 상황을 정확하게 판단하지 못하고 판단이 미숙하여 웃음을 유발하면서 읽는 이와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다. 또한 부정적인 인물에 대해 효과적으로 비판할 수 있어 현실의 부정적 현상이나 모순을 폭로하는 풍자의 효과를 높일 수 있다. **10** 이 글에는 '박 선생님'의 기회주의적인 태도가, <보기>에는 '두꺼비'의 허장성세가 나타난다. 대상의 이러한 부정적인 면을 비판하기 위해 '박 선생님'의 외양과 행동, '두꺼비'의 행동을 우스꽝스럽게 표현하면서 풍자하고 있다.

1단계

01 소설 구성의 3요소는 '인물, 사건, 배경'인데, (가)에서는 '인물'에 대한 소개가 중점적으로 나타나 있다.

02 (가)에서는 '박 선생님'의 외양을 우스꽝스럽게 표현하여 웃음을 유발하고 있다. 이것은 풍자하려는 대상의 특징을 본래보다 과장해서 표현하거나 의도적으로 우스꽝스럽게 묘사하는 방식에 해당한다.

03 (가)에서 '박 선생님'은 혈서로 지원병을 지원했다가 키 때문에 낙방이 되었다고 하였다. '지원병'은 '스스로 입대를 원한 병사'를 의미하며, 일제 강점기에 일본군에 지원했다는 것에서 '박 선생님'의 친일적인 성향을 알 수 있다.

04 '박 선생님'은 일제의 정책에 동조하여 자신은 물론 학생들에게도 일본 말을 하도록 강요했지만, '강 선생님'은 일본 말이 서툴다는 핑계를 대며 조선말을 하곤 했다.

05 (나)에서 '박 선생님'이 조선말을 쓰는 학생들에게 심하게 벌을 주는 것으로 보아 그가 일본을 추종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라)에서는 미국에 협력하여 통역을 하는 모습을 통해 그가 미국을 추종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단계

06 (다)에서 '강 선생님'은 '박 선생님'과 달리 조선말 사용에 대해 아무 시비도 하지 않고, 가급적 조선말을 사용했다고 했다. <보기>의 시대적 상황을 고려할 때, '강 선생님'은 일제의 '조선어 말살 정책'에 저항하기 위해 조선말을 사용하려고 노력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07 '박 선생님'은 일제 강점기에는 친일적인 모습을 보이다가, 일본이 패망하고 미국의 영향력이 커지자 개인적인 이익을 얻기 위해서 미국 말을 공부한다. 일 년 정도 미국 말을 공부한 '박 선생님'은 자신의 의도대로 미군에 협력하여 통역을 하면서 미국 양복을 얻어 입고, 미국 통조림이랑 과자를 얻어먹는 등의 이익을 얻게 된다.

08 '박 선생님'은 일제 강점기에는 일본의 정책에 동조하며 일본을 찬양하다가, 조선이 광복한 이후에는 미국 말을 배우고 미국을 찬양하는 기회주의적인 모습을 보인다. 이러한 '박 선생님'의 행동은 아직 판단이 미숙한 어린아이인 '나'가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기에 '박 선생님'을 '이상한 선생님'이라고 평가한 것이다.

3단계

09 소설 속의 서술자가 1인칭인 '나'이면서 '어린아이'일 경우에는, 소설 속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판단이 미숙한 경우가 많다. 따라서 서술자가 사건을 엉뚱하게 파악하거나 인물의 행동에 대해 이해하지 못하여 웃음을 유발함과 동시에, 비판하려는 대상의 부정적인 면모를 부각할 수 있다. 이러한 기능을 통해 현실의 부정적 현상이나 모순을 폭로하는 풍자의 효과를 높일 수 있다.

평가 목표	서술자의 특징과 효과 이해하기
채점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술자가 어린이이일 경우 얻을 수 있는 효과를 '풍자'와 관련지어 서술한 경우 [20점] ✓ 서술자가 어린이이일 경우 얻을 수 있는 효과를 서술했으나, '풍자'와 관련짓지 못한 경우 [10점] ✓ <조건>에 맞지 않게 쓴 경우 [5점씩 감점] ✓ 띄어쓰기나 맞춤법이 잘못되었을 경우 [1점씩 감점]

10 이 글에서는 시류에 따라 힘이 있는 쪽에 붙어서 자신의 이익을 취하는 기회주의적인 '박 선생님'을, <보기>는 약한 사람을 괴롭히지만 강한 사람에게는 꺾잡 못하면서 허세를 부리는 '두꺼비'의 모습을 우스꽝스럽게 표현하고 풍자하고 있다.

평가 목표	대상의 속성과 풍자 방식 이해하기
채점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의 속성과 그것을 비판하기 위해 공통적으로 사용한 표현 방법을 모두 바르게 쓴 경우 [25점] ✓ 대상의 속성과 그것을 비판하기 위해 공통적으로 사용한 표현 방법 중에서 한 가지만 쓴 경우 [15점] ✓ <조건>에 맞지 않게 쓴 경우 [5점씩 감점] ✓ 띄어쓰기나 맞춤법이 잘못되었을 경우 [1점씩 감점]

(3) 개성을 살리는 글다듬기

간단 복습 문제

본문 41쪽

- 꼭지 시험** 01 고쳐쓰기 02 낱말, 글 03 추가, 재구성
 04 ○ 05 × 06 ○ 07 ㉠ 08 ㉡, ㉢ 09 ㉠
 10 ㉢ 11 ㉠ 12 ㉠ 13 ㉢ 14 ㉢
어휘 시험 01 생각 02 즐겼다 03 튼튼해야 04 먹먹
 05 틈새 06 다행히 07 부화

03 고쳐쓰기의 일반 원리에는 새로운 내용을 덧붙이는 '추가', 불필요한 내용을 빼는 '삭제', 그 위치에서 다른 내용으로 바꾸는 '대치', 앞뒤 순서를 바꾸거나 몇 부분을 하나로 줄이거나 늘이면서 내용을 조정하는 '재구성'이 있다.

05 고쳐쓰기의 '삭제'는 불필요한 내용을 빼는 것을 의미하고, 새로운 내용을 덧붙이는 것은 '추가'라고 한다.

01 '기억'은 '이전의 인상이나 경험을 의식 속에 간직하거나 도로 생각해 낸.'을 의미하고, '생각'은 '어떤 일을 하려고 마음을 먹음. 또는 그런 마음'을 의미한다.

02 '조르다'는 '다른 사람에게 차지고 끈덕지게 무엇을 자꾸 요구하다.'라는 의미이고, '타이르다'는 '잘 깨달도록 일의 이치를 밝혀 말해 주다.'라는 의미이다.

03 '모질다'는 '기세가 몹시 매섭고 사납다.'라는 의미이고, '튼튼하다'는 '사람의 몸이나 뼈, 이 따위가 단단하고 굳세거나, 병에 잘 걸리지 아니하는 힘을 가지고 있다.'라는 의미이다.

04 '막막하다'는 '쓸쓸하고 고요하다.'나 '의지할 데 없이 외롭고 답답하다.'라는 의미이고, '먹먹하다'는 '체한 것같이 가슴이 답답하다.'라는 의미이다.

예상 적중 소 단 원 평가

본문 42쪽

- 01 ③ 02 ⑤ 03 ⑤ 04 ⑤

01 이 글은 글쓴이가 초등학교 2학년 때 겪었던 병아리 '민들레'와의 추억을 일정한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표현한 수필이다.

오답 풀이 ① 이 글은 '민들레'라는 중심 소재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는 글이 아니라 병아리 '민들레'와의 추억과 '민들레'에 대한 그리움을 표현한 수필이다.

② (가)와 (나)의 내용으로 볼 때, 병아리 '민들레'와의 사건은 글쓴이가 초등학교 2학년 때 있었던 일이다. 따라서 글쓴이가 현재 겪고 있는 사건이 아니다.

④ 주장이나 의견을 타당한 근거를 들어 논리적으로 전달하는 글은 논설문에 대한 설명이다.

⑤ 수필은 글쓴이가 직접 겪은 일이나 느낀 점에 대해 자유롭게 쓰는 글이다. 글쓴이가 상상력을 발휘하여 현실에 있음직한 이야기를 꾸며 쓰는 글은 소설이다.

02 높임 표현이 적절하지 않은 문장은 (라)에 사용되지 않았다. (라)에는 불필요하게 긴 문장인 '우리가 ~ 수밖에 없었다.'가 쓰였으므로 이 문장을 적절히 나누고 다듬어야 한다.

오답 풀이 ① (다)에는 '민들레'를 방 안에서 기르고 싶어 하던 '나'의 모습이 나타나고, (라)에는 병아리를 집으로 데려온 날 병아리에게 '민들레'라는 이름을 지어 준 이유가 나타난다. 따라서 내용의 흐름상 (다)와 (라)의 순서를 바꾸는 것이 적절하다.

② (다)의 '나는 비가 오면 엄마 몰래 민들레를 방 안에 데리고 올 것이다.'는 시제가 맞지 않는 문장이다. 과거의 일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데리고 올 것이다'와 같이 미래의 일로 표현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나는 비가 오면 엄마 몰래 민들레를 방 안에 데리고 왔다.'로 고쳐 써야 한다.

③ (다)의 '당시 나는 동생과 한방을 써서 조금 불편했다.'는 앞의 내용과 이어지지 않으므로 삭제하는 것이 적절하다.

④ (라)의 '우리가 ~ 수밖에 없었다.'는 불필요하게 긴 문장이어서 문장 전체의 뜻을 이해하기 어렵다.

03 '벌어져 난 틈의 사이'를 의미하는 단어는 '틈새'가 아니라 '틈새'이다.

오답 풀이 ① '기억'은 '이전의 인상이나 경험을 의식 속에 간직하거나 도로 생각해 낸.'을 뜻한다. 문장의 맥락상 '어떤 일을 하려고 마음을 먹음. 또는 그런 마음'을 뜻하는 '생각'이 적절하다. '추억'은 '지난 일을 돌이켜 생각함. 또는 그런 생각이나 일'을 의미한다.

② '모른체하고'는 '모른 체하고'라고 띄어 쓰는 것이 적절하다.

③ '타이르다'는 '잘 깨달도록 일의 이치를 밝혀 말해 주다.'라는 의미로, 어린이인 글쓴이가 엄마에게 떼를 쓰는 상황에는 '다른 사람에게 차지고 끈덕지게 무엇을 자꾸 요구하다.'라는 의미의 낱말인 '조르다'가 적절하다. '가르치다'는 '지식이나 기능, 이치 따위를 깨닫게 하거나 익히게 하다.'라는 의미이다.

④ '다행히'는 맞춤법에 맞게 '다행히'로 바꾸는 것이 적절하다.

04 '재구성'은 앞뒤 순서를 바꾸거나, 몇 부분을 하나로 줄이면서 내용을 조정하거나, 몇 부분을 늘이면서 내용을 조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고득점 서술형 문제

본문 43쪽

- 1단계 01 고쳐쓰기 02 추가, 삭제, 대치, 재구성
 2단계 03 · 고쳐 쓸 내용: 한 할머니께서 병아리를 나누어 주는 걸 보았다. / · 고친 표현: 한 할머니께서 병아리를 나누어 주시는 걸 보았다. 04 덮어 → 덮여, 타이르기 → 조르기
 3단계 05 · 어색한 까닭: '전혀'는 주로 부정을 뜻하는 낱말과 함께 쓰이는 부사어인데, '보였고'라고 하여 부사어와 서술어의 호응이 맞지 않기 때문이다. / · 고친 표현: 민들레는 일어날 김새를 전혀 보이지 않았고, 결국 우리 곁을 떠났다. 06 · 읽기 불편한 까닭: 문장이 너무 길어서 문장 전체의 뜻을 이해하며 읽기에 어렵다. / · 고친 표현: 우리가 "민들레!" 하고 부르면 민들레는 자기 이름을 알아듣고 우리 곁으로 다가왔다. 그러고는 우리 곁을 맴돌면서 삐악삐악 노래를 불렀다. 그런 민들레의 모습은 정말 귀엽고 사랑스러웠다.

1단계

- 01 자신이 쓴 글의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아 다시 쓰는 일을 '고쳐쓰기'라고 한다. 글의 주제나 글을 쓴 목적에 맞게 고쳐쓰기를 하면 읽는 이가 더 쉽게 내용을 이해할 수 있다.
 02 고쳐쓰기의 일반 원리는 새로운 내용을 덧붙이는 '추가', 불필요한 내용을 빼는 '삭제', 그 위치에서 다른 내용으로 바꾸는 '대치', 앞뒤 순서를 바꾸거나 몇 부분을 하나로 줄이거나 늘이면서 내용을 조정하는 '재구성' 등이 있다.

2단계

- 03 '한 할머니께서 병아리를 나누어 주는 걸 보았다.'는 높임 표현을 잘못 사용한 문장이다. 이 문장에서 '주는'을 '주시는'으로 고쳐 써야 바른 문장이 된다.
 04 '덮어'는 '덮여'를 잘못 쓴 것이다. '타이르다'는 '잘 깨닫도록 일의 이치를 밝혀 말해 주다.'라는 뜻으로 어린아이인 '나'가 '엄마'에게 쓸 수 있는 낱말이 아니다. '조르다'는 '다른 사람에게 차지고 끈덕지게 무엇을 자꾸 요구하다.'라는 뜻으로, '나'가 엄마에게 떼를 쓰는 상황에 적합한 낱말이다.

3단계

- 05 <보기>의 밑줄 친 문장에 있는 '전혀'는 주로 부정하는 뜻을 나타내는 낱말과 쓰여 '도무지', '아주', '완전히'의 뜻을 나타낸다. 따라서 밑줄 친 문장에서 '전혀'와 함께 쓰인 '보였고'를 '보이지 않았고'로 바꾸어 써야 한다.

평가 목표	문장 수준에서 고쳐 쓰는 방법 이해하기
채점 기준	✓ <보기>의 밑줄 친 부분이 어색한 까닭을 쓰고, 이를 바르게 고쳐 쓴 경우 [20점]
	✓ <보기>의 밑줄 친 부분이 어색한 까닭과 이를 바르게 고쳐 쓴 것 중에서 한 가지만 쓴 경우 [10점]
	✓ <조건>에 맞지 않게 쓴 경우 [5점씩 감점]
	✓ 띄어쓰기나 맞춤법이 잘못되었을 경우 [1점씩 감점]

- 06 <보기>의 밑줄 친 문장은 길이가 너무 길어 내용을 파악하기 어렵다. 이런 경우에는 문장의 내용을 몇 가지로 나누어 정리하는 것이 좋다.

평가 목표	문장 수준에서 고쳐 쓰는 방법 이해하기
채점 기준	✓ <보기>의 밑줄 친 문장이 읽기 불편한 까닭을 쓰고, 이를 읽기 쉽게 바르게 고쳐 쓴 경우 [30점]
	✓ <보기>의 밑줄 친 문장이 읽기 불편한 까닭과 이를 읽기 쉽게 고쳐 쓴 것 중에서 한 가지만 쓴 경우 [15점]
	✓ <조건>에 맞지 않게 쓴 경우 [5점씩 감점]
	✓ 띄어쓰기나 맞춤법이 잘못되었을 경우 [1점씩 감점]

예상 적중 대단원 평가

본문 44~47쪽

- 01 ⑤ 02 ② 03 ④ 04 ② 05 ③ 06 ⑤ 07 ①
 08 ⑤ 09 ⑤ 10 ④ 11 '그 후로~'를 기점으로 문단을 나눈다. / '그 후로~'를 기점으로 앞부분은 과거에 있었던 '민들레'와의 추억을 회상하는 장면이고, 뒷부분은 현재의 시간으로 돌아와 강아지를 발견한 뒤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장면이기 때문이다.
 12 ② 13 ④ 14 의지적이고 단정적인 어조를 사용하였다.
 15 ① 16 ③

- 01 (가), (나)와 같은 시를 감상할 때에는, 시에 쓰인 표현 방법과 효과를 고려하면서 시에서 다루는 대상에 대한 말하는 이의 태도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02 (가)의 말하는 이는 현재 사랑하는 '당신'과 이별한 상황이며, '당신'을 그리워하며 잊지 못하는 마음을 '잊었노라'라며 반대로 표현하고 있다.
 03 (나)는 일상생활에서 흔히 쓰는 평범한 단어를 활용하여 시의 내용을 표현하고 있다.

오답 풀이

- ①, ② 3~6행과 11~14행은 비슷한 문장 구조로, 이를 통해 '시련을 극복하고 스스로 사랑을 찾기 위해 노력하는 삶의 태도'라는 주제를 강조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주제를 나타내기 위해 의지적이고 단정적인 어조를 사용하고 있다.
 ③ 이 시는 절망적인 상황일지라도 희망과 사랑이 있다는 믿음을 강조하고 있으므로, 어려운 상황에 처한 사람이 이 시를 감상한다면 더 깊은 감동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⑤ 10행의 '보라'는 시상을 전환하며, 명령형을 사용하여 절망적인 상황에서 희망이 존재한다는 말하는 이의 태도를 나타내고 있다.
 04 ①은 원래의 뜻과는 반대로 표현하는 반어로, 말하는 이의 속마음은 '당신을 잊을 수 없다.'는 것이다.
 05 ⑥는 겉으로는 뜻이 모순되고 이치에 맞지 않는 것 같지만, 그 속에 진리를 담고 있는 표현인 '역설'이 사용된 부분이다.

오답 풀이

- ①, ② ③은 표현된 내용과는 다른 '오늘도 어제도 아니 있고 / 먼 훗날 그때에도 잊지 못하리라'라는 뜻을 나타낸다. 이처럼 반어는 실제와 다르게 표현하는 것으로, 그대로 말하는 것보다 강한 인상을 줄 수 있다.
 ④ ⑥는 역설을 활용한 표현으로, 역설 표현을 활용하면 읽는 이가 그 안에 담긴 의미를 스스로 찾게 함으로써 내면의 의미를 강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참신한 느낌을 줄 수 있다. 또한 읽는 이에게 신선한 충격을 줌으로써 삶의 진리를 깨닫게 할 수 있다.

⑤ 시에서 ㉔와 ㉕ 같은 반어나 역설을 활용하면, 읽는 이에게 깊은 인상을 주고 시의 내용에 집중하게 함으로써, 작가의 의도를 강조하면서 주제를 효과적으로 드러낼 수 있다.

06 작가는 우스꽝스러운 외모를 지닌 '박 선생님'과 순한 외모에 유순한 성격을 지닌 '강 선생님'을 대조적으로 제시하여, '박 선생님'에 대한 부정적인 인상을 부각하고 있다.

07 '박 선생님'은 해방 전에는 일본군의 지원병에 지원하며 일본에 충성하고, 해방 후에는 영향력이 커진 미국을 추종하며 찬양한다. 이처럼 그때그때의 상황에 따라 자신이 이로운 쪽을 따라 행동하는 사람을 '기회주의자'라고 한다.

08 '나'는 해방 전에는 일본에 충성하며 일본을 찬양했다가 해방 후에는 미국을 추종하며 찬양하는 '박 선생님'을 이해하지 못하고 '이상한 선생님'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09 이 글에서 글쓴이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박 선생님'과 같은 인물 유형을 통해 해방 전후 혼란한 사회 상황 속에서 기회주의적으로 행동하는 인물을 비판하려는 것이다.

10 (라)에는 '민들레'를 방에서 기르고 싶어 하던 '나'의 모습이 나타나 있는데, 이는 병아리 '민들레'와의 추억과 '민들레'에 대한 그리움이라는 이 글의 주제와 관련이 있는 문단이다.

11 **고난도 서술형** (마)의 내용은 '그 후로~'를 기점으로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앞부분은 과거의 시점에서 '민들레'와의 추억을 회상하고 있으며, 뒷부분은 현재의 시점에서 강아지의 주인을 찾고 '민들레'와의 추억을 오랫동안 간직할 것임을 다짐하고 있다.

평가 목표	문단 수준에서 고쳐 쓰는 방법 이해하기
채점 기준	✓(마)를 두 부분으로 나누고, 그 까닭을 시간과 관련된 내용으로 쓴 경우 [상]
	✓(마)를 두 부분으로 나누었으나, 그 까닭을 시간과 관련된 내용으로 쓰지 못한 경우 [중]
	✓(마)를 두 부분으로 나누었으나, 그 까닭을 쓰지 못한 경우 [하]

12 제시된 내용은 고쳐쓰기의 점검 수준 중에서 낱말 수준에 해당한다. ㉔은 앞의 내용이 뒤의 내용의 원인이나 근거, 조건 따위가 될 때 쓰는 접속 부사인 '그래서'로 바꿔 써야 한다. ㉕은 낱말에 해당하지만 문장 전체를 어색하게 만드는 요소로, 이것을 고치면 문장 수준의 고쳐쓰기에 해당한다.

13 (라)는 소설의 결말 부분으로, 결말에서는 갈등이 해소되고 사건이 해결되며 인물의 운명이 결정된다.

14 **서술형** (나)는 '길이 있다', '길이 되는 사람이 있다'와 같이 종결 어미 '-다'를 사용하여 의지적이고 단정적인 어조를 드러내고 있다.

15 ㉔은 '대석 언니'가 일본을 맹신하던 '박 선생님'을 놀리기 위해 한 말이고, ㉕은 일본의 패망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박 선생님'의 심리가 나타난 말이다.

16 ㉔은 소설 속 서술자인 '나'의 시선으로 '박 선생님'의 말을 회화화하여 나타낸 것으로, '박 선생님'의 지식의 깊이와는 관계가 없다.

4 더 쉽게 더 정확하게

1) 다양한 설명 방법

간단 복습 문제

본문 49쪽

- 꼭지 시험** 01 객관적인 02 처음 03 호모, 분해 04 ×
 05 ○ 06 ○ 07 ㉔ 08 ㉔ 09 ㉔ 10 ㉔ 11 ㉔
어휘 시험 01 증식 02 촉진 03 억제 04 풍성한
 05 비결 06 감칠맛 07 숙성 08 ㉔ 09 ㉔ 10 ㉔

02 설명하는 글의 처음 부분에서는 설명 대상을 소개하고, 글을 쓰게 된 동기, 글의 목적 등을 밝힌다. 그리고 가운데 부분에서는 적절한 설명 방법을 활용하여 대상을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04 어떤 대상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 나누어 설명하는 방법은 '분류'이고, 하나의 대상을 몇 개의 부분이나 구성 요소로 나누어 설명하는 방법은 '분석'이다.

06 김치의 젓산균과 젓산은 우리 몸의 소화와 배설을 돕고, 유해균이 번식하거나 발암 물질이 생성되는 것을 억제한다.

04 '풍성하다'는 '넉넉하고 많다.'라는 의미이므로, 수확의 계절 가을은 '풍성한'으로 수식하는 것이 적절하다.

05 '비결'은 '세상에 알려져 있지 않은 자기만의 뛰어난 방법'을 의미하므로, 할머니 음식 맛에는 '비결'이 적절하다.

07 '숙성'은 '생물의 발육이 완전히 이루어짐.'을 의미하고, '숙성'은 '효소나 미생물의 작용에 의하여 발효된 것이 잘 익음.'을 의미하므로 포도주는 '숙성된다.'라는 말과 어울린다.

예상 적중 소 단 원 평가

본문 50~51쪽

- 01 ㉔ 02 ㉔ 03 ㉔과 ㉕은 모두 둘 이상의 대상을 견주어 설명하는데 ㉔은 공통점을, ㉕은 차이점을 밝힌다. 04 ㉔
 05 ㉔ 06 ㉔ 07 맛있는, 식품이다. 08 ㉔

01 (라)에서는 젓산균이 만들어 낸 젓산의 특성 덕분에 김치가 잘 썩지 않는다는 것을 '인과'의 방법으로 설명하고 있다. 여기에서 젓산균과 젓산을 대조하고 있지는 않다.

02 채소의 영양분을 계절에 상관없이 섭취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은 발효 식품 중 김치에만 해당하는 특성이다. 채소를 재료로 하지 않는 발효 식품들은 이러한 특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

03 **서술형** ㉔에는 둘 이상의 대상을 견주어 서로 간의 공통점을 밝혀 설명하는 비교가, ㉕에는 둘 이상의 대상을 견주어 서로 간의 차이점을 밝혀 설명하는 대조가 사용되었다.

04 ㉔의 문장은 종자 개량으로 소의 크기가 커졌다는 내용으로 '늘어서 많아짐. 또는 늘려서 많게 함.'을 뜻하는 '증식'을 활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 05 (마)에서 발효 식품은 오래 보관할 수 있다고 하였다.
- 06 (마)에서는 발효 식품의 우수성을 강조한 후, 앞으로 전통 발효 식품을 발전시켜 나가자는 제안을 하고 있다.
- 07 **서술형** <보기>에서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언어가 변하는 예를 들어 언어의 역사성을 설명하고 있다. (가)에서도 발효를 거쳐 만들어지는 전통 음식으로 간장과 된장을 예로 들고 있다.
- 08 ㉠은 발효 식품의 여러 좋은 점을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이를 나타내기에는 좋은 일 위에 또 좋은 일이 더하여짐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인 '금상첨화'가 가장 적절하다.

- 오답 풀이** ② 옛것을 익히고 그것을 미루어서 새것을 앎.
 ③ 두 사람이 이해관계로 서로 싸우는 사이에 엉뚱한 사람이 애쓰지 않고 가로챈 이익을 이르는 말
 ④ 본이 되지 않은 남의 말이나 행동도 자신의 지식과 인격을 수양하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⑤ 많으면 많을수록 더욱 좋음.

고득점 서술형 문제

본문 52~53쪽

- 1단계** 01 된장 02 정의 03 젓산 04 우수성 05 공통점, 차이점
- 2단계** 06 발효 식품이다. / 건강에 좋다. / 맛이 좋다. 07 발효 식품의 우수성을 알고, 앞으로 전통 발효 식품을 발전시킬 방법을 생각해 보자. 08 처음 부분: 설명 대상과 앞으로 전개할 내용을 소개한다. / 끝부분: 설명한 내용을 요약정리하고, 앞으로의 과제를 당부한다.
- 3단계** 09 ㉠: 예시, 구체적인 예를 들어 설명하는 방법 / <보기>: 분류, 어떤 대상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 종류별로 묶어 설명하는 방법 10 인과, 미세 먼지(원인) 때문에 생기는 신체 변화(결과)를 원인과 결과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으므로

1단계

- 01 (바)에서 된장은 간 기능을 높이고, 피부병과 성인병을 예방하는 데에도 효과적이며, 항암 효과도 뛰어나다고 하였다.
- 02 ㉠에는 발효의 본질, 개념, 뜻을 밝히며 설명하는 정의가 사용되었다.
- 03 약한 산성 물질인 젓산은 유해균 증식을 억제하여 김치가 잘 썩지 않게 한다. 그래서 우리는 김치를 오래 두고 먹을 수 있다.
- 04 (사)에서는 '지금까지~발효 식품의 우수성을 알아보았다.'라고 하며 가운데 부분의 내용을 요약정리하고 있다. 따라서 설명할 내용을 안내하는 ㉠에는 '우수성'이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 05 ㉡는 '발효'와 '부패'의 공통점을 비교로, ㉢는 '발효'와 '부패'의 차이점을 대조로 설명한 문장이다.

2단계

- 06 <보기>의 식품들은 글쓴이가 예로 든 발효 식품이다. (가)에서는 발효 식품이 건강식품으로 널리 알려져 있고, 특유의 맛과 향으로 사람들의 입맛을 사로잡고 있다고 하고 있다.

- 07 (사)에서는 발효 식품의 우수성을 강조하고, 앞으로 전통 발효 식품을 발전시킬 방법을 생각해 보자고 제안하고 있다.
- 08 (가)는 글의 처음 부분으로, 설명 대상과 글을 쓴 동기 등을 밝히고 있다. (사)는 글의 끝부분으로, 가운데 부분에서 설명한 내용을 요약정리하고, 앞으로의 과제 등을 당부하고 있다.

3단계

- 09 ㉠은 구체적인 예를 드는 예시로, 다양한 발효 식품을 예로 들어 발효 식품이 애용된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 <보기>는 소리를 내는 방법에 따라 국악기를 묶는 분류로, 국악기의 종류를 설명하고 있다.

평가 목표	설명 방법과 그 개념 파악하기
채점 기준	✓ 두 곳에 사용된 설명 방법과 그 개념을 모두 맞게 쓴 경우 [20점] ✓ 두 곳에 사용된 설명 방법 중 하나만 맞게 쓴 경우 [10점] ✓ 설명 방법의 개념이 틀린 경우 [5점 감점] ✓ 띄어쓰기나 맞춤법이 잘못되었을 경우 [1점씩 감점]

- 10 <보기>는 미세 먼지를 원인으로, 이것이 신체에 미치는 영향을 결과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는데, 이는 원인과 결과를 중심으로 설명하는 방법인 인과에 해당한다.

평가 목표	대상을 설명하는 데 효과적인 설명 방법 이해하기
채점 기준	✓ <보기>를 설명하기에 적절한 설명 방법과 그 까닭을 모두 맞게 쓴 경우 [20점] ✓ <보기>를 설명하기에 적절한 설명 방법을 썼지만 그 까닭의 내용이 미흡한 경우 [10점] ✓ 띄어쓰기나 맞춤법이 잘못되었을 경우 [1점씩 감점]

(2) 설명하는 글 쓰기

간단 복습 문제

본문 55쪽

- 꼭지 시험** 01 개요 02 정확성 03 예상 독자 04 ○
 05 ○ 06 × 07 ㉠ 08 ㉡ 09 ㉢ 10 ㉣
- 어휘 시험** 01 확립 02 결속 03 보존 04 계승 05 선별하여
 06 간주되고 07 정체성 08 ㉣ 09 ㉠ 10 ㉡
 11 ㉢

- 01 '개요'는 글의 내용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를 일목요연하게 표로 나타낸 것으로, 보통 내용 조직하기 단계에서 작성한다.
- 06 예상 독자의 수준과 흥미를 고려하여 글의 주제를 설정하는 단계는 표현하기가 아니라 계획하기 단계이다.
- 05 '선출하다'는 '여럿 가운데서 골라내다.'를 의미하는데 보통 사람을 선택할 때 사용하는 단어이다. 따라서 제시된 문장에는 '가려서 따로 나누다.'는 뜻의 '선별하다(선별하여)'가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07 제시된 문장은 우토로 마을 사람들이 한국인로서의 본질을 지켰다는 내용이므로, 괄호에는 '변하지 아니하는 존재의 본질을 깨닫는 성질'을 의미하는 '정체성'이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예상 적중 소단원 평가 본문 56쪽

01 ③ 02 ① 03 내용 생성하기 04 ③ 05 ④

01 (가)에서는 줄다리가 교육적으로 가치가 있기에 이를 잘 보존하고 계승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이를 활용하여 줄다리를 지켜야 하는 까닭을 설명할 수 있다.

02 '나. 줄다리기를 줄의 구조'는 '줄다리의 뜻과 유래'와는 관련이 없으므로, 이를 ㉠의 하위 항목으로 추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의 하위 항목에는 '나. 줄다리의 유래'를 추가하는 것이 적절하다.

03 **서술형** 글의 주제와 목적에 맞는 자료를 다양한 매체에서 수집하는 단계는 내용 생성하기 단계이다.

04 내용을 조직할 때에는 수집한 자료를 모두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주제와 관련이 있는 자료 중, 객관성과 신뢰성을 갖춘 것을 선별하여 활용해야 한다.

05 <보기>에서는 '외이', '중이', '내이'와 같이 읽는 이가 알기 어려워할 만한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보기>에 ④와 같은 글쓰기 계획이 반영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 오답 풀이**
- ① 귀지의 뜻을 정의하며 글을 시작하고 있다.
 - ② 귓속으로 들어오려는 이물질을 막아 주는 귀지의 역할을 설명하여 그 필요성을 깨닫게 하고 있다.
 - ③ 귀의 구조를 외이, 중이, 내이로 분석하고 있다.
 - ⑤ 녹녹한 귀지와 마른 귀지라는 귀지의 종류를 제시하여 한국인은 대부분 마른 귀지임을 밝히고 있다.

고득점 서술형 문제 본문 57~58쪽

1단계 01 줄다리기를, 친구들 02 가운데-1-가. 줄다리의 뜻 03 지네 04 내용 조직하기 05 정의

2단계 06 줄다리를 하는 방법(줄다리의 편 구성 방식)을 설명할 때 활용할 수 있다. 07 Ⓐ: 설명하는 글, Ⓑ: 객관적이고 정확한, Ⓒ: 설명 방법 08 개요를 작성하면 글의 내용을 좀 더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조직하고 배열할 수 있으며, 내용을 더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

3단계 09 줄다리를 통해 공동체를 결속할 수 있고 개인이 집단 구성원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으므로 줄다리를 보존하고 계승하자. 10 ㉠: 어려운 단어를 쉬운 표현으로 바꾸고, 내용이 자연스럽게 연결되도록 문장을 다듬어야 한다. / ㉡: 귀지의 역할을 보충해야 한다.

1단계

01 (가)에서 '민재'는 줄다리에 흥미를 느낀 후, 줄다리에 대한 정보를 찾아 친구들에게 알려 줘야겠다고 계획하고 있다.

02 (나)는 국어사전의 내용으로 줄다리의 뜻을 밝혀 설명하고 있으므로, (라)의 '가운데-1-가. 줄다리의 뜻'을 설명할 때 활용할 수 있다.

03 (다)에서는 결줄이라고 불리는 작은 줄들이 몸줄 좌우에 붙어 있는 모양을 무수한 발들을 가진 지네에 빗대어 효과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04 내용 조직하기 단계에서는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설명하는 글의 구조인 '처음-가운데-끝'에 맞게 개요를 작성한다.

05 ㉠에서는 대상의 본질, 개념, 뜻을 밝히며 설명하는 정의를 활용하여 귀지의 뜻을 설명하고 있다.

2단계

06 <보기>는 줄다리의 일반적인 편 구성 방식을 비교와 대조의 방식으로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보기>는 (라)의 '가운데-2. 줄다리를 하는 방법(줄다리의 편 구성 방식)'을 설명할 때 활용할 수 있다.

07 (마)는 설명하는 글(Ⓐ)로, 대상에 대한 정보를 객관적이고 논리적으로 서술한 글이다. 따라서 이러한 글을 쓰기 전 내용을 생성하는 단계에서는 객관적이고 정확한(Ⓑ) 정보를 중심으로 자료를 수집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설명하는 글을 쓸 때에는 적절한 설명 방법(Ⓒ)을 활용하여 내용을 효과적으로 표현해야 한다.

08 (라)는 글의 내용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를 일목요연하게 표로 나타낸 개요이다. 따라서 (라)와 같은 개요를 작성하면 내용을 좀 더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조직하고 배열할 수 있다. 그리고 내용을 더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

3단계

09 <보기>에서는 줄다리가 놀이에 참여하는 공동체를 결속하게 하고, 개인에게는 집단 구성원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도록 해 주는 사회적 가치가 있다고 하고 있다. 따라서 글쓴이는 이를 근거로 줄다리를 보존하고 계승하자는 당부를 할 수 있다.

평가 목표	개요에 따라 글쓰기
채점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줄다리를 보존하고 계승하자는 당부를 (조건)에 맞게 쓴 경우 [20점] ✓ 당부를 맞게 썼지만, 근거의 내용이 미흡한 경우 [10점] ✓ 띄어쓰기나 맞춤법이 잘못되었을 경우 [1점씩 감점]

10 <보기>의 ㉠은 '외이', '중이', '내이' 같은 어려운 단어를 쉬운 표현으로 바꾸고 내용이 자연스럽게 연결되도록 문장을 다듬었다. 그리고 <보기>의 ㉡는 귀지가 외투 역할을 하기도 한다는 귀지의 역할을 보충하였다.

평가 목표	고쳐쓰기 방안 파악하기
채점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 ㉡의 고쳐쓰기 방안을 모두 (조건)에 맞게 쓴 경우 [20점] ✓ ㉠과 ㉡의 고쳐쓰기 방안 중 한 가지만 맞게 쓴 경우 [10점] ✓ 띄어쓰기나 맞춤법이 잘못되었을 경우 [1점씩 감점]

예상 격중 대단원 평가

본문 59~60쪽

- 01 ⑤ 02 ③ 03 우리에게 유용한 물질을 만들기 때문에 발효된 물질은 사람이 안전하게 먹을 수 있다. 04 ⑤ 05 ②
06 ③ 07 ② 08 글의 처음 부분에 읽는 이의 흥미를 유발 할 만한 내용을 추가한다.

01 이 글에서는 전문가의 견해를 인용하여 발효 식품을 설명하고 있지 않다.

오답 풀이 ① (가)에서는 질문을 통해 앞으로 설명할 내용을 소개하고, 독자의 궁금증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② (라)에서는 전통 발효 식품의 효용 가치에 대해 강조하고 이를 발전시킬 방법도 생각해 보자는 제안을 하고 있다.

③ 이 글에서는 우리의 전통 음식, 특히 김치를 사례로 들어 전통 발효 식품의 우수성을 설명하고 있다.

④ 이 글의 끝부분인 (라)에서는 '지금까지 우리의 전통 음식을 중심으로 발효 식품의 우수성을 알아보았다.'라고 하며 앞부분의 내용을 요약정리하고 있다.

02 이 글은 우리의 전통 발효 식품을 예로 들어 발효 식품의 우수성을 설명하고 있을 뿐, 우리의 전통 발효 식품과 서양의 발효 식품을 비교하고 있지는 않다.

03 **서술형** (나)에서는 '발효'와 '부패'를 비교·대조하고 있다. '발효'와 '부패'는 모두 미생물이 유기물에 작용하여 물질의 성질을 바꾸어 놓는다는 점에서 같지만, '부패'와 달리 '발효'는 우리에게 유용한 물질을 만들기 때문에 발효된 물질은 사람이 안전하게 먹을 수 있다고 하였다.

04 <보기>에서는 남의 눈에 눈물을 내면 제 눈에는 피눈물이 난다고 하였는데, 이는 원인과 결과를 중심으로 설명하는 인과가 활용된 것이다. ㉠ 역시 인과의 설명 방법을 활용하여 김치가 잘 썩지 않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05 줄다리기는 특정 시기에 발생하여 발전해 왔기 때문에 그 유래를 시대별로 나누어 설명할 수 없다. 줄다리기의 유래는 인과의 설명 방법을 활용하여 설명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06 (가)의 비너목이 놀이 도중에 부러지게 되면 수줄 편이 진 것으로 간주한다는 내용은 줄다리기의 규칙에 해당한다. 따라서 (가)의 자료는 '가운데-2-나.'에서 '줄다리기의 규칙'을 설명할 때 활용할 수 있다.

07 예상 독자의 지식과 수준에 따라 전문어를 쉬운 표현으로 바꾸어 써야 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②는 설명하는 글을 평가하는 기준이 될 수 없다.

08 **고난도 서술형** <보기 2>는 사람들이 일상에서 흔히 겪는 일을 통해 설명할 대상을 소개하고, 질문을 던져 그와 관련된 지식에 대한 궁금증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평가 목표	평가하고 고쳐쓰기
채점 기준	✓ 글의 구성 단계와 고쳐쓰기 방안을 모두 바르게 쓴 경우 [상]
	✓ 글의 구성 단계와 고쳐쓰기 방안을 모두 썼으나, 그 내용이 미흡한 경우 [중]
	✓ 글의 구성 단계만 쓰고 고쳐쓰기 방안을 바르게 쓰지 못한 경우 [하]

실전에 강한 **중간** 고사 대비 모의고사 1회

본문 62~66쪽

- 01 ④ 02 ③ 03 ② 04 지혜, 지식 05 ④ 06 ⑤
07 ⑤ 08 ⑤ 09 ② 10 ③ 11 무분별한 플라스틱 사용으로 발생한 바다 오염의 심각성을 살펴보고, 그 해결 방법을 찾아보자. 12 ③ 13 ④ 14 ④ 15 ③ 16 무엇을 타고 왔니? 17 ③ 18 상황 맥락 19 ④ 20 다른 문화권의 사람과 대화할 때에는, 우리의 문화가 담긴 관용적 표현보다는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표현을 사용해야 한다. 21 ⑤ 22 ④
23 ② 24 ④ 25 ④ 26 의미 공유 과정

01 글쓴이는 달리기, 노래 부르기 등과 같이 일상에서 마음을 다스리는 방법을 제시하면서 책 읽기 역시 마음을 다스리는 방법 중의 하나라는 것을 밝히고 있다. 즉 마음을 다스리기 위해 책을 읽으라는 것이지, 책을 제대로 읽기 위해 마음을 다스리라는 것은 아니다.

02 (다)는 읽었던 책의 내용이 여러 가지 분야에서 도움이 되거나 살아가는 데 용기와 힘을 주고, 삶의 지침이 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③은 이와는 관계가 없다.

03 (나)에서는 '이덕무'의 예시를 통해 책 읽기 역시 달리기, 노래하기처럼 마음을 다스리는 방법 가운데 하나라는 것을 제시하였다.

04 **서술형** '만병통치약'이라는 표현은 글을 읽는 것 자체로 모든 병을 낫게 한다는 것이 아니라, 책을 읽음으로써 얻을 수 있는 삶의 지혜와 지식, 간접 경험의 효용성을 빗대어 표현한 것이다.

05 (다)에서 제시한 '평균 식품 에너지 공급 충분성' 자료는 식량이 충분한데도 기아 문제가 발생하는 원인을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하는 자료이다. 따라서 이 자료와 '기아 문제가 발생하는 원인'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06 (라)에서 (라)의 앞에서 기아 문제의 심각성과 원인, 해결 방법을 알아보았다고 하였다. 따라서 (다) 이후에는 문제의 원인을 제시하고, 그에 따른 해결 방법을 다루는 방식으로 내용을 구성할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07 ㉠은 듣는 이의 관심과 흥미를 불러일으키면서 '기아 문제의 심각성과 해결 방안'이라는 발표문의 주제와 자연스럽게 연관을 짓기 위해 언급한 것이다.

08 (라)에서는 기아 문제가 우리와 동떨어져 있는 일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듣는 이에게 기아 문제 해결에 동참할 것을 호소하고 있다. 이를 위해 ㉠과 같은 권위 있는 사람의 말을 인용해서 듣는 이의 인식 변화를 촉구하고, 발표자의 생각을 호소력 있게 전하고 있다.

09 독립 기념관의 배치 및 관람 순서는 독립 기념관의 공간 배치와 공간 이동에 따라 내용을 조직하여 발표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10 (가)에는 ‘글쓴이는 환경 단체에서 활동을 하면서 환경이나 생태와 관련한 책을 많이 쓴 사람’이라는 글쓴이에 대한 정보가 나타난다.

11 **서술형** ‘우리 모듬’은 플라스틱 사용으로 오염된 바다의 상황을 다룬 『지구인의 도시 사용법』이라는 책의 내용을 정리하려고 한다. 따라서 이를 바탕으로 환경 오염과 관련된 주제를 정한다면, 플라스틱과 바다 오염, 그 해결 방법에 대한 내용이 적절하다.

12 발표문의 가운데 부분에는 플라스틱의 정의와 플라스틱 때문에 발생한 바다 오염 실태, 플라스틱이 생태 환경에 미치는 영향 분석,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기 위한 구체적인 해결 방안 등을 다루어야 한다.

13 <보기> 자료를 통해 폐기된 플라스틱 대부분이 바다에 버려지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제시함으로써, 플라스틱이 바다 오염을 일으키는 요인임을 보여 줄 수 있다.

14 같은 말이나 글도 의사소통이 언제, 어디에서 이루어지느냐에 따라 뜻이 달라질 수 있다. 이와 같이 담화가 이루어지는 구체적인 시간과 공간을 가리켜 상황 맥락이라고 한다.

오답 풀이 ① 담화는 말하는 이, 듣는 이와 같은 담화 참여자, 전달하려는 내용, 맥락으로 구성된다.

② 담화는 말하는 이와 듣는 이가 함께 의미를 공유하는 협력적인 의사소통이다.

③ 같은 말이나 글도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는 시간과 공간에 따라 뜻이나 표현이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담화 참여자와 맥락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⑤ 담화는 지역, 시대, 성별, 문화, 역사적 상황 등에 따라 뜻이나 표현이 다양하게 나타난다.

15 (가)는 아침 체험 활동에서 발생한 담화이므로, 담화가 이루어진 시간은 저녁이 아니라 아침이다.

16 **서술형** ‘세민’의 질문에 ‘민재’가 자신이 이용한 교통수단이 무엇인지를 말했기 때문에, ㉠은 “무엇을 타고 왔니?”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17 ㉠은 어머니께서 늦은 밤까지 집으로 돌아가지 않는 친구에게 “시간이 늦어 어머니께서 걱정하실 테니 빨리 집으로 돌아가라.”라는 의미로 한 말이다.

18 **서술형** 담화가 이루어지는 구체적인 시간과 공간을 가리켜 상황 맥락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상황 맥락은 담화의 뜻뿐만 아니라 표현에도 영향을 미친다.

19 <보기>는 ‘양심을 지키세요.’라는 표현이 지하철역, 건널목, 해수욕장에서 사용될 때, 각 상황에서 나타내는 의미이다.

20 **고난도 서술형** 문화권에 따라 사용하는 언어 표현이 다르거나, 표현이 같더라도 서로 다른 뜻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하여, 상대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평가 목표	사회·문화적 맥락에 따른 담화 상황 파악하기
채점 기준	✓ 다른 문화권의 사람과 원활하게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 고려할 사항을 <조건>에 맞게 서술한 경우 [상]
	✓ 다른 문화권의 사람과 원활하게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 고려할 사항을 <조건>에 맞게 서술했으나 내용이 미흡한 경우 [중]
	✓ 다른 문화권의 사람과 원활하게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 고려할 사항을 서술했으나, <조건>에 맞지 않고 내용이 미흡한 경우 [하]

21 담화에 영향을 주는 사회·문화·역사적 상황 및 공동체의 의식이나 가치 등을 담화의 사회·문화적 맥락이라고 한다. (가)에는 지역에 따른 담화의 사회·문화적 맥락이 나타나지만, (나)에는 담화의 그러한 맥락이 잘 나타나지 않는다.

22 안내문이나 문학 작품에서 지역 방언을 의도적으로 사용하면 해당 지역의 특색과 분위기를 드러낼 수 있다.

23 (나)의 아들은 엄마를 설득하기 위한 타당한 근거가 필요하고, 엄마는 아들의 말을 긍정적으로 듣는 태도와 타당한 근거를 들어 아들을 설득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24 강연자는 학생인 듣는 이의 지식수준을 고려하지 않고 어려운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강연자는 듣는 이의 지식수준을 고려하여 용어를 쉽게 풀어 설명해 주어야 한다.

25 듣기·말하기 활동은 상대와 더불어 내용을 창조하고 그 의미를 공유해 가는 과정이므로, 말하는 이와 듣는 이는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하고, 상대방을 배려하는 태도로 대화에 임해야 한다.

26 **서술형** 이 글에서는 듣기·말하기가 일방적으로 뜻을 전달하고 뜻을 전달받는 의사소통 과정이 아니라, 상대와 더불어 내용을 창조하고 그 의미를 공유해 가는 과정이라고 하였다.

실전에 강한 **기 말** 고사 대비 모의고사 1회 본문 67~72쪽

01 ④ 02 ④ 03 <보기>와 같이 말하는 이의 속마음을 직접적으로 드러내면 ‘당신’을 그리워하는 말하는 이의 절절한 마음이 덜 느껴진다. 04 ① 05 ③ 06 ⑤ 07 ④ 08 ① 09 부정적, 긍정적 10 ④ 11 ④ 12 ⑤ 13 · ‘박 선생님’과 비슷한 유형: 두꺼비 / · 풍자하는 내용: 자신보다 힘이 약한 대상은 괴롭히고 자신보다 힘이 센 대상에게는 도망치는 이중적이고 부조리한 행동 14 ① 15 ③ 16 · 문장이 어색한 까닭: 문장이 너무 길어서 문장 전체의 뜻을 이해하며 읽기에 어렵다. / · 고친 표현: 우리가 “민들레!” 하고 부르면 민들레는 자기 이름을 알아듣고 우리 곁으로 다가왔다. 그러고는 우리 곁을 맴돌면서 빼악 빼악 노래를 불렀다. 그런 민들레의 모습은 정말 귀엽고 사랑스러웠다. 17 ④ 18 ② 19 ⑤ 20 ①, ② 21 · 설명 방법: 정의 / · 이 글에서 동일한 설명 방법이 쓰인 문장: 발효란 곰팡이나 효모와 같은 미생물이 탄수화물, 단백질 등을 분해하는 과정을 말한다. 22 ③ 23 ③ 24 암줄, 수줄, 차이점 25 ⑤

01 (가)의 말하는 이는 떠난 임을 잊지 못하는 자신의 속마음을 반대로 ‘잊었노라’라고 표현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말하는

이의 마음을 반어로 표현한 것으로, 실제로는 떠난 입을 잊지 못하고 있다.

02 (가)는 민요에서 자주 나타나는 3음보 율격의 시이다. 시행을 세 마디로 바르게 끊어 표시한 것은 ④이다.

- 오답 풀이** ① ‘먼 훗날√당신이√찾으시면’과 같이 끊어 읽어야 한다.
 ② ‘그때에√내 말이√있었노라’와 같이 끊어 읽어야 한다.
 ③ ‘당신이√속으로√나무라면’과 같이 끊어 읽어야 한다.
 ⑤ ‘먼 훗날√그때에√있었노라’와 같이 끊어 읽어야 한다.

03 **서술형** <보기>처럼 표현하면 말하는 이의 심리가 확실하게 드러나지만, 말하는 이가 자신의 속마음을 반대로 표현했을 때와 달리 ‘당신을 그리워하는 절절한 마음이 잘 느껴지지 않는다.’

04 ㉔에는 겉으로는 뜻이 모순되고 이치에 맞지 않는 것 같지만, 그 속에 진리를 담고 있는 ‘역설’이 사용되었다. 실제의 의미보다 더하게 표현하는 것은 ‘과장법’이다.

05 ‘이젠 괜찮은데, 사랑 따윈 저버렸는데’는 반어 표현으로, 말하는 이의 속마음을 반대로 표현한 것이다. 이것은 ‘아직도 당신이 그립고, 당신을 향한 사랑을 버리지 않았다.’는 의미를 더욱 강조하는 표현이다.

06 이 글은 해방 전후, 어느 초등학교를 배경으로 한 소설이다.

07 ‘강 선생님’은 수업 시간이 아닌 평상시에는 일본 말 대신 조선말을 사용한다. 이는 일제에 동조하지 않고, 자기 나름대로 일제에 저항하면서 민족정신을 지키려는 의도가 담긴 행동으로 볼 수 있다.

08 (가)에서는 ‘박 선생님’의 외양을 묘사하면서 우스꽝스럽게 표현하고 있다. 이것은 외양 묘사를 통해 ‘박 선생님’의 뒤편이를 풍자하기 위한 글쓴이의 의도가 나타난 것이다.

09 **서술형** (가)에서는 ‘박 선생님’을 우스꽝스럽게 묘사하면서 ‘박 선생님’에 대한 ‘나’의 부정적인 인식을 나타내었다. (나)에서는 ‘박 선생님’과 정반대로 생긴 이가 ‘강 선생님’이라고 하면서 ‘강 선생님’의 외양과 성격을 긍정적으로 표현하였다.

10 ‘박 선생님’은 광복 이후 미국의 영향력이 점점 커지자 미국에 협력하기 위해 미국 말을 공부하고, 결국 미군의 통역 역할을 하며 개인적 이익을 얻게 된다.

11 ‘박 선생님’은 일제 강점기에는 ㉑처럼 친일적인 태도를 보이고, 해방 후에는 ㉒과 ㉓처럼 일본을 깎아 내리고, 미국을 추종하며 찬양하고 있다. 이처럼 ‘박 선생님’은 일관된 입장을 지니지 못하고 그때그때의 정세에 따라 이로운 쪽으로 행동하는 기회주의적인 면모를 드러내고 있다.

12 ㉔는 어린아이의 시선으로 ‘박 선생님’의 말을 희화화함으로써 ‘박 선생님’을 풍자한 부분이다. ㉕는 풍자가 아니라 역설에 대한 설명이다.

13 **서술형** ‘박 선생님’은 기회주의적으로 행동하는 인물 유형이다. 제시된 시조의 ‘두꺼비’ 역시 힘이 약한 대상과 힘이 강한 대상을 대하는 태도가 다른 이중적이고 부조리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14 이 글은 병아리 ‘민들레’와의 추억과 ‘민들레’에 대한 그리움을 담고 있다. 따라서 글의 제목으로는 ‘민들레에 대한 그리움’이라는 전체 내용을 포괄할 수 있는 ①이 적절하다.

15 (가)는 ‘민들레’를 떠올리는 ‘나’, (나)는 ‘나’와 ‘민들레’의 첫 만남, (다)는 ‘민들레’를 방에서 기르고 싶어 하던 ‘나’, (라)는 ‘민들레’와의 이별, (마)는 병아리에게 ‘민들레’라는 이름을 지어 준 이유에 대한 내용이다. 이것을 글의 흐름에 맞게 배열하면 ‘민들레’를 떠올린 계기에서 ‘민들레’와의 첫 만남, 이후에 벌어진 일들, ‘민들레’와의 이별 순으로 정리할 수 있다.

16 **고난도 서술형** (마)의 마지막 문장이 너무 길어서 문장 전체의 뜻을 이해하며 읽기가 어렵다. 긴 문장은 내용에 따라 두세 문장으로 분리한 후, 적절한 접속어로 연결하면 매끄럽게 만들 수 있다.

평가 목표	문장 수준에서 글을 고쳐쓰기
채점 기준	✓ 어색한 문장을 찾아 <조건>에 맞게 바르게 고쳐 쓴 경우 [상]
	✓ 어색한 문장을 찾아 고쳐 썼으나 <조건>에 맞지 않는 경우 [중]
	✓ 어색한 문장을 찾았으나, 바르게 고쳐 쓰지 못한 경우 [하]

17 ‘대수롭다’는 주로 부정문에서 ‘중요하게 여길 만하다.’라는 의미로 쓰이는데, 글의 내용으로 보아 문맥상 적절하게 쓰인 단어이다. ‘시시하다’는 ‘신통한 데가 없고 하찮다.’라는 의미이다.

18 이 글은 우리나라 전통 발효 식품의 우수성을 다양한 설명 방법을 활용하여 객관적으로 설명하는 글이다.

19 (마)에서는 된장의 우수성을 설명하면서, 메주가 발효되면서 향암 물질이 만들어진다고 했다. 하지만 이 향암 물질이 부패하기 쉽다는 내용은 제시되지 않았다.

20 (나)에서는 발효의 개념을 밝히며 설명하는 ‘정의’, 발효와 부패의 공통점을 밝혀 설명하는 ‘비교’, 발효와 부패의 차이점을 밝혀 설명하는 ‘대조’의 설명 방법을 사용했다.

21 **서술형** <보기>의 밑줄 친 부분은 관약기, 현약기, 타약기의 개념을 밝혀 설명하는 ‘정의’의 방법이 쓰였다. 이 글에서는 (나)에서 발효의 개념을 밝혀 설명하고 있다.

22 (라)에서 줄다리기를 전승하려는 노력에 대해 설명하고 있지만, 줄다리기의 전승 방식에 대한 설명은 제시하지 않았다.

23 제시된 자료는 줄다리기가 여러 측면에서 매우 가치 있는 놀이이므로 이를 잘 보존하고 계승해야 한다는 내용을 인과의 설명 방법을 활용하여 제시하고 있다.

24 **서술형** 줄다리기 편 구성 방법은 경상남도 영산 지방과 전라남도 강진 지방이 서로 반대이다. 이러한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 대상 간의 차이점을 밝혀 설명하는 ‘대조’의 설명 방법을 사용하였다.

25 설명하는 글을 쓸 때에는 객관적이고 정확한 정보를 중심으로 자료를 수집하여, 대상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사실을 제공해야 한다.